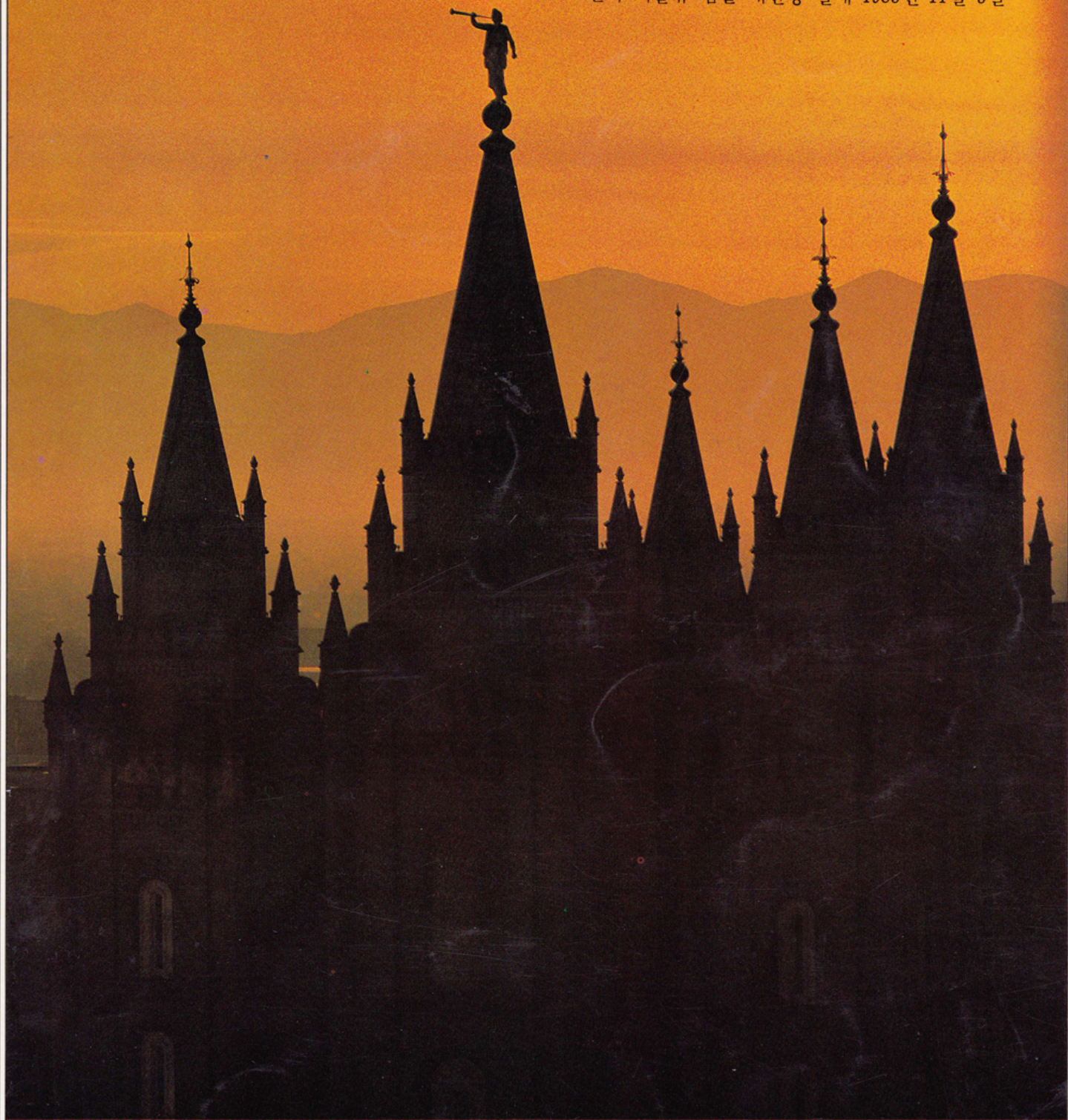


성도의 빛 1

1986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별세 1985년 11월 5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5차 반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5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85년 10월 5~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 일정 및 말씀

“우리는 교회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 온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성전을 건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관장단 제2보좌이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10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열린 교회 제155차 반연차 대회의 일반 총회에서 말씀했다.

“성전 건축과 성립 헌납은 과거 수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 사실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에 우리는 16개의 새로운 성전을 헌납하고 복원된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한 개의 성전을 더 헌납하게 되어, 1983년에 6개, 1984년에 6개, 1985년에 6개의 성전을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전 건립의 영향력은

주님의 계시를 받은 킴볼 대관장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 사업은 바로 주님의 사업입니다.”라고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씀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틀에 걸친 반연차 대회를 감리하여 10월 6일과 7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었던 네 차례의 일반 총회에 참석하셨다. 대회 모임의 사회는 힝클리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맡았다. 집에서 요양 중인 대관장단 제1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일요일 오후의 일반 총회에서는 대회의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다. 1985년 4월 19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의 별세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앨 러셀 벨라드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시되었다.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선임 회장직을 역임했던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는 그 직에서 해임되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본부가 있는 남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을 관리할 지역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파이안스 장로는 교회 본부의 직분으로 복귀한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의 후임자가 되었다. 파이안스 장로의 뒤를 이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선임 회장으로 칼로스 이 애시 장로가 봉사하게 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에 생긴 2개의 공석을 메우기 위하여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와 로버트 엘 백켄 장로가 지시되었다. 이 두 분은 모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었다.

대회 진행 과정은 인공 위성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1,000여 곳 이상의 와드와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교회 회원에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일반 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9월 28일에는 본부 여성 대회가 열렸으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인공 위성 수신 센터에 방영되었다.

그 모임에서 행해진 말씀들이 이번 호에 실려 있다. *

성도의 빛 1

1986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표지 설명: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의 솔트레이크 성전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 문 :

칼로스 이 에시, 랙스 디 피네가,
조지 피 리, 제임즈 엠 패러모어

통 권 : 제241호, 제22권 제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6년 1월 1일(겨울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3AKO PRINTED IN
KOREA 1/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5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뭉칩시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5. 하나님께로 태어남.....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 8. 풍성한 삶.....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 11. 사랑의 복음.....로렌 시 던 장로
- 1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로버트 엘 백맨 장로
- 18. 영화로운 실제의 삶, 전세.....닐 에이 맥스웰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22.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속죄의 교훈.....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6.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조지 피 리 장로
- 29. 무엇이 다릅니까?.....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 32. 영의 모험.....로버트 이 웰즈 장로
- 35. 극기.....러셀 엠 넬슨 장로
- 38.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신권회

- 41. 합당한 아버지와 합당한 아들.....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 43.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돈 린드 형제
- 46. 복음의 구멍 났을.....렉스 디 피네가 장로
- 49. 신권의 맹세와 성약.....칼로스 이 애시 장로
- 52. "나는 너희에게...이론 신권을 부여하노라".....엘 톰 페리 장로
- 55. 주님의 대업.....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59.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를 기뻐함.....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63. 영성.....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67. 자비가 공의를 포용하도록 합시다.....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 70. "그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딘 엘 라슨 장로
- 73. 평화-참된 원리의 승리.....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7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일요일 오후 모임

- 79. 금식일.....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82. 복음.....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 85. 부름을 받고.....엠 러셀 벨라드 장로
- 86. 선택된 도구인 요셉 스미스.....렉스 시 리브 장로
- 89. 유일한 참된 교회.....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93. "이 사업을 추진시킵시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여성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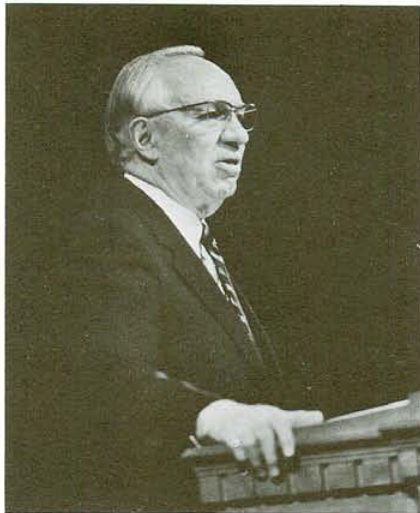
- 96. 교회의 여성에게 주는 말씀.....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00. 내게 가까이 오라.....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 101.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드웬 제이 영 자매
- 103. 성스러운 경전; 고향에서 온 편지.....아데스 지 캡 자매
- 106. 순종을 통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 108. 교회 및 지역 소식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뭉칩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하늘 아래 어떠한 권능도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하늘 아래 어떠한 권능도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볼 대관장께서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분은 구십 일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나오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선견자이고, 계시자 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았으며, 바로 그와 같은 권능에 의하여 그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는 주께서 그가 남아 있기를 뜻하시는 한 오래 이 자리에 계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시므로 축복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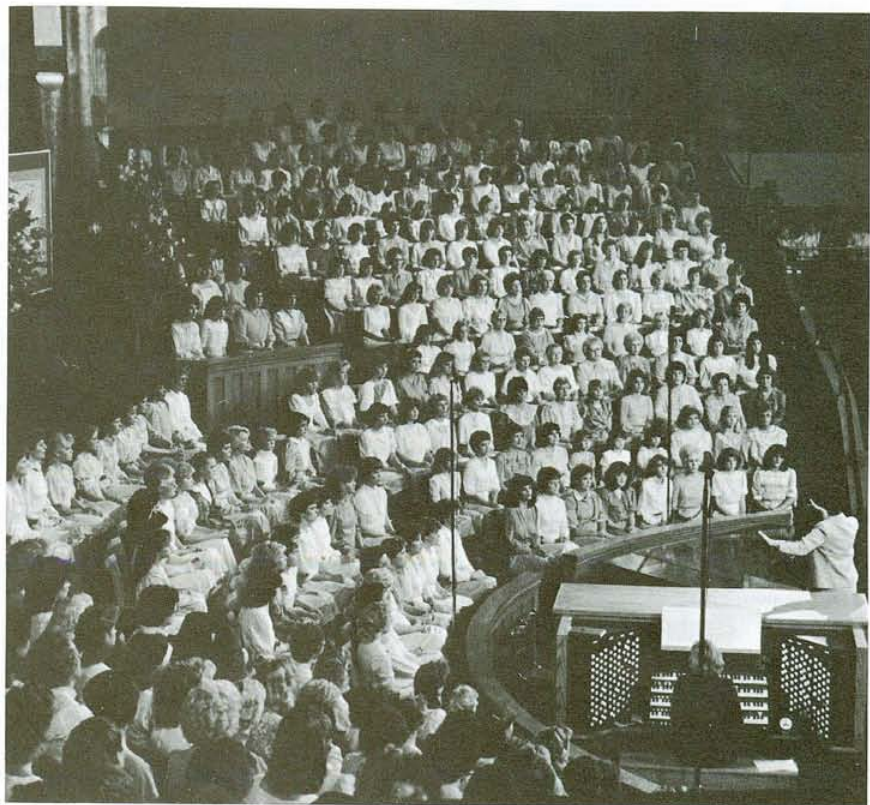
우리는 1985년 4월 19일에 타계하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힘찬 음성이 이 대회에서 들을 수 없음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그분은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지난 4월의 대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에 철두철미한 학자였으며, 그 메시지를 두려움없이 주창했습니다. 이론적인 그분의 발표와 진실이 넘치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께서 힘과 활기를 계속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첫번째 연사가 되실 것입니다. *

이 위대한 대회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태버나클 안에 모여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태버나클 밖에 있는 대회 장소에 참석하고 계시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지간에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따스하게 환영합니다.

백여 년 전 이 태버나클을 건축할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수가 보잘 것 없이 적었을 때, 총관리 역원들은 우리는 말일성도 전체를 수용할 만한 건물을 결코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와서 더욱더 실감나는 말입니다. 교회 회원은 현재 육백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 기술과 영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세계 대회에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고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놀라운 신앙과 충실함에



하나님께서로 태어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 22:42) 우리 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수십 세기에 걸쳐 세상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 하나님께서는 현대 경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인 물몬경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물몬경을 읽고 모로나이의 제안(모로 10:3-5)대로 거룩하게 시험해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일단 얻게 되면, “우리는 그를 따르기를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루시퍼를 따르기를 택합니다. (약 2:19; 막 5:7)

오랜 세월을 두고,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간청했습니다. (수 24:15)
엘리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왕상 18:21)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 곧 가장 옳은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풍성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 14:6 참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수께 이를 구하여”라고 모로나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 12:41)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택한다는 것은, 변화되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느낌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62년 4월, 7페이지)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서 매일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장 널리 퍼진 그리스도의 현대의 기적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없다면 —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질문에 대한 간단하나 종합적인 대답이 됩니다……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남, 곧 변형이 있어야 합니다.” (대회 보고, 1958년 4월, 14페이지)

맥케이 대관장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의 “내적인 인간”의 “전반적인 변혁”을 요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면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태도는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대회 보고, 1960년 4월, 26페이지)

승영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침례 의식을 받고 안수례를 받는 것 외에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백성이 남너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니,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 27:25-26)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 종교의 중석인 물몬경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왕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거듭남 사람들은 마음 속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악을 좃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행을” 했습니다.(모 5:2, 7 참조)

엘마서 4장은 니파이인의 역사에서 “교회 발전을 크게 저지당”(엘 4:10)한 시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엘마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행정부의 대판사의 자리를 물려 주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인 “대선권의 반차에…온전히 그의 모두를 바쳤”(엘 4:20)입니다.

백성들에게 “순수한 간증”을 전한 (엘 4:19) 그는 엘마서 5장에서 40가지가 넘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으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문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앨 5:14)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앨 5:26)

오늘날 영적으로 증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 나가면 교회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문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선교사들의 수효가 점점 증가되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문경 수가 점점 더 늘어날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킴볼 대관장이 시현으로 본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앨마는 선교사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거듭나도록 말을 전하였습니다. (앨 36:23-26)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다.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일순간이라도 느껴 본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 곧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다.



테리모임을 갖기 전에 타정단체 인사들과 나누고 있는 스펜서 테플류 킴볼 대관장과 심에셔도 평의회 의 에즈라 테프트 맨슨 회장

인간의 본성은 과거에 변화되었다. 세상이 그 자신의 피로 물들여지지 않으려면, 인간의 본성은 앞으로 거대한 규모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900여 년 전에는 열두 사람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단 열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비버리 니콜즈, 풍요한 삶을 사는 지름길, 르웰린 알 맥케이,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1년, 127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변화된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솔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은 “주여, 주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무엇이니이까?”하고 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그 자취를 따”(벧전 2:21)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행할”(요일 2:6)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이 말을 풀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불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붙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92페이지.)

그들의 뜻은 주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 5:30 참조) 그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 8:29 참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벽에 걸린 그림이나, 책장에 꽂힌 책이나, 잔잔히 흐르는 음악이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모 18:9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를 바라봅니다. (교성 6:36 참조)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그에게
돌립니다. (앨 37:36 참조)

거의 매주마다 성찬을 취하는
그들은 기쁘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제명을 지킬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새롭게 증거합니다. (모로
4:3 참조)

물론경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니이 32:3)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니이 25:26),
“그리스도 안에서 산 바 되며”(니이
25:25),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니이 33:6 참조)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영생을 찾습니다. (눅
17:33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그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잠이 들었는데, “무한히 장엄한 어떤
시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와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도시는
주님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도시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구세주께서 내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하셨듯이, 그때 그들
위에 나타난 반원을 가리키며 대답해
주셨는데, 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겨 낸 자들이니,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내가 잠을 깨어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기록에 나타난
소중한 경험, 클레어 미들미스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59-60페이지)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께로
거듭나면, 새 날이 밝아오고 시온은
구속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기를 택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며, 그의 지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불타
올라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풍성한 삶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교회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받기에 합당함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와 신앙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나는 진심으로 교회 회원과 교회에 대한 “사랑의 비판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추구하도록 말씀드리고, 또한 나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어떤 비판이나 반대가 교회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비판자 자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합당하게 동기 부여가 되고, 또한 그것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비판은 흔히 비판자 자신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의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결점을 찾는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안다면 크게 놀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가들에게 모든 진리를 이해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종교의 근본은 의문이나 사상 및 표현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모든 말일성도의 특권입니다.”(엔사인, 1985년 9월호, 5페이지)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풍성한 삶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풍성한 삶은 지식과 빛과 진리를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휴비 브라운 부대관장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쳐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바로 영클 지키의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것은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지의 대동맥을 굳어 버리게 합니다.”(고별 훈사, 유타 주립 대학, 유타주 로간, 1965년 6월 4일)

우리는 두 가지 근원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렉스 이리는 그것을 “이성적인 과정과 초이성적인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 1981-82년도 노변의

밤 모임 말씀,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1982년, 131페이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일생 동안 연구하여 익히는 이성적인 과정에는 익숙합니다. 초이성 또는 거룩한 근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원은 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두 가지 근원은 모두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리 형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학원에서나 성전에서나 똑같이 편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둘을 다 학문의 중심지로 여겨야 합니다.”(말씀, 132페이지)

우리는 분명히 광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지식도 역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탐구해 나갈 때 풍요한 삶을 누리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빛과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고 그 정보를 수락하고 거부하는 끝없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때때로 사적인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구세주에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라고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논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또 내 의견으로는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원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셉 스미스나 그의 후계자, 또는 교회의 확립된 기본적인 어떠한 교리를 비난하면서도 영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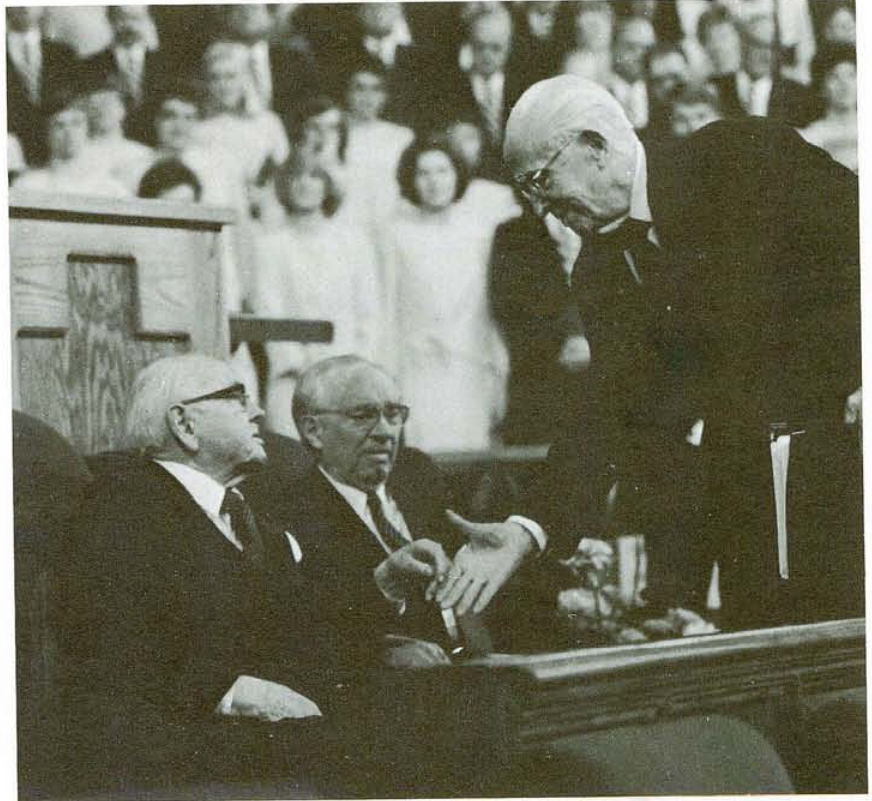
회원이 교회의 지도자나 교리를 공공연히 응징하거나 영원한 빛을 구하는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사적인 의심이나 불신앙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성스런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나 지도층에 불평하며, 신앙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룩한 배움의 근원에서 스스로 분리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을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을 보였더라면 누렸을 풍성한 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난과 결점 찾기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된 복음에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들이 누린 평화롭고 영적인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좀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의하여 망각되고 잊혀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돌담도 교회 회원들을 세상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도 속임수나 제의나 유혹에는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으로 견디어 내는 사람들은 결코 파괴시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담을 쌓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의 안전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굴종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의지하며, 주님의 종인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이들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인간들이며, 그들의 지혜와 판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는 인간의 완전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없이 이러한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위대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봉사들 다 바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이 오게 하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디까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전전한 교리로 승인해야 하겠습니까? 충실한 회원들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되십니다.

둘째,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예언자 및 완전한 복음의 회복자로서의 요셉 스미스의 사명입니다.

네째, 요셉 스미스로부터 오늘날 지상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게 신권의 권능선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의 진실한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비판자는 십일조 같은 계명에의 순종이 강제적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의무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코 강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 의지는 순종의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성인 회원은 누구라도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되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법이나 배도에 대한 유일한 형벌은 교회 조직이나 친목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성 134 : 10 참조)

개인적인 자부심은 인간의 신앙이 결여되는 원인의 하나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 높은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적인 학문만을 의지합니다.

교회에 충실하고 성실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에 의하여 전해진 전통적인 교리에 좀 반대하고, 조금 떨어져 나가 어느 정도 비방하는 것을 현명하고 세련되고 유행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지식의 결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람들이 자주 비방한 한 가지 교리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범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적인 증거로 이제 지혜의 말씀이 훌륭한 신체 건강법으로 판명되었으나, 내 의견으로는 그것의 가장 큰 유익은

영적인 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계시는 다 믿을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근원에서 온 계시를 믿는다면, 어떻게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수락함은 온전한 마음과 영혼으로 해야 하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대꾸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롬 1:18-25 참조)

회복된 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 안팎으로부터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자와 비판자의 결말은 어떠하였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여전히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강화되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는 이 일에 견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신앙이 크게 증가된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이 비방자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크게 해를 받게 될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교회가 박해하에서 성장했으며, 비난을 받으며 번영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관습과 지도층의 결점을 찾는 사람들은 소득없는 노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게 됩니다. 침례의 물에 씻은 사람들도 세속적인 학문의 근원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영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며, 그 복음은

진리와 영원한 깨달음의 중심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대한 유산은 이 교회가 영생을 위한 충만한 수단을 유일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교리를 외쳐야 합니까? 현재의 교회의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이 교회의 교리를 전파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계시와 관례에 의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수임은 계시를 통해 옵니다. 대관장단은 “온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정월회”(교성 124:1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에 대하여 스티븐 엘 리차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대관장단)은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상에서 최고 재판관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위임된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들은 일부는 성문화되고 일부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성문화된 부분은 고대와 현대의 근거가 확실한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의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성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그들의 부름에 맞는 계시의 영과 거룩한 영감의 부분입니다.”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 행정 조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계시에 의하여 지명받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원에 의하여 심판이 행해지고 선언되는 것은 곧,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법과 질서의 왕국입니다.”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15-16페이지)

우리는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그들의 감정이 진실됨을 증거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에 있도록 지켜 준 그러한 감정을 키움으로써 그들의 진실성이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직관에 따름으로써, 그들 자신의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도 고귀한 느낌에 따름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보다 더 높은

근원을 찾음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법입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환영의 손길이 반기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모두가 기여할 길이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 세력에서 떨어져 나간 라이만 화이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어울립시다.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님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곳에는 적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면 갈수록, 형제님의 의로움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로날드 지 왓트, “윌포드 우드럽과 라이만 화이트의 대화”, 브리검 영 대학교 연구, 1976년 8월, 113페이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비판자와 적대자와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만한 일은 몇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함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와 신앙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를 진심으로 의롭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속적인 관심사를 넘어,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식과 진리와 풍요한 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사랑의 복음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아무도 완전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이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느 것으로 보라도 그들을 더 훌륭하게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말 일성도에게는 개척자 시대로부터 애송해 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애송하던 찬송가의 하나로, 그가 순교되기 직전의 그 운명적인 시간에도 불러졌던 것으로 알려져 온 것입니다.

일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슬픔에 잠긴 나그네
내 옆을 지나 가면서
거절할 수 없는 도움
나에게 간절히 구할 때

어디서 와 어디로 가며
이름도 묻지 못하나
그 눈에 나도 모를 무엇 있어
내 사랑 끌렸네
(찬송가, 제96장)

이 찬송가의 다른 구절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보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보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필경 구세주의 무한하신 속죄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가장 고귀한 인간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며 여러 형태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한센이라고 부르는 그녀를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날, 걱정이 된 이웃들이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이 온유하고 너그러운 과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들 자신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감독단의 일원이 이 슬프지만 평화로운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히 서 있을 때, 뒤편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가 혼자 살고 있었음을 알고 왔던 그는 돌아서 보니 구석에 새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새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마리 자신이 새로운 날로 옮겨가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문턱에서 잠시 서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웃의 노인들과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두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는 과자를 구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아줌마나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이 시발점이 되어 모든 이웃이 이 사랑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집에서는 언제라도 환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에는 언제나 방금 구운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작은 집에 감도는 따스한 기운은 마리의 전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가 애완용 새에게 가르친 낱말은 그녀가 칠천해 온 낱말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여서도 그러한 말은 뒤에 남겨 놓은 사람들의 것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리에 앞서 남편이 수십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충만한 생을 살았으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인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 작별의 메시지로 남겨 놓았습니다.

마리 한센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필경 더 큰 유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세상에는 우리를 더 잘 알기를 원하며, 종교적인 면이나 교회로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관한 글을 쓰고 우리에게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의 정신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진실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온 세상의 많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는 옷이나 태도로

쉽게 눈에 띕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즉, 의무와 봉사와 메시지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선교 사업을 나갑니다. 그러나 18개월이나 2년 동안 훌륭하게 봉사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봉사한 사람에 대하여 매우 깊은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한 모든 경험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에 대하여 그들이 한 말은 옳았습니다. 선교 사업은 참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으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훌륭한 나라를 사랑하며,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며칠 전에 선교부장이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시작하자 일곱 살난 소년이 연단 위로 올라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순서에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곳에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가자, 소년은 연단으로 걸어 나와 간증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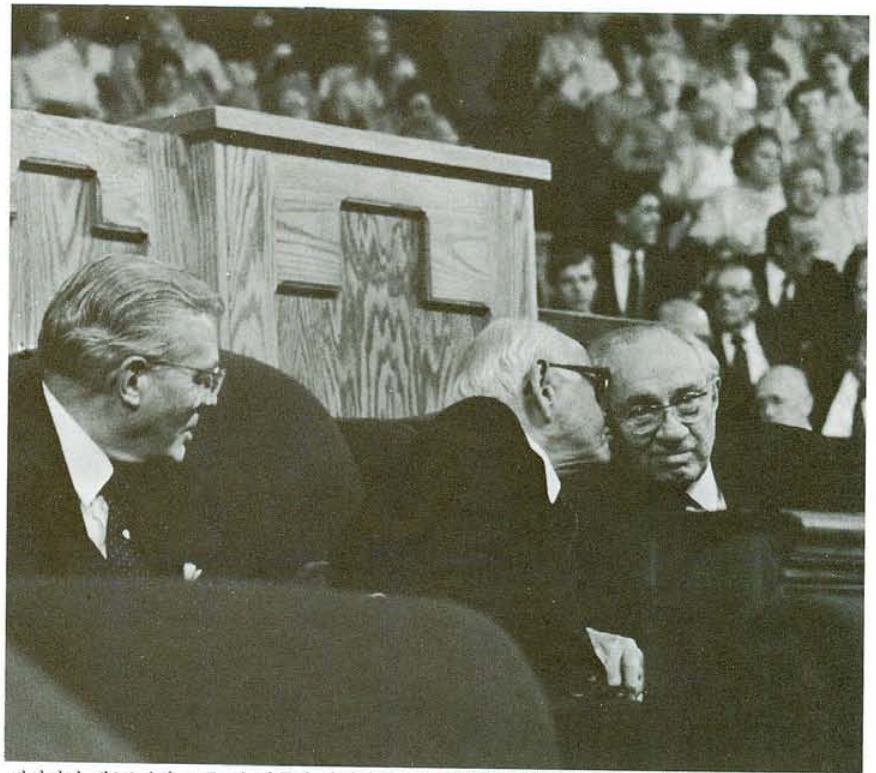
그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선교부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선교부장은 대견하다는 듯 미소를 보내 주었습니다. 어린 소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사랑과 안심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중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소년은 유년 시절을 교아로 지냈음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 와드의 어느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그들의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와드 전체가 그의 집이나 다름없었으며, 누구나 인정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꽃이 만발하듯 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 : 40)

수년 전, 김볼 대관장께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을 때, 그는 김볼 자매와 함께 해외의 선교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이 변경되는 바람에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에게 사랑을 표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왼쪽은 김볼 대관장의 비서인 디 아더 헤이코크

그들은 한 선교부장 부부와 더불어, 밤 늦은 시간에 달리 갈 데도 없이 새벽 비행기를 기다리며 찬 바람만 썰렁한 비행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볼 자매님은 코트를 입고 있었으나, 선교부장 부인은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주고자 했으나, 그 부인은 코트를 받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딱딱한 의자에서 잠이 들자, 김볼 대관장은 일어나서 자신의 코트를 잠이 든 선교부장 부인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는 태도를 김볼 대관장은 일생 동안 일관해 왔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를 우리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육백만 명의 말일성도를 이끌도록 부르셨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일생 동안을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주는 것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종과 종파를 초월하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간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모로 7 : 45, 47; 교전 13장 참조)

얼마 전에 던 자매와 나는 브라질의 마릴리아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마릴리아는 그 나라의 남동쪽 내륙에 위치한 인구 100,000명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일요일 모임이 끝났습니다. 주제는 구세주의 속죄와 그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 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수하고 있는데 어떤 숙녀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선교부장 앞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던 자매와 내 앞에

서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았으나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노력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언어로든 전달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그 속에는 영을 일깨워
 주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마리 한센과 콜롬비아의 고아 소년,
 브라질의 젊은 숙녀,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이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느 것으로보다도
 그들을 더 훌륭하게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일환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착하고 품위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의로운 것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구원과 승영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찬송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내 눈에
 나그네 모습이 바뀌어지었네
 손에 난 못자국 보았을 때
 구세주 내 앞에 서 계셨네

그는 내 가련한 이름불러 말해
 주니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기념물이 되리니
 내게 한 일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 세상에
 계시는 여러분 한분 한분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사랑을
 전하고자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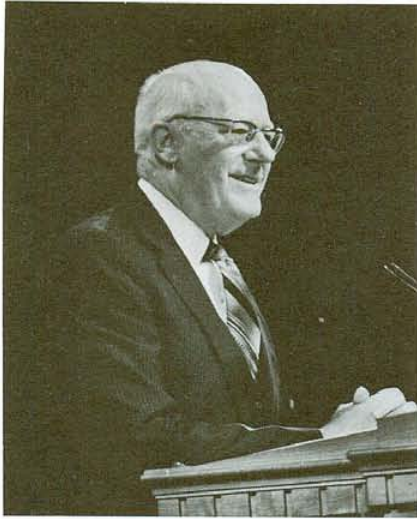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왼쪽)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 회원으로 환영하고 있는 정원회 회원들. 멀
 린 에이치 우스, 러셀 엠 벨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악수하고 있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기를 내걸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데는 성숙함,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편은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학생이었지만 그 이름이
출석부에서나 불리워질 정도일 뿐
그리 알려지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은 가난하였으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었습니다. 그녀는
“무리 중”에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녀의 이름이 다른 학생간의
대화에서 오가는 것은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방법으로 그녀를 웃음
거리로 만들 때였습니다. 그것은
정서가 불안정한 어린 사람들이
스스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언가 모자라는
듯하고 유행에 뒤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처럼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스운 것이
있으면 학생들은 그것을
“편이답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학교의 명예를
가장 빛내고 운동팀을 열심히 응원한
학생을 뽑는 전통이 있었었습니다. 그
학생을 상주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면,
기대했던 듯 그들은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미소지으며 통로를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운동팀을 사랑하고 매경기마다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윈도 경기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안락한 차로 즐거움에 들뜬 친구에
둘러싸여 왔습니다. 그러나 편은
십리나 되는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편처럼
그토록 열심히 응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장 열성적인 학생으로
편을 지명하고 싶습니다.”

편은 다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립
박수 갈채를 받으며 무대로
인도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편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감격스러운
날 친구들로부터 받은 찬사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그 해에 몇
경기에 그들 팀이 이기고 졌는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편을 그들의
친구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며
즐거워하던 따뜻한 감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랭카스터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예쁜 월계반원인 마리안 모튼슨이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이지는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전해 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특히 젊은이에게 있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기를 내걸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데는 성숙함,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하신 것은
노소를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그와 같은
보살핌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그들이 지닌 신앙,
이상, 도덕, 자제력 심지어는
주체성에까지 노골적으로 또는 간교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십대 청소년들은 “나” 중심의 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
내향성, 다른 사람에게 무감각함,
즉흥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의
묘사에 적합한 젊은이들도 있겠으나,
인생의 전쟁터에서 투쟁하고
실패하는가 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로 생각되는 것을
쉽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학,
예술, 사회적, 민주적 또는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높은 목표를 세워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재능을 지닌
수백만의 심대를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길을 자신있게 걷는
사람들의 팔을 잡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 과학자들이 일컫는
“적극적인 또래 집단 압력”이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미있는
봉사를 위해 아론 신권 정원회와
청녀반이 얼마나 뜻깊은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지닌 사람을 거부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에게 참된 관심을 보이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미있는 관계라는 말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황금율을 곧 생각나게 합니다.

“십대 청소년에게 그것은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 이외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제한된 동료 그룹 안에서 편안함 느낌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그는 그가 함께 하는 무리인 사도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팔을 벌려 그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넓혔습니다. 우리도 것처럼 이웃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속해 있는 무리로부터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팔을 벌려 친구를 많이 사귀면 됩니다.”

마리안 모튼슨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어린 소년으로 나는 세상이 판단하는 바 행복을 구하려 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으며 남다른 위치, 명성(특히 운동 선수로서) 그리고 부를 원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몹시 불행했습니다. 나는 행복이란 그림자처럼 쉽사리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발견한 것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후였습니다. 놀랍게도 낙담과 실망, 선교사 업무에 따르는 힘든 일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이 봉사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연약함 그리고 결함 등을 잊어 가면서 나는 베냐민왕이 그의 백성에게 전한



권고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 2:17)

바로 그런 까닭으로 선교사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 “지난 2년간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십시오. 문을 박차고 나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봉사에 비례하여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를 바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봉사의 예를 통해 주고 받은 쌍방이 얻게 된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1. 중앙 아이다호 동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최근 마을 전체가 벌이고 있는 “마음에 페인트 칠하기”라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64명의 청소년이 다섯 팀으로 나뉘어 각 팀이 어느 노인의 집을 일곱 시간 만에 칠했습니다.

2. 와드의 청소년을 염려한 바운티폴의 어느 감독은 아름다운 봉사의 참된 기쁨을 맛보도록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그들이 즐기던 것들을 제쳐 놓았습니다. 한 가지 활동은 아메리칸 포크 훈련 학교에 있는 정신 박약아를 위해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다 만들자 청년 회원들이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저녁 식사하는 것을 거들어 주기 위해 그 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학교를 떠날 때 그들의 머리와 옷에는 으깬 감자와 그레이비, 야채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그가 음식을 먹어 준 어느 어린이의 귀여움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결코 빌리를 잊지 못할거야.”

3. 최근 어느 편지자에게 온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십대의

꼴사나운 복장과 좋지 못한 행실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십대 청소년과 함께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기분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뉴욕시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템플 스퀘어에서 갈매기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네 명의 십대 청소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즉시 손님의 안전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그 중 한 소년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좋으시다면 이 장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손에는 아름다운, 가지가 긴 붉은 장미가 셀로판지에 잘 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장미를 드리려고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머니를 본 순간 이 꽃을 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나는 재빨리 그들의 이름을 묻고, 그들이 내게 보여 준 사려깊고 친절한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 네 명의 십대 소년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할 마음을 품었는지를 생각하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만큼 감사의 마음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아이린 이스테이플스, 메저렛 뉴스, 1985년 9월 22일)

4. 미켈은 그의 동생이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고 슬픔과 절망에 가득하여 베어 리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학교 종이 울리자 뿔 듯이 고마워했습니다. 책을 챙기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켈, 음악실로 함께 가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미켈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음악실에 들어서자 미켈은 합창단원 전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답게 곧바로 미켈에게 그녀의 동생을 위해 금식했으며, 그들이 금식을 마치기 위한 기도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라 그러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대는 어느 곳에 숨든 또는 계략에 의해서든 그 보상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전집 중 “윤리의 주권”, 뉴욕 윌리엄 에이치 와이즈사, 1919년, 1004페이지)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쁜 감정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 브렌트 클레트는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니는 단순히 수줍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하는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자 17세 소년인 그는 한번도 친한 친구를 사귀어 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줍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교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한번 쳐다보면 곧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의기소침하여 마치 얼굴을 숨기기도 하듯이 항상 발끝만 내려다봅니다. 그는 항상 교실 뒤에 앉았으며, 학습 활동에 전혀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니가 그토록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가 주일학교에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최근에 로니와 친구가 된 브랜든 크레이그라는 반원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짝이 있다면 이들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사교적이었습니다. 로니보다 머리 하나쯤 더 큰 그는 학교에서 하는 운동 방면에서 가장 인기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브랜든은 모든 일에 참여하여 매사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마디로 멋진 소년이었습니다.

“브랜든은 로니를 늘 옆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반원들은 로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은 그를 왕의 경호원처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짧은 미소와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나는 가끔 과연 브랜든과 다른 반원이 그 얼음덩이를 깨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반 회장인 브라이언이 느닷없이 로니에게 개회 기도를 시켰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로니는 천천히 그의 발을 쳐다보며 앞으로 걸어 나와 팔장을 끼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숙여져 있었습니다) 반은 얼어 붙은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저 애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승천할거야.’

“그러자 겨우 속삭임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주일학교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엾은 로니가 고통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는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저런. 앞에 나가 뭔가 도와 줘야겠군.”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반원 모두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로니에게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이 앞질러 그에게로 갔습니다. 나는 눈을 뜬 채 190센티미터의 브랜든이 로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얼굴을 그의 어깨에 대고는 간단하게 기도의 말을 속삭여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니는 말을 잇느라고 애를 썼지만 기도를 반복하여 마쳤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났을 때 로니는 계속 머리를 숙인 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브랜든 고맙다. 아멘.’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의 덩치 큰 친구를 바라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난 네가 좋다.’

“아직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던 브랜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니, 나도 네가 좋아. 그리고 재미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뉴 이라, 1983년 5월 18페이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화로운 실재의 삶, 전세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전생을 바치는 데 대한 비판론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를 경우도 있겠으나, 말일에 제자가 된다 함은 극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이나 극한 상황은 다만 복음의 확고한 단순성과 확신을 주는 진실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세찬 도전과 어느 정도의 고난은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핵심 교리가 된다 해도, 이 경륜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더 우세하게 될 핵심 교리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초기에 번역과 계시에 의해 많은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들이 아주 급격히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으뜸된 선전자”(니이 3:6)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을 때, 주인으로서 요셉은 손님을 맞고 환영하였으며, 모든 진리를 충분히 언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가서야 그들의 관계와 오래된 그들의 신임장을 성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 중에는 인류의 전세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니일 13:39,40 참조) 일찍이 요셉은 이 진리에 관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진리에 관계된 계시가 증가됨에 따라 요셉의 이해력도 증가되었습니다.

“간결하고 진귀한 것” 중의 하나가 오래 전에 “빠내”어 지거나 “떨어져 나” 갔습니다.(니일 13:34,40)

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깊이있게 말해 주지 못합니다.(렘1:5; 엡 1:4-5; 딤후 1:9 참조) 그 진리는 초기 사도들 이후에도 잠시 현존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울이 예견한 바와 같이 교회 회원들이 이 교리를 포함한 “바른 교훈을 좇지 아니”한 때가 곧 도래했습니다.(딤후 4:3 참조)

후에 여러 종교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전세에 관한 교리는 탐구에 의해서도 다시 논증될 수 없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 교리는 논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성”으로, 참으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논리의 남용이 아니라 논리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상의 것입니다.(찬송가 118장 참조) 그것은 오직 현대 계시에 의한 회복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하기까지 그것은 분명히 미국내에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필요한 이 중심되는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짓 교리를 타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니파이이서 3:12 참조)

“무에서”라는 견해를 예언자 요셉은 “내 판단으로는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요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류 에프 에हत과 린든 더블류 쿡 편찬, 프로보:브리검 영 대학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359페이지)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전생을 바치는 데 대하여 비판론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믿는 자들까지도 교리에 관한 지식이 빈곤하면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고 환경에 굴복하게 됩니다.(히브리서 12:3 참조)

전세에 실재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음악과 시와 문학으로 나타난 욕망을 치료해 줍니다. 풀 수 없는 의문을 이렇게 표시한 글도 있습니다.

무디지도, 잠잠하지도 않고, 태만하거나 안전하고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창조한다.

그러나 과감한 도전과, 전율하는 흥분과, 타는 듯한 기쁨 속에서 인간은 사냥꾼이 된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희망이든 신비든 꿈이든.

어떤 불멸의 욕구에서, 어떤 미지의 직관에서

그러한 욕망은 밀려 오는가?

어떤 사실의 부싷돌이, 어떤 예술의 또는 먼 지평선의 타오르는 빛이

그러한 불꽃을 튀게 하는가?

(낸시 뉴홀, 토마스 에프 호빈, 에메 레스트, 더 웨스트 리지, 샌프란시스코:시에라 클럽, 1965년, 28,30페이지)

다음과 같은 명상의 글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치 전세에서 제약된 의무의 짐을 지고 가는 듯하다. 그 생활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세계, 친절과 망설임과 회생에

기초를 둔 저 세상에 돌아가기 앞서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세상에 속하는 것같이 보인다.”(마르셀 푸르스트, 가브리엘 마르셀, 호모 비에터, 뉴욕: 하퍼 앤드 로우 1963, 8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다만 하나의 잠이요 망각.

영광의 구름자락 길게 끌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신으로부터 오느니라.
(윌리엄 워즈 워드, 불멸의 송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요한 교리의 회복은 요셉 스미스가 1829년 말이나 1830년 초에 엘마서의 몇 구절을 번역하므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엘마서 13:3-5 참조)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올슨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교리(전세)는 물몬경에서 약간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 없었다면 나는 물몬경에서 그것을 식별해 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설교집 15:249)

1830년 6월, 영감을 받아 창세기를 개정하던 중 “으뜸된 선견자”(니피이 이서 3:6)는 현재 모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의 순간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 중에서 우리의 옛되고 연약한 처지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셨으며, 또한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것은 귀중한 한 조각입니다.”(교회사 1:98)

그 “귀중한 한 조각”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요셉의 지식을 넓혀 준 모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그 주민의 이야기만을 네게 들려주노라. 보라,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없어진 세계가 많이 있고.”(모세서 1:35)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것처럼 우주의 무한함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 줍니다.

곧 다른 계시들이 주어졌습니다. 1833년 5월에 현재 93편으로 알려진 계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영인 까닭이니라. 원소는 영원하리라. 영과 원소는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충분한 기쁨을 누리느니라.”(교성 93:29,33)

예언자가 이 귀중한 교리를 일반에게 알리기 전, 그것을 무르익게 하고 준비하기 위해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기록은 말해 줍니다. 1839년, 리버티 감옥에서 명상에 잠겼던 요셉은 편지로 “창세 이전에 부름받은” 훌륭한 교회 회원에게 더욱 훌륭한 회원이 되도록 권고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개인 기록, 던 시 제시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397페이지)

요셉은 또한 “창세 이전에 ... 영원하신 하나님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성 121:32) 옥에 갇힌 요셉은 자신의 명수가 알려져 있음을 알았고, 그의 생명은 “하루라도 짧게 헤아림을 받을 수”(교성 122:9)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힘찬 교리에 관한 그의 말씀이 처음 기록으로 발표된 것은 미주리에서 요셉이 그의 영성을 증가시키면서 시간을 보냈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직후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말씀, 9페이지 참조) 그 뒤 1844년 봄, 킹 폴렛의 장례식에서 행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1842년에 아브라함서에 기록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3:22-23)

아브라함서에는 93장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완전한 뜻은 여러분과 내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같이 두 영이 있을진대 그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총명하다. 그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총명할지라도 두 영은 시작이 없어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끝도 없고 이후에도 존재하리니 이도 영원함이나니라.”(아브라함서 3:18)

이 찬란한 회복된 진리와 더불어, 이 귀중한 교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요 9:2; 롬 8:29; 엡 1:4; 유 1:6; 욥 38:7 참조)

실제로 가장 큰 결림들이 계시에 의해 이와 같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일에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니일 14:1 참조)

모세 시대에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리를 “내리는 비”처럼 주셨습니다.(신 32:2) 그러나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삼상 3:1) 요셉 스미스 시대에는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시(교성 121:33), 인간의 전세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위시하여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니일 13:39,40 참조)

그 당시 요셉 스미스나 다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몇 개의 고대 기록이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외경에 분별해 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성령의 일깨움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로써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91:5)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그 하마디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외경에는 예수께서 고통받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이전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너희 이후에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나 너희는 너희의 일생이 다만 하루요 너희의 고통이 다만 한 시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야고보 외경,” 영국 내그 하마디 도서관 보관, 제임스 엠 로빈슨 편집, 샌프란시스코: 하퍼 앤드 로우사, 1978년 31페이지)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나의 아들이,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교성 121:7)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란 영원에 비교하면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하루 동안 데려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하루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고 있습니다.(벧전 2:8)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딤후 4:2) 한테 어우러진다면, 인간의 곤경에 대해 불명하는 자들이 이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저들을 새롭게 하므로써 “교훈을 받”게 되어(사 29:24; 니이 27:35)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사탄은 인간의 시야를 위축시키기 위하여 이 교리를 없애거나 믿지 않게 하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차원적 견해밖에 갖지 못한 일차원적인 사람은 순간적인 일에 치우치게 되어 분명히 세상사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말일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교리나 그들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복음의 진리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관용을 바라고, 이 교리가 여러 모로 연구되고, 제삼자의 비평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유를 인정합니다.

전세에 관한 교리는 수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선택해야 할 일, 잡다하게 해야 할 어려운 과제, 경험해야 할 역경, 잘 활용해야 할 시간, 항상 개발해 나가야 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 이전에” 택함받았기 때문에 “지상 생활에서”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임되었든지 아니든지 부름받고 준비된 그들은 역시 “택함받고 충실한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계 17:14; 교성 121:34-36 참조)

사실 첫째 지체에서는 다만 엄격함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해도, 둘째 지체는 더 많은 의무가 따르며 누구도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가중되는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성도에게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모 3:19; 벧전 4:19 참조) 따라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교육으로 이어진 시간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교리는 논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대한 큰 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되심과 인간이 형제임을 강조해 줄 따름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판단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만이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 현재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야



4:13; 교성 93:24 참조)

그러므로 이 둘째 지체로 들어설 것에 협의한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마취를 하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도중, 수술을 더 계속해야 할 경우에 환자를 마취에서 깨워 그에게 다시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어떤 상황 아래서 어떤 경험을 얻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슨 하이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망각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설교집 7:315) 그러나 때로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불사불멸의 영혼의 추억을 일깨워 주는 빛을 받게 되며, 그 빛은 전세의 십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복음 교리, 12페이지)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에 느꼈던 친밀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거울에서 비치는 불빛은 우리를 “영원한

광채”와 부활한 사람들로 가득 찬 저 멀리 떨어진 관람석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광채와 혼합될 수 없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페이지는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속삭여 준다.” (아침 식탁에서의 시 에스 루이스와 기타 회상, 제임스 티 코모 편집, 뉴욕, 콜리어 출판사, 1985년, 34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전의 수백 페이지는 속삭이고 있으며, 귀 있는 모든 자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나는 다시 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주님의 양은 그의 음성과 그의 교리를 압니다. 한편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영위해 온 생활은 이 익명의 시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계속됩니다.

나의 삶은 주님과 나 사이에
짜여지는 것.
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는 진실하게 일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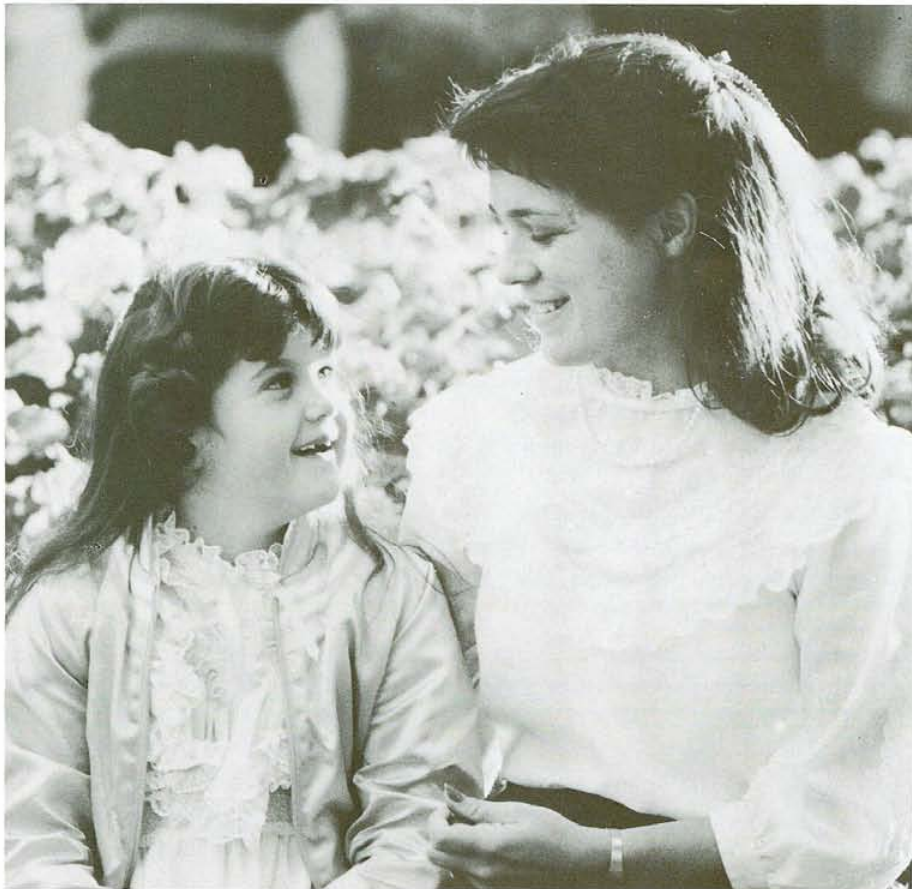
때로 그는 슬픔을 엮고
나는 어리석은 자만으로
그가 위쪽을 보신다는 것을 잊고
아래쪽만 본다.

배들이 조용해지고
북이 왕래를 멈출 때
하나님은 자신 천을 보이시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리라.

검은 색실도
적조공의 능숙한 손에서
금은 색의 실과 같이
그가 계획한 모양에 필요한 것이다.

(시집, 알 브라이언트 편찬, 그랜드 래피즈, : 존벨반 출판사, 1968년 664페이지)

우리 모두가 것처럼 믿고 것처럼 신뢰하며, 것처럼 복종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좇은 문이시며 바늘귀이신(시 에스 루이스, 아침 식탁에서, 25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성도의 빛/1986년 1월호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속죄의 교훈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관리 감독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견디어 내야 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총관리 직원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에게서는 따라야 할 모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장남의 모범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잠시 동안 속죄의 희생과 감독의 관점에서 그것이 나의 생애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선 물문경의 이더서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야렛의 동생에 관한 기사에서 매우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의 문제만을 되풀이하는데, 야렛 동생의 경우도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는 그의 백성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빛과 공기가 없었고, 추진해 나가거나 항해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오 주님시여, 저희로 이 대해를 암흑 중에 건너게 하시겠나이까?”(이더 2:22)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찌이냐?”(이더 2:23)

이 구절보다 몇 구절 앞에서 야렛의 동생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세 시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렛의 동생은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러 멀리 나갔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아름다운 수정돌 16개를 갖고 쉐렘 산 꼭대기에 올라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서 손으로 이 돌들을 만져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주님께서 이 돌들을 만지셨을 때 야렛의 동생은 주님의 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렛의 동생이 땅에 쓰러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라, 어찌 베가 쓰러지느냐?”(이더 3:7)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야렛의 동생의 말에서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8절)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베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16절)

주님은 그가 손가락 이외에 더 보았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내가 이제 손가락 이외에 무엇을 더 보았느냐?”(9절) 야렛의 동생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오이다, 주여 당신을 내게 보이시옵소서.”(9-10절)

주께서 야렛의 동생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를 물어 보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심이니이다.”(12절)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아기로 실제로 태어나시기 2500년 전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 백성들 앞에 오시며,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써 온 인류가 삶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갯세마베 동산에서의 속죄의 희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요한 복음 17장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창세 전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요 17:4-5) 계속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갯세마베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피방울까지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제자들을 보러 가셨으나 그들이 자고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들 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간증한다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음 주님은 겹세마네 동산에 돌아가 그가 견뎌야 하는 이 경험에서 자신을 도와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있는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눅 22 : 43)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스미스까지도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왜 그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성 122 : 7) 우리가 시련에 대처해 나가는 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또한 감독으로서 내가 속죄의 희생을 통해 배운 위대한 교훈은,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가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우리를 대항해서 하는 모든 비난에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속죄의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고, 그의 어머니를 염려하시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셨음을 알고 우리는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대회에서 들은 위대한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의 역경과 시련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돌보는 데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버내쿨의 연단에 있는 총판리 역원들의 모습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 : 46) 그 구절에는 계속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 23 : 46)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지상에는 큰 슬픔이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죽음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영의 세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자는 몸은 완전한 형태로 부활할 것이며, 영과 육은 다시 결합하여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며 죽음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때를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라는 조건으로 아담의 타락과 개인적인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원리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교성 138 : 16-19)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슬픔과 낙담이 우리 가슴을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들과 영원한 진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쁨을 앞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했으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 이 생이거나 다가오는 생에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매우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 : 46)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때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 의지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군대를 불러 그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속죄의 희생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자비를 가져 오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부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러한 원리를 보다 잘 나타내 주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부유한 어떤 아버지가 내가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딸이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나는 그 딸과 그녀의 자녀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필수품과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좀더 검소하게 생활하고, 스스로 생활하고, 좀더 자신에 만족하고, 그들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도 “왜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하시려 합니까?”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각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강화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상속을 받게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계속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들을 버려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위대한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17)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며, 다시 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다시 물몬경 니파이 삼서로 돌아와서, 나는 최근에 지진과 땅이 갈라짐으로 멕시코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큰 황폐함이 있을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성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니파이 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니삼 11:7) 그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며, 그는 그들 가운데 하강하셨습니다. 가장 의미있는 사건은, 그 성전에 모인 이천 명 이상되는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손을 구세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의 상처를 만져 봄으로써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땅에서 수세기 동안 평화를 누렸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속죄의 희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속죄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 나는 파일로트로서 교관에 이끌려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에 2도 미만씩 돌림으로써 교관은 비행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중력을 일정하게 했으므로 나는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나에게 조종하게 했을 때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장치는 뒤집혀 있는 착륙 기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불평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그의 순종 및 기꺼이 봉사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려 하심이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의 메시지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에 1도 미만으로도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뒤집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으로부터 참으로 위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년으로 솔트레이크를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 즉 누군가가 자신의 조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 어깨에 얹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네 이름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준 사람에게 매우 조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영적인 조종기를 갖고 있음으로 결코 영적인 불평형을 겪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 생활에서 좁고 바른 길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의 순종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참으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끝까지 견디어 우리 창조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내 종아”라는 영접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동반자인 아내가 보여 주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전에 어떤 조직의 회장으로 부터 “가장 큰 재산은 여러분의 아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즉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바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임을 간증드립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그분은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행위를 보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지 피 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는 항상 반대자가 따르고, 역경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에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참된 복음은 죄의 고통에 시달림받는 자들에 의해 항상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빛이고 진리이며 예지입니다. 복음에 대항하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생활 양식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 이후로 세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 선포되든지간에 항상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그의 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러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열려 왔습니다. 그때마다 시련을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위협받을 때도 있었으며, 지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언자와 사도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세상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퍼붓는 신랄한 비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박해를 받고, 수도 없이 반대에 부딪혔던 선배들이 영광스럽게 뒤에 서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위안과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단지 충만하고 순수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룩하고 순수한 원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시련을 받고 조롱당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부여된 시련은 그들이 수행하던 사업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기 보다는 그것을 옹호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눅 6:26)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는 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일성도로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모든 사람으로 인해 칭찬받고 영예롭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겸손함과 헌신 그리고 결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언자의 경고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욕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나이 28:21)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금이 바로 겸손함과 결심과 헌신을 새로이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는 태어난 날부터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전의 그 누구와도 다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는 그를 사랑한 것으로 생각되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채찍질당하고, 공격을 받고, 어린 양과 같이 이끌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었던 예수님은 그의 등에 상처를 낸 참혹한 죽음의 도구인 거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중에 달리셨습니다. 서기관, 사두개인 및 바리새인, 그 누구도 주님을 팔을 벌려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학자나 박사나 귀족도 그를 환호하며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 손을 벌려 환영하며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사자들이 그에게 준 가르침을 통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며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들 사이엔 인기가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알아주지도 않았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는 날까지 복음대로 생활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는 피로써 그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주님의 때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외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가르침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먹혀 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가르침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선입견에 상충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시대의 외침은 구세주의 시대와 참으로 흡사합니다. “팔마이라에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요셉 스미스에게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도 비슷한 외침을 듣습니다. “물론들에게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훌륭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 대한 거짓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반대와 시험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이 묶일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 선택된 성도들에게 남겨진 유산의 하나입니다. 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 항상 반대자가 따르고, 역경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에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요 15:18-20)

우리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간증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용기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하나님 아들의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보다 위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처한다면 불평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난한 시련의 좁은 길을 걸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험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신앙과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만을 원합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부드러움과 기도와 의로움으로 대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퍼져 나아가 조만간 지상의 모든 정직한 영혼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륙에서 대륙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섬에서 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문이 열린 곳은 어디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족, 아내 그리고 자녀를 떠났으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대나 지폐도 없이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갖 수모와 조롱,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스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온 인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그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업은 결코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구속을 받고, 사탄의 권세가 정복당하고, 사악함이 지상에서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구속받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사악하고
변덕스러워도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가슴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누군가를 억압하
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신권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어떤
면에서든지 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는 크고”, “너는 작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까이 하기 쉽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에 돌립니다.

우리의 이웃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교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중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훌륭한 정신을 보여 줍시다.
우리 중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행하고 그들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교회
회원이거나 교회 밖의 사람을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는
사람의 신권 또는 권위는
아멘입니다. (교성 121 : 37 참조)

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웃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들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우리가 생명과
죽음, 현세와 영원에 관계되는 이
복음과 이 간증과 이 사업을 기꺼이
지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가족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이 교회의
대관장단과 주님의 사도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신앙, 봉사과 소망으로
지지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언젠가는 교회 역사상
가장 강했던 보좌 중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로 그를
지지합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오늘날 막중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세상적인
힘도 이 사업을 멸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한다 해도 이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엘로힘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원리는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힘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개개인이나 모든 왕자, 황제, 왕,
대통령, 정치가 및 통치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창조주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역경은
시온을 성결케 해줍니다. 반대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에서 더욱
강해지고 신앙에서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나는 이 사업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온 지상에
힘과 권세로 계속 퍼져나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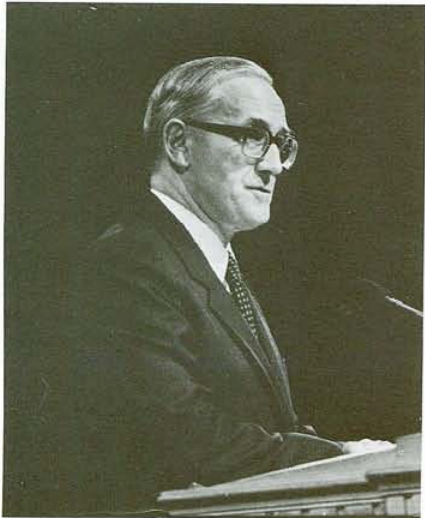
주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지파의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무엇이 다릅니까?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철십일 제일 정원회

주님의 교회의 몇 가지 특징에 관한 열 가지 질문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5) 그런데 지금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천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교파가 있으니 우리는 그간에 얼마나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처음 24년 동안 일반 기독교계의 한 교회의 열성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답을 풀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품고 있던 터라, 영국에 있던 나의 집 문을 쾅 열어 물몬 선교사들이 두드렸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많은 질문들은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구세주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교회의 회원들이 우리 선교사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말일성도 회원들에게

물어 볼 수 있는 열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만나서 질문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의 인생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질문 1: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나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와중에서 심대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자주 마음에 품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련과 위험이 많은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인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님은 고대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나는 계시가 이미 주어져 경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시가 중단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전이 되고 5년도 채 안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러한 것과 다른 많은 훌륭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영혼은 고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 3:21)인 이 말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으로 말일의 예언자를 통해서 제시된 또 다른 경전인 물몬경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질문 2: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그 아름다운 중재의 기도에서 몸소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으며, 알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가르침과 참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밝혀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그와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신을 밝혀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 그에 관해 묘사해 보게 하십시오. 그는 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랑스럽고 친절할 얼굴에 흰 옷을 입은 개인적인 실재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보낸 그의 서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경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경전에 의거하지 않은 가르침이나 불완전한 진리로 그릇되게 인도되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관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몸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기둥 가운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질문 3: 당신의 교회는 가정 생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힘과 도덕성은 각 가정에 달려 있으며, 기독교라고 지칭되는 모든 교회는 가정 생활을 귀중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그리고 가치있고 약속된 상속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가르쳐 준 선교사들이 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혀 준 것에 영원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녀를 모아 함께 가족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권장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말일성도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가정의 밤을 소개받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함께 모여 복음 원리의 적용에 관해 토론하고, 즐겁고 건전한 활동을 하며, 가족의 유대 안에서 재능을 발전시키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닳이요 요새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오랫동안 우리가 해온 가정의 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지만 좀더 높이 평가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 놓을 때까지”라고 성약하며 결혼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말일성도 성전에서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침례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디다만 침례는 아담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범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은 책임을 질 나이가 될 때까지는 무죄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나이는 되었으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솔트레이크를 방문하러 온 어떤 훌륭한 목사가 생각납니다. 그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당신네의 교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침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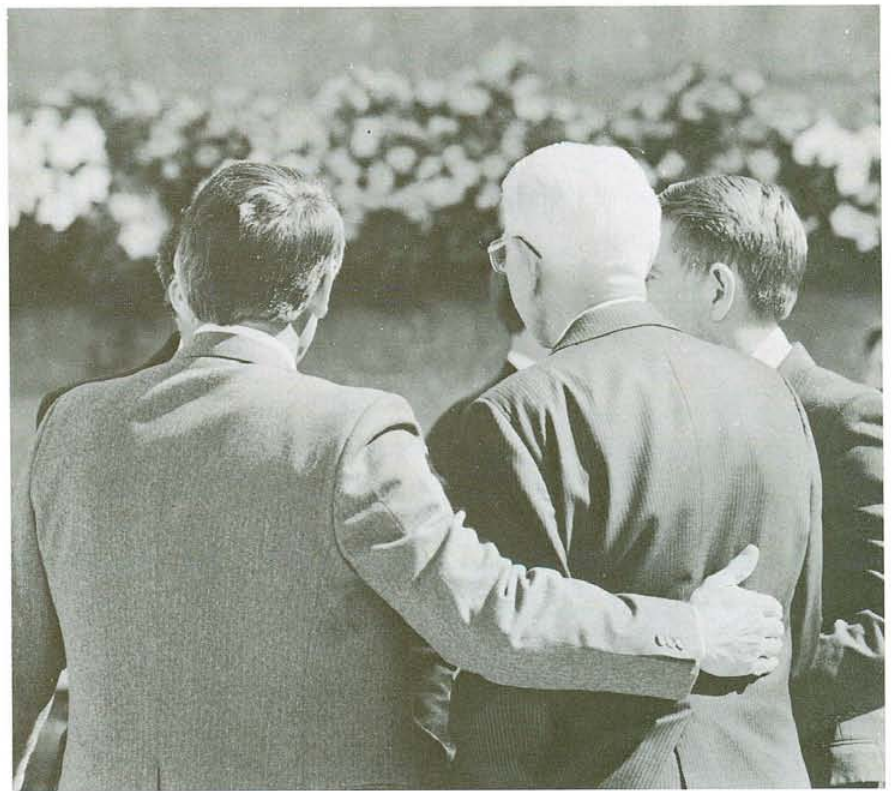
“물론이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믿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해 자주의문을 품었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전 15:29)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목사는 나를 쳐다보더니 다음과 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교리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가 교리를 깨닫게 된 것이 기뻐지만 그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전에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 5: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그는 우리에게 알콜, 담배 및 기타 마약의 유해성에 관해 경고해 주시지 않는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화학적인 것들에 의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1833년에 말일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와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건강의 율법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와 질병과 불행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마약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6: 당신의 교회는 지혜의 말씀 이외에 당신을 어떻게 돌보며, 당신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니까? 나는 오랫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봉급을 받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되는 모든 합당한 교회의 형제들은 신권의 직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소녀와 여성들은 지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할 많은 임무를 받습니다. 각 가정은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 주는 신권 가정 복음 교사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인 상호부조회의 방문 교사의 방문을 매달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종류의 신체적, 영적, 사회적 활동을 즐기며, 가정 생산 및 비축을 포함한 개인과 가족 준비와 같은 주제에 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실직 또는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복적이 되고 회복되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한 도움은 일반 회원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매달 두 끼를 금식하고 그 돈을 현금하여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가 선택하고 성임한 성직자들을 통해 우리를 보살피시고, 권고하시며, 경고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영감받은 프로그램이 오늘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7: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3세계의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 교회는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합니까? 나도 젊은 청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선교사라고 말할 때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았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답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 28:19) 주님께서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합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충만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리와 목적과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진리를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더 보태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만 명의 젊은이들과 천 명이 넘는 노인 부부들이 자발적으로 18개월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8: 인생의 목적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기본적인 형식에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있는 생을 살기 위하여 그 질문의 답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좀더 발전하기 위하여 지상의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받음으로써 지상 생활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며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늘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질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지상 생활의 이 기간이 없다면 우리는 불사불멸도 영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9: 당신이 한 답변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간증으로 아는데,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 곧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나는 이것을 침례받은 후에 받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했나요? 그들이 무엇을 사 주었기에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이 오늘날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즉 성신을 보내 주셔서 인도하고 축복하며, 위안을 주며, 진리를 증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약속된 대로 이 지상의 교회에 부여된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물에서 나오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도록 성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해 주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 줍니다.

질문 10: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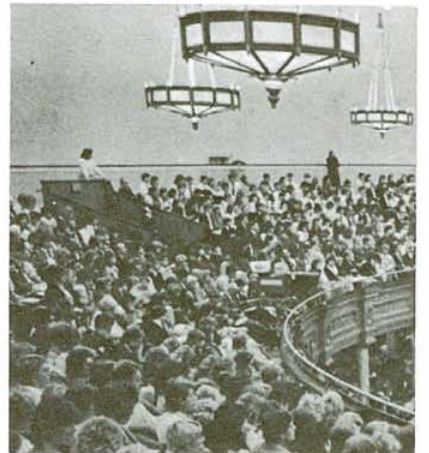
참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문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힘이 있고 진실되며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4-5)

그렇습니다. 의문을 품고 계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진리에 더 보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인간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거룩한 성전 의식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영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한 율법과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선교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목적을 밝혀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는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은 살아 있는 예언자 즉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의 모험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선교사는 영의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항해를 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녹이고, 평화를 가져 오며, 마음을 열어 주는 영적인 것을 접하여 향상되게 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모험 정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의 모험을 더 좋아합니다. 모험이라는 말이 지닌 긍정적인 의미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웹스터가 정의한 모험을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특이한 경험”, 그리고 모험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미지의 것에 맞서는 것”이라 합니다. (웹스터, 제9판 신 대학 사전)

나는 내 생애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소위 모험이라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색적인 사냥, 즉 표범이나 악어 사냥, 식인 고기가 우글대는 강에서 수상 스키를 한다든가, 위험이 가득한 아마존의 정글을 탐험하는 일, 종교적인 역사가 실린 금판을 찾는 일, 한 개의 엔진이 달린 자가용 비행기로 대륙을 종횡으로 비행하는 일, 심지어는 미스 아메리카의 해인 금년 또한 신데렐라의 모험같은 일입니다.

현대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떠도는 이 작은 섬에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모험이요

죽음이 부를 때 그곳을 떠나는 것 또한 모험인 것이다. 학교에 가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결혼, 자녀 양육, 삶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의 빠른 변화 속을 헤쳐 나가는 일 모두가 모험인 것이다.”(격언집, 로이 에머슨 웨스트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203-4페이지)

나는 경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수평선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하늘의 일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여러 국민간의 갈등……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교성 88 : 79)을 연구하게 하며, 마음의 모험을 하도록 용기를 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모험적인 마음, 또는 모험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성 88 : 80)

내 생애에서 즐긴 많은 모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모험은 영혼을 뒤흔드는 선교사의 모험이었습니다.

나는 가정에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선교사로 나가실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두려움을 잊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께서 젊은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을 다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이다호주에서 어느 대제사들의 두려움을 덜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신 부부께서는 젊은 선교사들처럼 성구를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토론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처럼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한 가운데 있던 어느 형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언제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생활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조와 젤라 웬델 부부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선교 사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선교 지역에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집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만 알았었지. 그러나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한다는구나. 그런데 나는 무릎이 몹시 아파 밖에 나가 전도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다.” 3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새로 이사온 가족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바로 나의 부모였습니다.

왈터와 어네스틴 율서 부부는 페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에 감독이었던 왈서 형제는 곧 외딴 산지에 있는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받은 한정된 스페인어로 그는 보좌를 부르고, 모임을 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활동시키고 인수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가운데 그는 영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왈서 장로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은 한정되었으나, 필요할 때면 대화에 필요한 충분한 스페인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은사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모험과 더불어 어려움과 희생도 따랐으나, 왈서 부부는 페루 사람들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큰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겪는 영적인 모험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혼이신 21세부터 69세까지의 건강한 자매님들은 선교사로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자원하여 봉사하라는 영의 격려를 받는다면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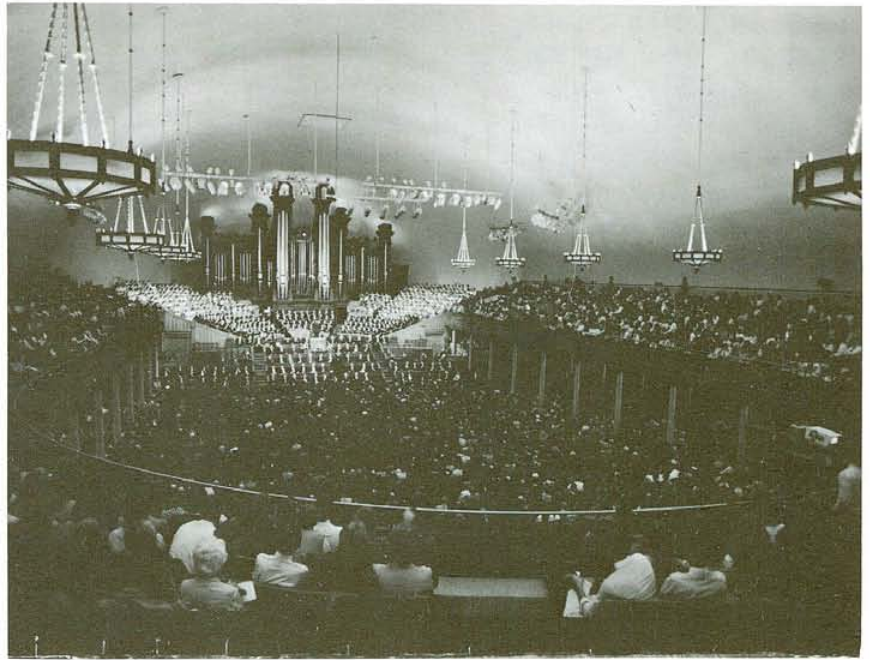
어느 두 자매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장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맞아들였으며, 선교사들은 집에 들어가 곧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모로나이 천사, 금판, 신권의 회복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시간이 약 45분 가량 지난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와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음 주요?”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문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열쇠를 그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매들은 그곳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날 저녁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열 아홉 살부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열 여덟 살부터) 스물 여섯살까지의 건강하고 합당한 미혼 형제 여러분, 최근 예언자들로부터 선교 사업의 영적인 모험은 신권 책임의 우선 순위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결혼, 교육, 직업, 학위, 운동, 자동차나 여자 친구 이전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그 대답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 형제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김블 대관장은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십일조를 내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성전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대표 세미나, 1974년 4월 4일)

24개월 동안 여러분은 24년에 해당하는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겸손해지고, 더욱 순종적이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우리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됨을 볼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두 선교사가 하이델베르그와 소르본느에서 학위를 받은 한 교수를 만나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장로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의 정원과 마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는 준비일을 이용하여 그의 집에 있는 잔디도 깎고, 울타리의 가지도 치고, 꽃밭에 잡초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선교사들이 한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병원으로 불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일을 놔 두고 나를 위해 일해 준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토론에 열중하였으며, 눈에 띄도록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처음 기도를 하였으며,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선교사는 이제 새로 변화된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선임 동반자는 이유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부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늘 이렇게 하십니다. 부인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선교사를 만났을 때 이혼을 하려 할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가 집에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집에 들렀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가 부인의 손을 잡았을 때 병고침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상처입은 영혼과 오해를 몰아냈으며, 그들은 서로 용서했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교회에 가지 않겠지만 가족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언제든지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늘 문가에 자리

하나를 비워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는 가족이 이미 교회로 간 뒤에 자신도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가족이 선교사와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그 옆에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빈 자리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예배당으로 걸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선교사들은 머리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그 이전에는 내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행복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었지.”

어느 새로운 선임 동반자는 예절 바르고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여변호사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빛기둥을 본 소년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녀는 “나는 무신론자예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는 그 뜻을 잘 몰라 다시 같은 질문을 하면 그녀는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당신들은 내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다고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장로는 전에 하변도 무신론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 그녀는 들을 것이다. 다만 그녀를 위해 질문에 대답만 하라.” 그래서 선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토론을 계속하면서 직접 질문을 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고는 그녀 대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그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해 달라고 용기있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다시는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얕은 장막의 체험” 또는 “액화 경험”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영적이고 기적적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선교사는 영의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항해를 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녹이고, 평화를 가져오며, 마음을 열어 주는 영적인 것을 접하여 향상되게 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것들을 “모험”-영적인 모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야고보서에서 읽은 것과 같은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 성구,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 주시며 응답해 주시므로 가부간의 응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도,
 ○영혼을 하늘로 날아 오르게 하는 시적인 의미와 함축된 영성이 담긴 찬송가,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헌신적인 봉사의 행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겠다는 성찬의 성약이 영혼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주어 그리스도의 속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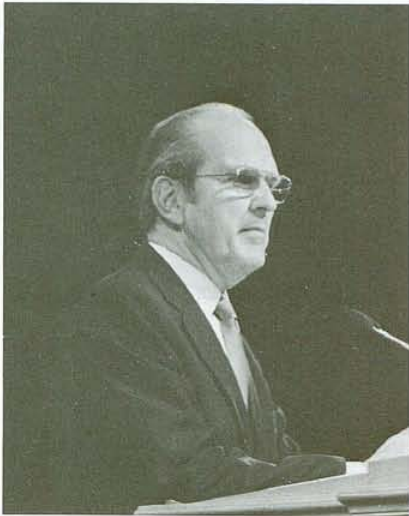
참으로 개인적이고 구원의 경험이며 거듭나게 됨,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읽은 불문경,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선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더욱 선하게 되며, 위대한 사람이 더욱 위대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등입니다.
 주님 손에서 쓰이는 도구가 되십시오. 하늘에 보화를 쌓으십시오.
 선교사로서 영의 모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영화롭게 되신, 승영하신 그분은 실제로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의 대변인은 살아 계신 예언자며,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참됩니다. 증인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극기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인생의 시기에서 육신이 아무런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육체의 욕망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품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극기의 추구에 관해 말씀드리고 보고자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하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과 그 육신에 거하는 자신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조하다”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여 “육신을 넘어 선 정신”이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기입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에는 여러분의 작은 육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소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철학이라는 것에 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

보았자 여러분의 조급한 그 욕구를 미룰 수 없었고, 그것도 당장 먹어야 했습니다.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작은 육신 안에 거하는 정신의 잠재력에서 처음의 미소를, 어떤 말이나 눈짓이라도 초조하게 기나칩니다. 어린 아기의 운명이 어찌될까를 궁급해 하면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기를 보호하지 않은 어머니가 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사랑스레 잠자는 아가야

너는 무엇이 될거나

아가야, 온 세상이 너를 바라보며 너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무엇이 될거나

하늘 아래 마굿간에 누워 있는 아가야

너는 무슨 말을 할거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가야

어느 날 너는 세상을 구할거나 (나탈리 슬리스, “아가야, 너는 무엇이 될거나?” 뉴욕: 카탈 피셔 출판사)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들이 음식, 옷, 잠자리와 같은 자녀들의 물질적인 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는 여러분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겨……성도가 되며,” (모 3:19)

그것은 극기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교성 88:15)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육체는 여러분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므로 경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

여러분의 육신이 훌륭하지만 영이 거하는 거처로서의 육신의 주된 목적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영은……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끝도 없고……영원함이니라.” (아브 3:18)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태어날 때 육신을 받아들여 시련과 시험의 기간인 이 필멸의 세상에서 사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각기의 시험은 육신이 그 안에 거하는 영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망각의 장막이 영 위에 드리워졌으나 영은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경전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마 12:36) 예언자들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명백히 기억”(앨 11:43)하고 “모두 기억”(앨 5:18)하리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다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

여러분이 극기를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하나입니다. (출 20:8; 신 5:15 참조) 우리는 안식일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교성 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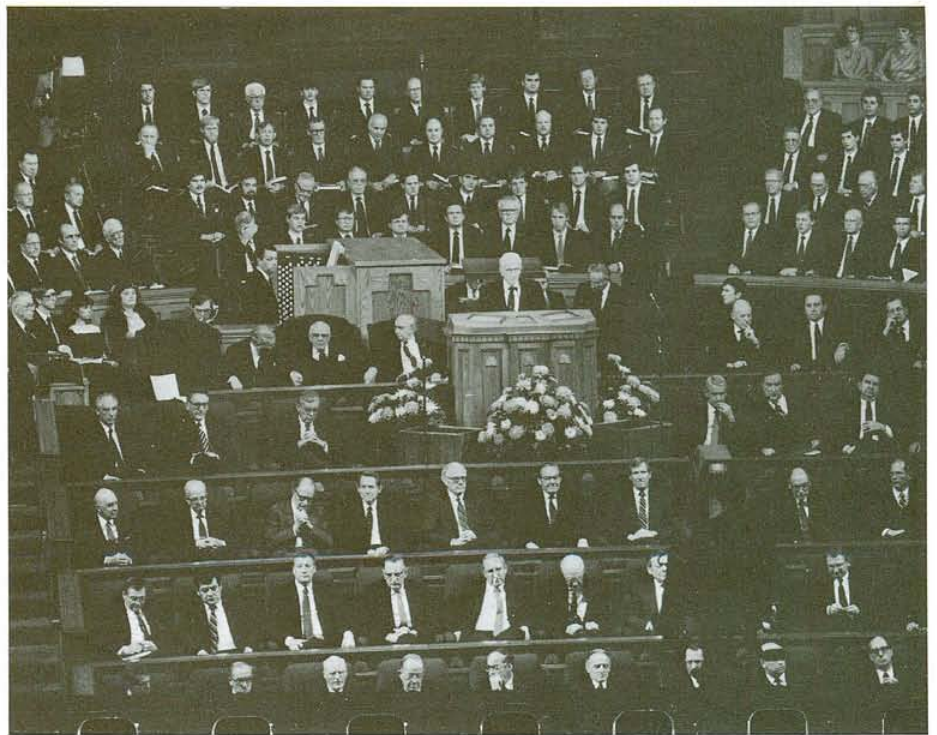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 : 13; 겔 20 : 20 참조)

극기의 또 한 단계는 금식의 법을 지킬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기금으로 바침으로써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배고픔과 갈증의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영이 식욕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나는 위생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나쁜 제 3세계의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회장은 경험이 많은 여행가로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물이 오염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코올 음료로 양치질을 하라는 충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으며 다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실행하도록 배운 것을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첫날에는 금식하였으며, 이후에는 먹고 마시는 간단한 음식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우리 그룹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금식은 식욕에 대한 자제심을 강화시켜 주며, 후에는 억제되지 않은 갈망과 괴로운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극기의 또 다른 단계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지혜의 말씀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교성 89 : 3) 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교성 89 : 4)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보다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해로운 물질이나 음탕한 이야기같은 선동적인 유혹으로 모의를 피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대한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게 됩니다.

중독이 되고 습관이 있는 어떤 것에 굴복하여 지혜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영은 육체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영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상반됩니다. 또한 그렇게 탐닉해 가는 과정에서 인생은 보나 짧아지고, 회개를 통해 영이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 들게 됩니다.

구매 기간에는 또 다른 유혹이 따릅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분은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를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제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악마는 육체의 유혹의 힘을 예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엘마는 그의 아들과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었습니다. “걱정을 다스려……주의하라.”(엘 38 : 12)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출산을 기원할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후손인 자녀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능력은

창조주의 순결의 율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언제나 순결은 썩썩한 남성을 지켜 주는 힘이며, 아름다운 여성의 최고의 왕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애와 결혼에 있어서 순결의 미덕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육정의 약점을 따라다니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순진 무구한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마음속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아래 시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을 육정을 지배하려 하는 그의 성품의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면 나는 무엇을 이긴 셈인가?
꿈이며, 호홉이며, 덧없는 희회의 물거품이며!
누가 일주일의 눈물을 팔아 한 순간의 웃음을 사며 누가 영원을 팔아 장난감을 사겠는가?
누가 한 송이의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망치려 하겠는가?
("루크레체," 211-15행)

예언자들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

되풀이하여 경고해 왔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범법함이 참으로 무서운 일임을 또한 기억하라. 마음이 육체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 기억하라.”(니이 9:39; 롬 8:6; 엘 36:4; 교성 29:35, 67:10 참조)

내 말을 잘못 알아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육신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매일 돌보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신체 극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나는 조셉 앤더슨 장로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96세입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육체를 지배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규칙적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육신의 장수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무병 장수를 위한 주님의 처방이라고 한 그 방법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실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33-34)

앤더슨 장로의 운동 프로그램은 바울의 말씀과도 일치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건강하고 훌륭한 앤더슨 장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는 이 성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인생의 생산적인 활동 기간 동안 가정에서나 들뜬에서, 혹은 공장에서나 작업대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극기심을 발전시킴으로써 명성을 얻고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십일조를 충실하게 바치는 것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정적과 인색해지려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줍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용기있는 책임이야말로 소중한 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을 강화시켜 줄 음악을 택하십시오. 말을 자제하여 불경한 말과 음탕한 말을 삼가하십시오.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패역한 것이 없나니.”(잠 8:7-8)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슬픔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큰 시련이 일찍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나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내 부친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부모님은 6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친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를 묻자, 부친은 다만 “나는 혼자 지냅니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배우자는 곁에 없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도우며 매우 바쁘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는 슬픔을 봉사로 대신했고, 자기 연민의 감정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메웠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한한 모범을 따르면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매우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어 지상의 물에 잠겼습니다. 그분은 또한 봉사와 고통 속에서 모든 것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교성 122:8) 그리하여 모든 것보다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승리하시고 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진대 너희가 살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니삼 15:9) 경건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으라는 가르침을 최소한 스물 여섯 번 이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청결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도록 합당하게 준비된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세주를 닮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우리의 가장 높은 희망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충만한 데까지 이르 [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 (엡 4:13-14)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까워진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를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이 가르치신 대로 심판의 날에 “부활한 육신과 영원한 영으로 이루어진 영혼은 위대한 심판대 앞에 와서 영생을 위한 최종 임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2년, 46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시기에서 육신이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제심을 키운다면 육체의 욕망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말했습니다.

큰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그리스도는 우리의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엡 38:9; 교성 11:28 참조)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과 같이 될 때 우리는 극기를 키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은 날씨의 여름날 무료 고속 도로를 달리는 것은 흔히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달리다 보면 웅대한 산들의 장관과 바다의 매혹적인 파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할 때는 산과 바다는 제쳐두고 앞의 차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차량 행렬을 헤쳐 나가는 자동차의 빛나는 크롬 범퍼에 부착된 스티커의 글자를 예의 관심있게 읽은 것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리시오.”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무례한 운전자의 경솔하고 예의없는 행동에 기분이 상했는지도 모르지요. 과연 경적이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캐묻기 좋아하는 율법사가 대담하게도 주님께 나아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을 매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 : 36-39)

마가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는 구세주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막 12 : 31)

주님의 대답은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행동이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불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며 진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에 이끌리어 악마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셔서 밤낮으로 사십일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그분은 자신이 의롭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의 거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마 4 : 1-1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병자를 축복하시고, 장님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셨으며, 커머거리에게 듣게

하시고, 절름발이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심으로써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 보면서 알려진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4장)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 우리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도시 멜버른에는 역사적인 전쟁 기념관이 인상적으로 서 있습니다. 기념관의 조용한 복도를 지나노라면 지고의 희생을 바친 사람들의 용기있는 행위와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기록해 둔 대리석 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포의 울리는 소리와 로케트의 큰 소리와 부상병들의 외침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와 함께 승리의 통쾌한 기분과 패배의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의 중앙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념관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자연 광선으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두드러지게 돋보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여 극복해야 하는 도전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부착된 범퍼 스티커에 적힌 독특한 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수년 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대중 가요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기는 쉬워요, 진실이라 말하기는 쉬워요, 간단히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내게 보여 주세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공과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하나요”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어린 종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할 일을 잊은 채 모자를 쓰고는

그베타러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과 나무를 날라야 했지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예쁜 벨이 말했어요.

“말할 수 없이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고는 한 나절이나 토라져 엄마를 졸랐어요.

벨이 나가자 엄마는 살 것 같았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어린 팬이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를 힘껏 도와 드릴게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잘 되었어요.”

팬은 요람을 흔들어 아기를 잠재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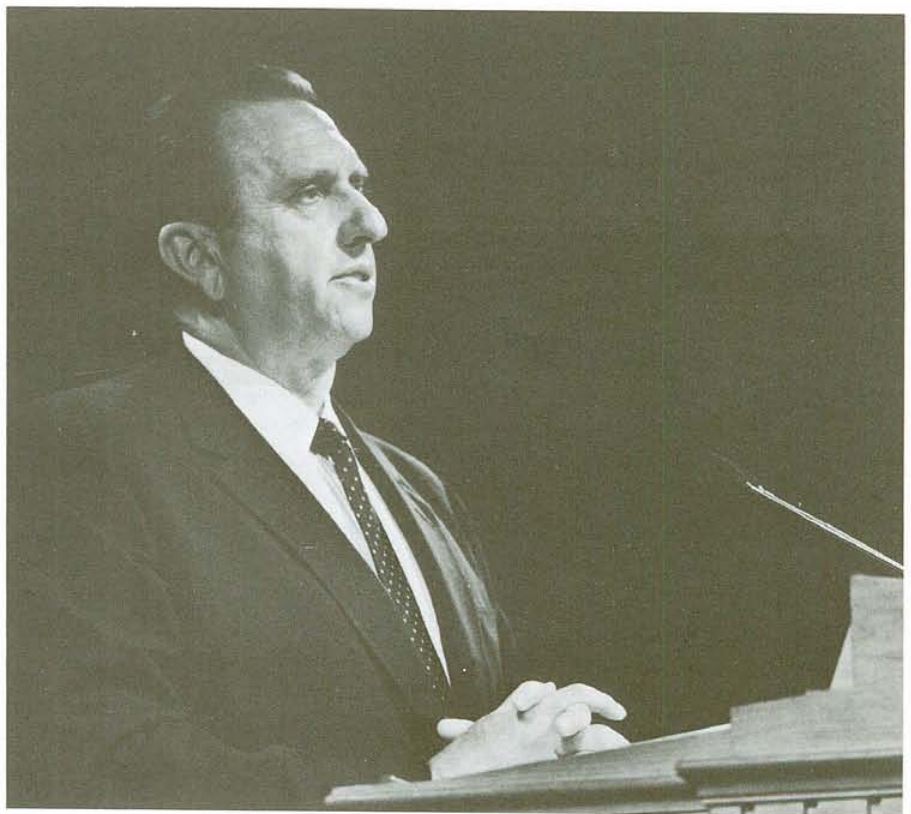
그러고는 살며시 걸어가서 비를 가져와

마루를 쓸고 방을 치웠어요.

온 종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리지만 돕는 일이 기뻐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모두들 또다시 말했어요.

세 어린이는 잠자러 갔어요.



엄마는 누가 가장 엄마를 사랑한다 생각할까요?

알아맞춰 보세요.

(조이 앨리슨, 세계의 명시, 뉴욕: 하퍼 앤드 로우, 1955년, 243-44페이지)

세월이 가고 어린 시절도 흘러가지만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를 오늘의 진리로 바꾸어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마음속 확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독의 역사적인 도시 프라이버그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인—영원한—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십년 전인 1975년 4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나는 드레스덴과 마이센 사이에 있는 노출된 바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엘베 강변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그 땅과 그곳의 국민들을 위해 헌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회원들의

신앙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많은 회원들의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이 땅에 사는 당신의 교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계곡 아래에 있는 교회 탑에서 종소리가 났으며, 수탉의 날카로운 울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새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으나 내 얼굴과 손과 팔에 닿는 햇빛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침 내내 비가 줄기차게 쏟아졌읍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읍니다. 어두운 구름이 터진 틈으로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빛은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읍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을 알았읍니다.

정부 당국과의 완전한 협력이 이루어졌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그 보좌들은 열성적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성전이 계획되고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기공식과 함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납식 때 각국 기자들은 성전의 특이한 구조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왜”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식적인 오픈하우스 기간에 두드러졌습니다. 오픈하우스 기간에 무려 89,872명이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행렬이 빙속에서 세 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헌납식 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이 헌납 기도를 하였으며, 찬송가와 진리에 대한 간증과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어떻게와 왜를 이해하려면 그 땅의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숫적으로는 오천 명도 채 안되지만 활동 수준은 전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곳에 여러 개의 가르칠 방과 푸른 잔디밭과 꽃들이 피어 있는 뜰을 갖춘 넓은 예배당이 없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개인 서재 뿐만 아니라 집회소, 자료실에는 표준 경전과 찬송가 그리고 한두 권의 다른 책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들은 책장에 꽂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회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상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42세인 지부장은 21년 동안—그때까지 살아온 생애의 절반 동안—그의 부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한마디 불평없이 오로지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라이프찌히에서는 어느 추운 겨울날 난로 불이 꺼졌으나 모임을 계속하였습니다. 불기없는 건물의 냉기 속에서도 회원들은 코트를 입고 어깨를 서로 대고 앉아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며 그들에게 권고한 대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나를 따라 오너라,”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살후 3:13; 마 4:19; 교성 112:10)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백성들에게 이같이 가르쳤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전 8:3)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 충실한 회원들이 가진 사랑은 바로 그들의 생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몬경에 나오는 아렛의 동생이 보여 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보류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의식이 수행되고 있으며, 영원한 성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의 예언적인 말씀은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교성 76:1-3, 5-6)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크나큰 상을 받고 이 영원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빕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합당한 아버지와 합당한 아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가르침은 교훈과 모범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첫째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합당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합당한 아버지와 합당한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문경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물문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니일 19 : 23 참조)

그러한 사실을 이해한 다음, 우리는 물문경으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모임은 일반 신권 모임이므로, 나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권고는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물문경은 이런 글로 시작됩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일 1 : 1)

훌륭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훌륭한 아들은 그 가르침에 귀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가르침은

교훈과 모범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첫째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합당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파이의 부친인 리하이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시현에서 “죽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니일 8 : 10)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였습니다. (니일 11 : 25 참조) 리하이는 그 과일을 먹고 “심령이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하여”(12절)였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은 후, 그는 그 다음 단계로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먹도록 권하였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리하이는 가정의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개종할 때에도 의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믿는 대로 믿으라”는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부친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니파이의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문경에 보면 부친이 시현에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은 니파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인 성신의 능력을 입어, 이... 모든 일을... 알기를”(니일 10 : 17) 간절히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부친의 말을 믿었으나, 자기도 그의 부친이 알게 된 것과

똑같은 출처인 계시를 통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합당한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준 가르침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의 확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를 이해하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니파이는 부지런히 주님께 간구하여 그의 부친이 가족에게 준 계시를 재확인하는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물문경의 의로운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전체의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타락, 속죄, 거듭남, 부활, 심판, 영생 등이었습니다. (엘 34 : 9 참조) 이노스는 그의 부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 (이노 1 : 1)

물문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 관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지식만을 배운 사람들은 교활하고 사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 24 : 5, 7 참조)

모든 진리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진리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친들은 이러한 진리를 간결하게 자주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아꿈에게 메시아의 희생을 가르쳤으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은 주님을 통해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고 악마를 통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으며, “악마는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니이 2 : 7, 11, 27 참조)

반복은 배움의 열쇠입니다. 특히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진리를 되풀이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헌신적인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힐라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아들들아 너희는 베나민왕이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또한 너희는...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기억하라.”(히 5:9) 힐라맨은 또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히 5:12)

물몬경의 충실한 아버지들은 자신의 간증을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말씀과 기록이 진실함을 기억하기 바라노라.”라고 베냐민왕은 그의 아들들에게 간증했습니다.(모 1:6)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음이라.”(엘 36:26)

물몬경에는 훌륭한 가족의 유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자신이 부친의 예언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엘 36:17 참조)

베냐민왕은 그의 세 아들들이 “조상들의 온갖 언어로 가르침”받게 했습니다.(모 1:2) 그들은 기록한 기록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말을 모른다면 그들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인들에게는 경전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언어와 신앙이 와전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욘 1:17 참조)

물몬경에서는 아들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블론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네가 어릴 때부터 너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 왔음이라.”(엘 38:2) 물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나는 하나님께 너를 천거하며”(모로 9:22)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의로운 노력을 하도록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빛나갈 때도 용감한 물몬경의 부친들은 그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리하이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니일 8:37) 방탕한 두 아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니일 8:37-38 참조)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이 아버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엘 39:4 참조) 엘마는 솔직하게 코리엔톤에게 그의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엘마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엘 39:11 참조) 그때 엘마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엘 41:10)

물몬경의 의로운 아버지들은 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가? 베냐민왕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모 1:4 참조) 그는 또한 그들이 계명이 들어 있는 늦쇠판을 갖지 못했더라면 “무지로 신음”(모 1:3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경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지로 신음하게 될까요?

늦쇠판은 리하이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였으며,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었습니다. 베냐민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늘 기억하여 이 기록을 탐독하여 그곳에서 유익을 구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노라.”(모 1:7) 다시 말해서, 먼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세에 우리 아들들에게 이러한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이 젊었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엘 36:3 참조) 우리의 젊은이들은 경전을 이해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어렸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니이 2:4 참조)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면 선교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은 이러한 진리를 아들들에게 얼마나 자주 가르쳐야 할까요? 베냐민왕은 계명을 “늘 눈 앞에 보게”(모 1:5)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는 그에게 위대한 영적인 경험이 시작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이노 1:3) “나의 부친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라는 구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내 말씀을 요약하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인 물몬경은 우리 아들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곧, 타락, 속죄, 거듭남, 부활, 심판, 영생—을 가르칠 중요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명에 대해 알게 되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토론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물몬경의 모범적인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아들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들도 니파이처럼 귀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 역시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돈 린드 형제
우주 비행사

“나는 케도에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쉽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기회가 올 때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형 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업상 유명하고 훌륭한 우주 비행사와 과학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인 나는 여러 과학 단체와 정부 기구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포함되는 우주 계획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몇몇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내가 속한 다른 어떤 기구보다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라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조직은 인간의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 속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조직은 수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권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나는 내가 함께 일한 다른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 신권의 형제들인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더욱 갈망합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분된 여행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4월 29일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 실험실 3호라고 불리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타고 케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큰 흥분과 전율을 느꼈으며, 매우 감동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텔레비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신 바와 같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륙하기 약 두 시간 반 전에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것처럼 침착할 수 있었는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발사 시간이 가까와지자 나는 가벼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아래에서 기계가 속력을 내며 위로 오르는 소리를 들을 때 아드레날린(호르몬의 일종)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켓트 보조 추진 장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점화된 후 챌린저호가 위로 솟아오르자, 나는 서커스에 가는 어린 아이처럼 흥분하였습니다.

칠백 오십만 파운드의 압력을 받아 정상적인 몸무게의 세 배로 짓눌려 대며 갑자기 속력이 붙게 됩니다. 연료가 다 떨어져 충분한 속력이 붙게 되면 원심력을 이용하여 케도로 진입하는데, 그 속력은 시속 17,500 마일입니다. 그러한 속력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케도에 들어선 우리는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내버럴부터 보스톤의 북쪽까지 8분 동안에 비행했습니다.

케도 진입 속도에 이르면 갑자기 엔진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나는 어제를 맨 벨트로부터 뚝뚝 떨어났습니다. 진행

안내서 두 권을 묶은 부분이 흩어져 내 앞에서 물결치는 것이 내가 스쿠버 다이빙하러 갔을 때 해초가 물결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중력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마침내 우주 공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몇 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승무원들은 우주선의 화물칸에 설치된 실험실에서 다소 복잡한 열 다섯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케도에 오르는 것은 흥미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우주라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케도 밖 여행은 별로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우 심각한 비행이었습니다.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며,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므로 경이로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정북방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마다가스카르섬 북동쪽에서 대기권에 재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권 재돌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로켓트 추진에 의하여 속도를 줄이기 위해 케도 안으로 갈 때까지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상층부에 이르기까지의 연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기권 진입시에는 최악의 기체 유동 상태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동체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되어 어마어마한 기체 유동의 충격 파동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격 파동으로 인해 로켓트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력이 충격 파동의 열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 듯한 것이지만, 사실 충격 파동의 열은 화씨 5,400도입니다. 이 열은 우주선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주선 서틀 아래 쪽의 내열 타일에 대해 몹시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기권 재돌입시에 그 타일들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실제로는 우주선 주위의 공기도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처럼 보입니다. 그 불덩이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것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그를 위해 준비된 폴무보다(단 3:12-30) 더 뜨거운 용광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사(미국 항공 우주국)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달려 있는 우주선은 완전하게 작동해 주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음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이륙하기 전에 받은 특별한 축복에서 이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나는 그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우주 비행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인상적인 기구와 타고르는 불꽃과 고도의 기술의 정확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그 외에도 개인적인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미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실험실의 어느 구석으로도 떠갈 수 있고, 참새처럼 아무리 작은 돌출부이라도 앉을 수 있는 피터 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어린 시절의 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개인적인 느낌 중에는 매우 영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적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었지, 내가 보려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세상은 매우 큼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하고 장엄한 지구를 바라보며 나는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표현력이 부족하여 그 광경이 실제로 어떠한지 묘사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진 감광액으로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철심인 제1 정원회의 요시히코 기쿠지 장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심이사도 정원회의 새 회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왼쪽)

물론 시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나는 색깔의 선명함에 놀랐습니다. 나는 지구의 대기권이 둥그런 잿빛 수평선에서 우주 공간의 흑색 진공 상태로 변하고, 다시 선명한 청색으로 스무 번이나 음영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섬이 많은 바다를 내려다보니, 수백 가지의 청색, 녹색, 황색이 섞여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처음 지구를 내려다보았을 때는 그 광경의 아름다움에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눈에 머물러 있으며, 점점 방울이 커져서 몇 분이 지나면 마치 수족관의 표면을 통하여 보는 열대어 구피처럼 아물아물해집니다.

눈 앞에 그러한 광경이 펼쳐졌을 때 5~6개의 성구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떠한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시 19:1) 여러분이 하늘을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본”(교성 88:47)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물 한 가지를 내려다보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지상의 창조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깨닫게 되면서 나는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의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은 궤도 중에 성찬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주 공간에 있었으며, 물론 일요일에도 그러했습니다. 감독님은 내가 스스로 성찬식을 가져도 된다는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사가 계시면 무중력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떨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로 계속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비밀이지만 나는 침대차에 누워 있는 상태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천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무릎을 꿇고 공중에 뜨지 않도록 어깨를 침낭에 받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지구 위의 높은 곳에서 가진 성찬식과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 일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얼마 후에 나는 미스 아메리칸인 셸린 웰즈 자매에게 우주국 주위를 구경시켜 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우주에서 거꾸로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주에서는 언제나 똑바로 서서 안전하게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지구가 밑에서 회전합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 밑으로 향해 있다면 그는 거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 발사시에는 지구가 우주 머리 위에서 회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상에서의 문제입니다.

후에 가진 노년의 밤에서 웰즈 자매는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덕적 가치가 하찮은 것이며, 우리의 표준이 구속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고,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거꾸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똑바로 서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케도에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쉽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는 우주 계획이 세워지기 오래 전부터 우주 계획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지혜의 말씀을 지켜 왔기 때문에 우주선 탑승을 위한 6일간의 신체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주선 탑승 지원을 모집할 당시 나는 이미

교육을 마친 상태였으며, 제트 비행기의 조정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에서 나에 관한 신원 조회를 하였으나 내 기록에는 아무런 부적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청남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밤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연단에 계신 총관리 직원들은 주님의 선택된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성도의 벗/1986년 1월호

복음의 구명 밧줄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므로써 주님의 구명 밧줄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 구명 밧줄을 다른 사람,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확대하도록 합시다.”



몇 년 전, 미합중국의 전함 바이로코호의 선원으로서, 나는 구명 밧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공 모함은 물결이 거친 한국 해안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할 때 배가 몹시 흔들려 비행기가 비행 갑판에서 튕겨져 뒤집힌 채로 착륙을 했습니다. 일부는 배에 걸려 있었고, 일부는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조원들은 구명 밧줄로 연결된 날개를 통해 조정석까지 가서 조종사를 구조해 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큰 크레인으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크레인의 팔은 물 위로 뻗어 있는 비행 갑판의 측면에서 2미터 이상 밖에 있는 안장처럼 생긴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팔을 끌어내는 무척 위험한 임무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구명 자켓을 입고 갑판에 부착된 강철 밧줄 고리에 단단히 감긴 구명 밧줄을 허리와 양 다리 사이에

걸었습니다. 비행 갑판에는 위험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미끄러질 경우, 나를 구해 주기 위해 세 명이 서서 구명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로 기중기의 팔을 타고 물결이 일렁이는 물가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구명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멀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그 팔이 내려진 곳에 다달았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볼트와 너트가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약간 녹이 슬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풀려면 무척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미끄럽고 둥글게 생긴 팔에 걸터 앉아서 이 일을 하기로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명 밧줄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힘을 주어 녹슨 볼트를 풀 때 자칫하면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엎드려 너트가 잘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너트는 쉽게 풀렸으며, 그 바람에 그것을 풀기 위해 잔뜩 힘을 주었던 나는 균형을 잃고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우게도 물속으로 곤두박이는 대신, 나는 팔의 끝에 우뚝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크레인이 장치된 곳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명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굳굳하게 서서 조심해서 줄을 조정하며 나의 위치가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호되게 해주었습니다.

곧 팔이 작동되어 비행기가 갑판 위로 인양되었으며, 선원들은 자기

정상 임무로 되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일본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안부의 말을 쓴 뒤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애야, 우리는 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단다. 우리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

최근에 내가 경험한 이 일은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잡고 있던 구명 밧줄의 힘과 도움에 감사를 드리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명 밧줄을 생각해 해주었습니다. 그 구명 밧줄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밧줄을 잡고 그에 의지하여 산다면, 그것은 나를 영생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의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47세의 부인과 자녀, 손자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침례탕으로 내려갔으며 또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해 온 교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우드랜드에서 물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로 그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으며,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 작은 도시에는 교회의 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은 그녀가 찾아 낸 몇몇 회원과 함께 예배를 보는 최초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선교사들에게 개방되었으며, 훌륭한 음식과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느 날 그 작은 집에서 14명의 선교사가 함께 숙박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심깊은 부인과 자녀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원의 수는 더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어, 그는 지부, 워드, 급기야는 스테이크가 세워지기까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복음은 이 여인이 그녀의 소망과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게 해준 구명 밧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족을 굳게 결속케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자 아버지되는 사람이 합당하게 되어 침례의 성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권을 받기까지 이 가족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승영의 열쇠인 성진 의식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에 이르는 구명 밧줄을 잡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구명 밧줄이란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명 밧줄은 어떤 압력이나 반대 세력에도 견딜 수 있고,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물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명 밧줄이 확실한 곳에 묶여 있듯이 신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르는 복음의 구명 밧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께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릴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성 84 : 40)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크고도 위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과 약속은 우리의 합당성과 의로운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신권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닌 신권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이 교회가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은 영화롭게 활용되지만 하면 안전한 영향력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되시는 모든 자매님들은 신권을 지닌 남편에게서 인내와 지시와 힘을 구할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한 그의 신권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인도와 안전함과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부름을 받은 세 분의 총관리 역원 :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엠 러셀 밸라드 장로(오른쪽), 칼로스 이 애시 장로(중앙),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 회장으로 부름받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왼쪽)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177페이지)

최근 교회 신권 집행 위원회는 청소년의 장래를 결정짓는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엔사인, 1984년 12월, 66-68페이지 참조)

우리는 청소년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선교 사업을 하며,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원하게 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 가족 경전 연구 등과 같은 가정 안에서의 종교적인 활동이었고, 또 하나는 미래의 목표와 가치에 관해 부모와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향력이 필수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데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족의 축복사요, 가정에서 가장 높은 신권 역원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구명 밧줄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것이 되게 하며, 그것을 가족에게 확대시킴으로써 의로운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경의 리하이가 시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의 중요성을 보고 가족에게 와서 따 먹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아버지들도 복음의 열매를 따 먹고 이 구명 밧줄을 그들의 아내와 자녀에게 잡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니파이가 그의 부친에게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열매를 따 먹고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날의 모든 아들들도 쇠막대를, 즉 니파이가 말한 복음의 구명 밧줄을 단단히 잡고 니파이처럼 그의 아버지와 신권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태너 부대관장은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자매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가 열두 살이든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들을 따라야 하며, “그녀는 신권이 어떠한지 산 모범을 그에게서 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에게서 힘과 권고와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라, 177페이지)

그는 모든 여인은 신권 소유자가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신권을 영화롭게 한다면, 심지어는 그녀를 돌보고, 그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고, 결코 그러한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그가 지닌 신권과 책임에 대해 유혹받지 않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3년 4월, 124페이지)

신권 소유자는 예배나 거룩한 의식에서 공식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간의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는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권의 권능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주님을 대표하며, 신권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주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권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으며, 따라서 오로지 개인적인 의로움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교성 121 : 36 참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행로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명 빛줄이 이미 확실한 안내자와 힘으로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권 소유자가 주님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구명 빛줄을 끊고 자신과 자신이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주님의 신성한 인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권의 권능과 권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구명 빛줄을 쥐고 있는 우리는 바일로코호의 세 선원처럼 굳건히 서서 구명 빛줄에 의지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구명 빛줄을 다루어야 합니다.

짧은 해군 생활에서 또 한번 나에게 구명 빛줄이 매우 중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일본의 어느 남해에서 태풍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파도가 사납게 일어 갑판과 통로에는 구명 빛줄이 깔려졌습니다. 삼일 동안이나 사나운 폭풍우로 배가

전후좌우로 흔들렸기 때문에 구명 빛줄을 잡지 않고는 어느 곳도 걸어다니기가 위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상에서의 일상 생활까지 구명 빛줄이 없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선원만이 구명 빛줄을 잡지 않고 폭풍 속에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수면이 고요할 때도 구명 빛줄이 가까운 곳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구명 빛줄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 구명 빛줄을 다른 사람,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확대시키도록 합시다. 그것은 위기와 비상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결정과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안내와 인도를 제공하는 영원한 구명 빛줄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읽으므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명 빛줄

크리스 피네가
1985년 9월 30일

진리와 빛이
나의 행로가 되어
구명 빛줄을 잡기까지,
나의 인생은 한때
아무런 도움도 없이
차가운 심장과 더불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움고 그름의 문제로
폭풍이 이는 바닷가에서
혼란해질 때,
바다에 빠지고 싶은
충동이 몰려올 때 구명 빛줄은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
올렸다.

사악이
탐욕과 명예를 위하여
나를 세상의 길로 이끌 때
구명 빛줄은
사악한 생각을 올라미뵈우고
나를 다시 갈 길로 매질한다.

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친구 친척 모두가 사라질 때
그 혼란 중에
위로가 오나니—
구명 빛줄이 내 상처를 씻어 준다.

재빨리 잡으니,
그것은 내게 나의 능력
이상의 힘을 주어
내가 본 사랑을
궁핍한 자와 나누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게 한다.

구명 빛줄이 내 안내자가 될 때
인생의 행로는
미지의 기쁨으로 인도되고
그것을 옆에 켜 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에도 평화가 온다.

내가 의지하는
이 충실한 친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닻을 내리고
있으니
나는
내 구명 빛줄의 근원을 알고 싶다
이 구세주를 대면하여 만나고 싶다.

오, 죽음의 목전에서
내 모든 생애가
한 눈에 보이듯 펼쳐질 때
나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의 구명 빛줄이
나를 보호했음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신권의 맹세와 성약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신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예는 다만 우리가 신권의 성약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올 것입니다.”



여 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는 일체의 거룩한 계약 가운데서도 신권의 맹세와 성약의 중요성을 능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계약임에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권능과 인간이 영원한 목표를 향해 위로 오르려는 품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계약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약속된 축복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성약은 신성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인간이 받아들일 조건을 정하신다.”(말일성도 편, 성서 사전, “성약”)

신권의 성약에 참여하는 쌍방은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특정한 조건에 맞출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약속

1. 큰 신앙으로 벨기세며 신권을 받아들임. 어떤 사람에게 벨기세며 신권이 부여될 때는 큰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상됩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설명하는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교성 84 : 35, 37-38)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권능을 지닌 자가 그의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성신을 받으시라.” 같은 원리가 신권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수십년 전, 나의 부친께서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존귀를 (나)에게 돌려...(나)에게...위탁”(민수기 27 : 18-23 참조) 하셨습니다. 나는 부친이 그렇게 할 권능을 가지셨고, 그 권능은 실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권능의 궁극적인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신권을 큰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2. 부름을 영화롭게 함. 김볼 대관장님은 신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통하여 주님이 행사하시는 도구”(엔사인, 1975년 6월 호, 3페이지)라고 부분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가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권의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또는 단순히 영예만 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권의 부름은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신권의 뚜렷한 축복은 다만 성임되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신권에 성임된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축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실제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신권을 받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매리온 지 롬니, 대회 보고, 1962년 4월, 17페이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Magnify)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영화롭게 하다”(Magnify)는 말을 “중요성을 더한다 : 더 위대하게 하기 위해 더 큰 긍지와 존중심을 갖게 한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 자기의 의무를 배우며,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교성 107 : 99-100 참조)

- 임명된 직책에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 우리의 지도자와 영의 속삭임에 따라 자신의 시간, 재능 및 재물을 주님의 사업에 바칩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사인, 1985년 3월호, 5페이지 참조)

- 진리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입니다.

물론경의 예언자인 아삽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전력을 다하여...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였(으며)...힘을 다하여 일하였느니라.”(야 1 : 19)

나는 이 영감에 찬 말씀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일하였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권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3. 계명에 순종함. 신권에 관한

게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교성 84 : 43)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는 말씀 속에는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계명이 요구 사항이 없는 복음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제 위치가 있으며, 모두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제쳐놓아서는 안됩니다.

한 가지 계명은 순종하면서 다른 것은 무시하는 것은 속도 제한 표지는 엄격히 지키면서 멈춤 표지나 다른 도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 기사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주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요구하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명을 무시하거나 깨뜨린다면,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잃음으로써 저주받게 됩니다.(신 11 : 26-28 참조) 그것은 매우 단순하나 중대한 계획입니다.

4.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활함.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44, 강조 삽입)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한 곳,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전의 썸에서, 살아 있는 예언자의 썸에서, 그리고 성신의 능력을 통한 개인적인 계시로 재확인함으로써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 이사야, 베드로, 바울, 니파이, 모로나이, 그리고 요셉 스미스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예전에 계시를 받았던 분들이며,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권고는 우리 뒤에서 비추어



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과거의 일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며, 미래에 대한 부분적인 시현을 보여 줍니다.

우리 위와 앞에서 비추어 주는 빛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오늘밤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그러한 빛이 비치고 있는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언자를 주시하고, 그분들의 경고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영감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가슴에서 불붙게 해야 합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 : 또한 11-14절 참조)

나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1) 그것을 큰 신앙으로 받아들임, (2) 주어진 부름을

영화롭게 함, (3) 모든 계명을 지킴, (4)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 이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신권의 맹세와 의무에 속하는 인간의 성약을 이룹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계약 조건을 다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약속을 살펴봅시다.

약속 1 :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교성 84 : 33)

한번은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께서 데이비드 호 맥케이 대관장은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몸이 새롭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중에 나머지 몇 사람들도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한 수년 전보다 현재가 더 나으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주님의) 축복으로

돌립니다.”(대회 보고, 1963년 4월, 90페이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롭게 하는 약속”의 영향력을 느껴 왔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수많은 우리의 책임이 미완성으로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약속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헤아려질 것입니다. 거룩한 신권을 받고 성약에 충실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 : 34)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생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복음의 율법을 지켜 내세에서 복음의 충만한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운명입니다.”(물론 교리, 제 2판,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217페이지)

우리는 침례의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예는 다만 우리가 신권의 성약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올 것입니다.

약속 3: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 : 38)

나는 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은 영생이나 승영에 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에 합당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충실한 아들임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의 조물주께서 자신이 계약하신 부분을 맹세코 확인하셨음을 알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꿇고 경배드리게 됩니다.(히 6 : 13-17 참조) 그는 그분의 약속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시고, 그것을 피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어떤 경험을 들려드리는 것이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선교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구도자를 찾아서 가르치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되자 그 젊은이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선교부의 동료들이 격려해 주었으나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선교부장에게 그의 부름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부장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선교사를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말이 그의 아버지 귀에 들어가자, 그의 아버지는 선교 지역에 있는 그의 아들을 방문하도록 허락을 얻었습니다. 한참 동안 긴장된 대화를 주고 받은 끝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살아 왔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나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의 말에 약간 냉정을 되찾은 아들은 많이 누그러져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선교 사업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그건 나의 전부란다.”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몇 마디 감동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생애 동안 나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일하고 저축하여 왔다. 그게 바로 너야. 그리고 나의 한 가지 목표는 네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신교 사업은 어렵고 또 재미도 없고...”

아버지는 아들이 변명을 다하도록 놓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일을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내 사업을 맡기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찬 표정을 살피면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신중하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아, 네가 만일 이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여 모든 면에서 네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주마.”

이런 솔직한 설득에 적잖이 감동을 받은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여기 있겠어요.” 하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선교 지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때가 되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부여해 주셨으며, 우리 작자가 현세라고 부르는 곳에서 생의 사명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분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필멸의 생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합당해야 하며, 그분이 주신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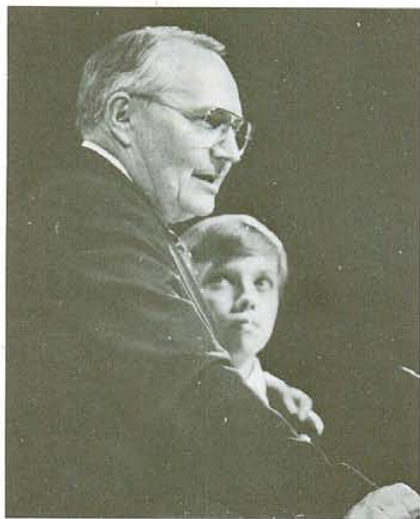
그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곧 영생입니다. 이 축복과 약속된 은사는 오직 우리가 성약을 충실히 견디어 낼 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나는 너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엘 톱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의 아론 신권 청소년에게 주는 권고: 내가 지니고 있는 신권은 특별한 은사란다. 이는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신권을 활용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거라.”



나는 오늘 저녁의 말씀에 도움을 줄 특별한 소년을 초대했습니다. 나의 장손자 테리 하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리야, 몇 살이냐?

테리: 열 두 살입니다.

금년에 네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지?

테리: 저는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에 성임되었어요.

테리야, 네가 이 위대한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나는 네가 너의 아버지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직에 성임된 그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여 네가 받은 축복을 들으면서 어린 너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 감명을 받았단다.

나는 모임이 끝난 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의 얘기를

듣는 아론 신권을 지닌 다른 소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해도 괜찮겠지?

테리: 좋아요.

테리야, 나는 너나 다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가는 것을 그리 크게 기뻐하지 않는단다. 나이가 든 우리 어른들 중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령과 위치에 있어 온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이로 인해 너와 함께 어울려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피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되고 있다.

우리는 집에 라디오, 녹음기, 텔레비전 등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것은 각기 전전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시청자를 위해 그동안 제작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단다. 사실상, 이제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것들은 저속한 것들이었다. 집에서 스위치만 켜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파괴시키는 힘이 바로 너희 앞에 나타난다.

너와 같은 청소년들의 영웅이 되고 있는 몇몇 운동 선수들은 오로지 육신을 망치게 하는 것들을 만드는 일에 자신을 팔아 넘기고 있단다. 최근 몇몇 유명한 선수들은 약품 사용법에 위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테리야, 네가 올바른 가치를 지닌 영웅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리고 만일 그 가치를 따른다면 그것은 네게 삶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영웅들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단다. 그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으로, 고대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사건에 관해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원리는 올바르고 참되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전의 말씀을 실제 살아 있는 말씀으로 읽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 경전 속의 사건이 마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읽도록 해라. 예전의 예언자가 가르친 위대한 교훈은 현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적용될 수 있단다. 내가 말하는 뜻을 잘 설명해 주는 예를 하나 들어 주마.

내가 항상 흥미있게 읽는 영웅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에 관한 것이다. 그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그리 충실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져 적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략상 곤란한 입장에 놓였던 것이다. 국력이 강한 애굽과 시리아가 남과 북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대신 이 두 국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 땅을 선택터로 사용했단다.

다니엘이 탄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단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성스러운 기물들을 전리품의 일부로 가져 갔고, 국가를 더욱 강대하게 하기 위해 총명하고 유망한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데려갔단다. 경전에 기록된 대로 왕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단 1:4)

다니엘은 느브갓네살의 노예로서 왕궁으로 끌려간 소년의 한 사람으로, 왕은 그를 왕의 법도에 따라 훈련시켜

제국을 더욱 강대하게 만드는 데 그의 지식을 사용하고자 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잡혀 가 첫번째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랜 뒤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위시하여 매일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그가 받은 훈련으로 인해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음식이 그의 육신을 더럽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로 가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환관장은 이런 부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니엘에게 왕이 명령한 것 이외에 어떤 음식도 먹는 것을 감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자리는 물론 목숨까지도 빼앗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는 올바른 원리를 배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환관장에게 제언을 했다. 그는 몸에 좋다고 배운 음식만을 골라 열흘 동안 먹고, 만일 열흘 후에 그의 안색이 아름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겠다고 했다.

물론 열흘이 지난 뒤 다니엘은 주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왕 앞에 선 어느 소년보다도 건강하고 튼튼했다. (다니엘 1장 참조)

테리야, 네 생애에서 너는 많은 경우에 네 몸에 좋지 않다고 가르침받은 것들을 사용하도록 유혹받고 시험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너는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옛날의 다니엘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힘을 얻었듯이 너도 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지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건강을 얻으며...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0) 다니엘은 첫번째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3년의 훈련 기간을 마친 뒤 이 젊은이들은 왕으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해 그 앞에 나가게 되었다. 다니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의 노력은 그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조에 명철하게” 하였다. (단 1 : 17) 그는 왕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왕은 다니엘을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그와 같지 않음을 알았다. 왕이 그에게 질문한 모든 지혜와 총명에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열배나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

테리야, 너는 훌륭한 정신의 축복을 받았다. 때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네가 가게 될 모든 학교의 조건이 항상 최상의 것은

아니겠지만, 너에게는 지식과 명철을 얻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네 자신이 그것을 활용하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를 구하거라. 너희 훌륭한 정신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연마시키도록 해라. 주님께서는 네가 여기서 얻는 것은 부활할 때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네 영생에 유익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네 정신은 그토록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애를 위해 너 자신이 준비하도록 하거라.

다니엘은 그의 두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준비하여 왕의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것이다.

다니엘에게 온 세번째 시험은 왕정이 바뀌는 데서 왔다. 느브갓네살왕이 죽자 새로운 왕이 그의 부와 권력에 취해 있었다. 그는 왕관을 쓴 뒤 큰 잔치를 베풀어 주변에 있는 귀족과 두령들을 초대하였다. 그것은 술과 춤추는 여자와 많은 음식과 세상의 다른 매력이 풍성한 세상적인 잔치였다. 왕은 취한 상태에서 느브갓네살이

경전에서 가져 온 거룩한 기물을 가져 오라고 했다. 그는 이 기물들로 술을 마시므로써 그것들을 모독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주님께서서는 그의 손가락으로 벽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다. 이 일은 왕을 놀라게 했으며,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초대한 귀인들 앞에서 무릎을 부딪치며 떨 정도였다.

그곳에 있던 현인과 귀인들 중에서 아무도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을 불러 들었다. 물론 다니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있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그 왕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위해 가시리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 주었다. (다니엘 5장 참조)

이 이야기는 잔치에 참여해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르러 보낸 것 때문에 나에게서 재미있는 얘기란다. 다니엘은 가장 잘 알려진 현인이었지만 그러한 연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듯 악하고 세상적인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세번째 유혹도 이겨냈다. 그는 마음을 오로지 불의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지켰던 것이다.

테리야, 네 자신을 세상의 악한 행동과 장소로부터 다니엘처럼 굳게 거리를 두고 지켜라. 그릇된 책이나 사진, 또는 잡지를 가까이 두지 말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유혹도 받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술이나 마약이 너의 몸을 취하게 하고 파괴하듯이 네 정신을 취하게 하고 파괴시킨다.

합당치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네 마음을 악하고 폭력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영화 따위를 멀리하도록 해라. 경전에 있는 다음 말들을 늘 기억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7)

네번째로 다니엘에게 온 시험은 그에게 있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왕은 그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120명을 방백을 세우고, 그 방백을 다스리기 위해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었다. 그는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기 위해 난폭하고 불의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다.

다른 방백과 총리들은 다니엘에게 주어질 권력을 시기하여 그를 왕의 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방법을 모색하였지. 경전은 다니엘이 하나의 실수나 과오도 없이 모든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결함을 찾으려던 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에게서 실수를 찾으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그들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을 살핀 그들은 그가 하루에 세 번 그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 꾸밀 수 있는 계약은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그 법에 저촉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명을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왕은 이 금령에 어인을 찍고 법으로 만들어 누구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은 대단히 강한 것이었다. 그는 계속 기도를 드렸으며, 곧 발견되어 왕 앞에 불러 나왔다. 법에 매여 있는 왕은 크게 애석했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벌을 선고한 뒤, 왕은 걱정이 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는지를 보기 위해 사자굴로 뛰어 갔다. 다니엘이 해를 입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본 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왕은 이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다. (다니엘 6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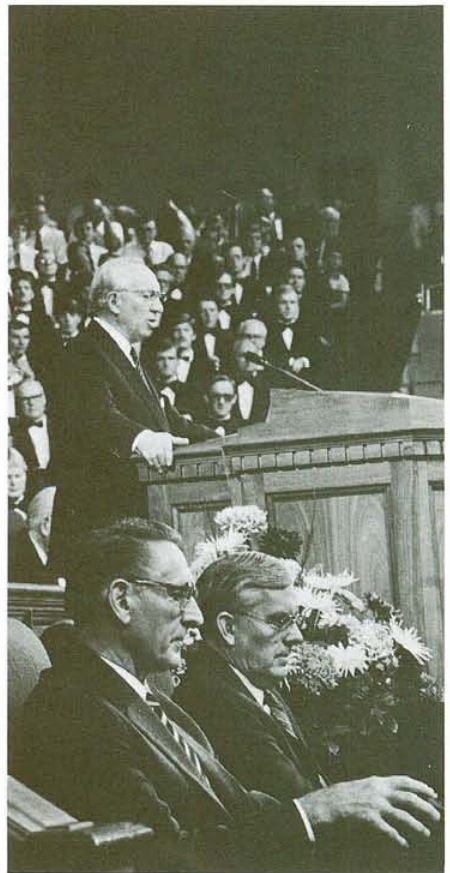
테리야, 다니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는 큰 축복이 마련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란다.

경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집사로든 교사로든, 제사, 선교사, 가정 복음 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 또는 주님께서 어떤

직분에 부르시든 읽을 때마다 똑같은 감동을 줄 것이다. 그것들은 너에게 신앙과 용기,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네 삶을 진리와 의로움의 기초 위에 세우도록 하거라. 그것만이 이 생의 압박에 견디고 영원히 참아 낼 수 있는 기초인 것이다. 네가 지니고 있는 신권은 특별한 은사란다. 이는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신권을 활용하고 영화롭게 하여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거라. 나는 내가 그 권능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음을 너도 알기 바란다. 그것은 내 생애를 많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회 중인 대관장단 제2보좌 고든 이 힐클리 부대관장. 앞쪽에 칼로시 이 에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주님의 대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는 모두 이 대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옆에서 비판적인 눈길로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하는 신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임과 이제까지 들려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끝으로 말씀드리는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의논할 것을 수차 반복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편물이 끊임없이 대관장단 사무실로 우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한은 대부분이 슬픈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입은 가족, 집을 잃고 가슴에 상처를 입은 개인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큰 부담에 때로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그 운영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책이나 교리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평상시에 말씀드리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 문제점을

설정해 놓고 나 자신이 인터뷰받는 듯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방송국에 나가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킴볼 대관장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특히 이 훌륭한 분을 깊이 사랑하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킴볼 대관장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십니다. 그는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는 현재 구십 일세이십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큰 질병을 이겨내 왔습니다. 이러한 역경에서 누적된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는 수님의 능력으로 견디어 오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친절과 인내심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주님께 바치는 충성에 있어서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인 교회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에 확고 부동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관장으로 봉사해 온 기간 동안에 많은 분야, 많은 영역, 많은 지역이 눈부시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결음의 폭을 넓히려는 그의 부름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정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옷을 갈아 입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고, 우리는 그와

만납니다. 그의 출현으로 영감을 받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관장이며 주님의 예언자이십니다. 그가 대관장단 사무실에 부수되는 많은 책임을 돌보실 수는 없으나,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 사항을 그에게 말씀드리고, 그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결정을 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관장단의 일은 조금도 차질없이 진척되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극히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튼튼하고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력의 계수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 숫자는 모두가 향상 지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찬식 참석자 수가 거의 70 내지 80퍼센트에 달하는 와드와 스테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청년 시절이나 30여 년 전 스테이크 부장이었을 때는 들어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회원들과 그들의 활동의 증가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회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에 현재 10,035개의 와드와 1,558개의 스테이크가 있다는 사실에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향상의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에 이르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원한 진보에 관련된 것이므로 지상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전체를 통하여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총관리 역원과 교회 역원과 지도자들 사이에 완전한 단합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혹자가 주장하듯 교회는 큰 부를 소유한 재단입니까?

교회가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산은 주로 팔십여 개 국에 널려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한 건물은 와드와 스테이크 모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와 신학 연구원과 대학 건물도 있습니다. 복지 사업과 선교부와 선교사 훈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건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폭적으로 더 많습니다. 또한 계보 시설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돈을 소비하는 자산이지 돈을 생산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한 건물을 짓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재정적인 부를 생산해 내지는 않지만, 말일성도를 키워 내고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의 큰 책임에 관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살아 있는 회원들의 신앙과 활기를 키워 주고,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하여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는 수입을 만들어 내는 사업체도 얼마간 가지고 있으나,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는 교회가 단기간밖에는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십일조는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율법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원리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유일한 실질적인 자산은 바로 회원들의 신앙입니다.

4. 교회가 사업에 손을 댈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업 자산은 우리가 미국 서부 지역의 계곡에 고립된 개척 시대에서 시작한 기업체가 발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국내외의 사태를 알려 주기 위하여 신문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135년의 발행 연한을 갖고 있는 데저렛 뉴스입니다. 1920년대에 정부 관리들은 신문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방송 사업의 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대회모임을 갖기 전에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십이사도 평의회 의 에즈라 태프트 맨슨 회장

데저렛 뉴스에 의하여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자연스런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방송국의 자산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짐작하실 터이지만, 통신 능력과 시설은 우리가 언제나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면에서 운영되는 신문사나 방송국 등, 이러한 자산을 소유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와 견해를 전달해야 할 책임에 직접 간접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곡물을 현찰로 바꿀 필요가 있는 농부들을 도와 주기 위해 사탕수수 산업을 개척하였습니다. 그것이 성장하여 현재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관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75년 전에 템플 스퀘어에 인접한 곳에 아름다운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상업적인 이윤을 내는 것은 개척시대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내재해 있던 협동 정신이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살리기 위하여, 특히 템플 스퀘어에 인접한 거리에 몇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건물은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입니다.

거들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사업체의 이윤을 모두 합친 금액은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며, 그것으로는 극히 짧은 기간밖에 이 사업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고 사항으로 하시도록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각 기업체나 전문 직종의 책임자들의 생활비에 비해 상당히 검소한 수준으로 주어지는 총관리 역원들의 생활 수당은 성도들의 십일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체의 이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 현재 예루살렘에 건축 중인 브리감 영 대학 센터에 대하여 논쟁이 분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대학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건축 승인을 하기에 앞서, 예루살렘 일간지에 필요한 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인 필요

조치도 마쳤습니다. 이 시설은 여러 해 동안 계속하여 추진되어 온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와 국가를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이있게 탐구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접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영향력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음은 경험으로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의 직원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그 밖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브리감 영 대학과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유익을 되돌려 주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6. 어린이 성적 학대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몇 가지 고통스런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최근에 어린이 학대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실이 세상에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그 밖에 누구든 어린이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파문의 사유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우자나 어린이를 성적 학대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 즉시로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회원 자격을 보류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책문의 악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유린이나 배우자의 성적인 학대와 같은 변태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가장 음흉한 죄악입니다.

7.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설 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며, 특히 성전 추천서를 받는 자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어떤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을 저질러 파문당했다가 후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 전과 같은 축복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로 그때까지 가족을 부양했으며 지금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종교의 원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주님께 의하여 정해졌으며,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지도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8. 복권 추첨은 현재 미국 전역과 다른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문제에 관하여 많이 생각했습니다.

현재 미국내의 22개 주에서 복권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의 복권 판매에 대한 제안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에 속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권은 지극히 전진한 목적을 내세워 그 합당성을 옹호하고자 해도 일종의 도박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권의 열기는 최근에 뉴욕주에서 당첨된 세 개의 복권이 4,100만 불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복권을 사려고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한 장의 당첨권은 21명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으며, 778명이 2등에 당첨되었고 113,000명이 기념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은 사람은 35,998,956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자기 당첨의 기회를 잡아 보려 돈을 썼던 것입니다. 일등에 당첨되는 비율은 610만명 대 1이었습니다.

복권에 따르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전에는 법적으로 금지시키려 했던 것을 이제와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 나라의 기강이 허락하는 것을 나타내는 슬픈 현상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도박에 반대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도 그에 반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아주 강력하게 그에 반대했습니다. 1925년에는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그 보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도박도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26년 9월, 1100페이지)

복권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떠한 명칭으로 불려도 여전히 세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부담이 세금을 거의 낼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대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 에스 에이 투데이 지의 사설에서는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복권은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노름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돈을 잃게 마련이다. 노름은 가난한 자에게서 빵과 돈을 앗아간다. 그에 중독되어 인생과 가족을 망치는 상습 도박꾼들에게 그것은 더욱 유혹적인 것이다.”(유 에스 에이 투데이, 1985년 8월 26일) 이러한 경위에서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됩니다.

9. 무기 경쟁, 특히 핵무기 증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역시, 세계의 평화와 공포의 균형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문명 사회의 슬픈 일면입니다. 분별없는 결정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강대국의 대표자들이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어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을 성실하게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널리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자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불운한 사태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무서운 재난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10. 최근에 소리가 높아진 교회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큰 소리로 떠들어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꾸기는 하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의 탐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팎의 몇몇 학자들이 그러했듯이 그것을 공정하고 성실하게만 다룬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 사명을 저해시키고자 획책하는 무리들에게 시설과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십일조 기금을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 충실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며, 그것은 마땅히 성스러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온 지상의 국가에 복음을 가르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재하심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며, 그들의 사업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그 일을 추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러 나가 이 생에서 한 일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면, 누구라도 이 사업의 완전성을 의심하고 불완전하나마 역사의 단편을 찾으려 생을 마칠 때까지 애쓰는 일로 칭찬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왕국 건설을 위해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이해시켜 빛을 비쳐 주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 주며, 우리가 처한 세상을 좀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 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1.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들을 볼 기회가 많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세계 여러 곳에 성전을 헌납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강한 확신과 활기찬 간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크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들이 바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말일성도 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권고에 따라 가족을 양육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시간과 재산을 후하게 바칩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복지가 위협받을 때에도 이웃을 도우러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봉사를 베푼 사람으로부터 감사함을 기대하지도 않고서 성전에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되시는 여러분, 자녀되시는 분들과 또한 함께 일하시는 모든 말일성도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대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옆에서 비판적인 눈길로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하는 신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 한분과 또한 이제 성인이 되어 이 왕국의 짐을 짊어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차 말을 책임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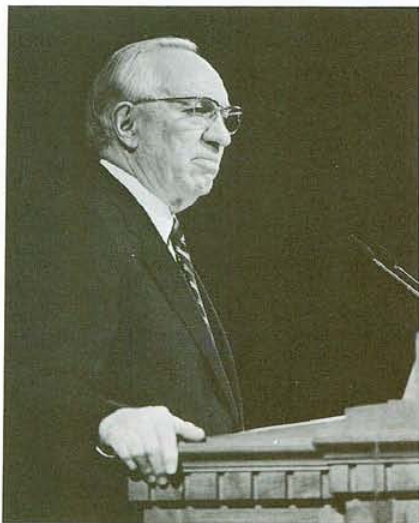
여러분께 나의 간증을 전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원의 사업이요,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사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참되고 충실해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를 기뻐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우리는 교회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진 이래로 가장 의미깊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말일성도들이 지지해 주는 믿음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하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책임을 스스로 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예언자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의 선택된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을 섬기고, 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그의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거룩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며,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형제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청과 임무를 예외없이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과 관리 감독단에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 연단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완전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맨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이해심이 있고, 확신과 위대한 능력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까이 자신의 생각은 뒤로 미루고 주님의 사업을 우선으로 놓는 겸손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능력이고 헌신적인 형제님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대한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미치는 많은 영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관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영향력 아래서 점차적으로 관정이 한데 모아져서 변함없이 단결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정책이나 조치도 교회의 최고 평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또한 결정이 만장 일치라는 느낌이 없이 취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인도와 계시를 받기 위해 전능하신 분께 간청을 하고, 또한 교회의 대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관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높은 곳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과 세상의 구속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엄숙히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날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진 이래로 가장 의미깊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잠시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릴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59장)라는 위대한 말일성도 찬송가를 확신을 갖고 부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감사와 찬사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 사업의 기초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요, 대관장으로 존경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헌납이 지난 몇 년간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무관심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거룩한 건물을 짓고 헌납하는 데에는 교회내에서의 비난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항하는 몇몇 적대자들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혀 왔읍니다. 이것은 1861년 솔트레이크 성전이 건축 중에 있을 때 브리감 영이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에 성전 건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을 위해 계속 일해 줄 것을 요청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코 성전을 짓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감 영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종을 쳐서 유혹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담을 열어 놓는다면 모든 사탄의 무리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보아 왔습니다.”(설교집, 8:355-56)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반대하는 무리가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강화되었으며 주님의 약속하에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이 나의 사업을 파멸시키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악마의 간계보다 나의 지혜가 더 위대함을 저들에게 보여 주리라.”(교성 10:43)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16개의 새로운 성전을 헌납했으며, 복원된 맨타이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는 적어도 한 성전을 더 헌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6개, 1984년에 6개, 1985년에 6개의 성전을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은 이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킴볼 대관장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스럽고 중요한 사업은 더 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으로 가기보다는 성도들이 있는 곳 가까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한 대업의 힘과 권세에 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아시아 및 호주, 멕시코, 중미, 남미,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의 헌납 모임에서 가졌던 경험을 그들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나는 수만 명의 말일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피부 색깔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이 위대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간증으로 한결같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말하는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소리높여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여 얼마나 회생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양했지만 그들은 지상에 회복된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 한 음성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며, 감사함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참석한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많은 성전 헌납식에서 느낀 경험을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년간에 걸쳐 여러 번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전에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교육 상태가 낮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멕시코 시티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수천 명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은 깨끗했고, 그들의 표정은 밝고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들의 의복은 단정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고,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들 대부분의 피속에는 리하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문경의 예언자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눈에서 어둠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최고 기쁨에 넘친 백성”이 되었습니다.(나이 30:6)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세를 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큰 힘을 주는 경험이었었습니다.

나는 필리핀에 가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961년에 그 땅에 처음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될 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건물도 갖지 못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본토의 교회 회원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1984년에 대도시 마닐라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놀랍고도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을 부어 주고 계신 수천 명의 밝고 신앙심이 깊은 말일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반 세기도 못되어 1961년에 우리가 찾은 한 명의 회원으로부터 교회는 성장하여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나의 친구들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일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개막은 그들에게 충만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온 꿈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에 독일 프라이비그에서 아름답고 성스러운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헌납했습니다. 헌납식이 있기 전, 일반인들의 관람을 위해 건물을 개방했을 때 9만 명에 육박하는 수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관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성도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돈과 재물을 희생하고 자신의 안일을 포기했습니다.

헌납식에 참석한 어느 회원은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엄숙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으며,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해가 비쳤습니다... 장로님은 영원한 기쁨과 열의와 소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눈물, 웃음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처해 있는 상반된 정치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나는 그 나라의 정부 고위자들에게 이 성스러운 건물을 짓게 해주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미국내의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지역에 큰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그 아름다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는

평안함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날”(빌 4:7) 주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과 맺은 영원한 성약으로 연결되어 형제와 자매로 함께 어울린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덜란드인 후손으로 오래 전에 그곳으로 건너 온 사람들도 있었으며, 네덜란드와 전쟁을 했던 영국의 후손들도 있었으며,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에 모인 사람들간에는 우정과 사랑과 단합과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성전들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모임을 통해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성전마다 헌납식이 있는 후 의식 사업이 시작되어 장막 이 편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과 장막 저 편에 있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심없는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대리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십이사도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성신권의 열쇠로서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그러한 독특하고 훌륭한 의식들을 포함하여 많은 축복들이 더해지는데, 그러한 열쇠는 고대에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식 안에서만 “완전한 신권”(교성 124:28)의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필요성을 정당하게 부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요

3:5)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축복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차별하시리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공의가 있어야 한다면 보편적인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 성도들에게 한 질문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는 것을 경전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전 15:29)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전에는 살아 있는 대리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침례만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분들은 살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비록 필멸의 몸으로는 죽었지만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우리와 같이 영생에 관계되는 축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개체인 것입니다. 나에게 상속을 물려 준 나의 조상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내가 좀더 합당합니까?

주님의 집은 순수한 집입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백옥같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도덕성과 정직 및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는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계시자인 요한에 의해 미리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13, 15-17)

이 거룩한 집인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서 고대에 사도들에게 주신 똑같은 권능으로 함께 인봉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3, 16)

그때 구세주는 그러한 지식을 알게 해준 계시의 권세와 그의 교회가 세워질 계시의 원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선택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교회의 성전에서 엄숙히 진행되는 결혼은 이생 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그와 똑같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집행됩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애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 의식에서 선언하듯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종말에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사 중에서 가장 거룩한 관계를 억지로 떼어 놓으시거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서 동반자를 멀리 보내시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승낙도 있어야 하고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거룩한 성전에서 성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나는 상처를 한 어떤

친구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반 세기 이상을 관계를 맺어 오면서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방파제 역할을 해준 사람을 잃은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의심없이 믿고 있는 것은 오래 전에 집행되었던 결혼이 권능에 의해 결합되었으며, 그 권능은 죽음의 장막을 넘어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효력을 미치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성전이 개막되어서 이 성스러운 집의 제단에서 아내를 껴안은 건장한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조그마한 경이로움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 똑같은 제단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행사되는 권세를 통해 그들은 시간과 죽음도 그들을 함께 묶어 놓은 유대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가 살아 있는 자를 위해 유효한 것처럼, 대리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을 대신 받을 때는 죽은 자들에게도 유효하게 됩니다. 장막 저 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심없이 주어진 이 사업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에 필적될 수 없는 구세주의 대리 사업에 더욱 가깝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거나 그들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복음 의식을 그들이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위대하고 중요한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이용되기 위하여 그곳에서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조화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좀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주님도 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사업을 비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언어적인 면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이나 진리를 비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보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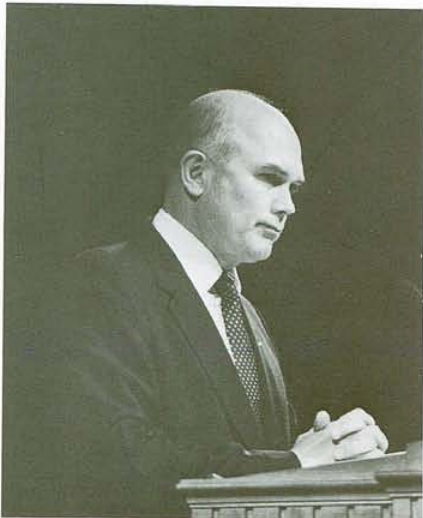
사랑과 구세주의 회생을 통해 주어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보편성, 그리고 모든 세대의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기회의 보편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성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충실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성은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서 인생을 보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견지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다 가까워짐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실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성은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두 개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고후 4:18)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롬 8:5-6)

영의 생각이란 보다 넓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경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특별한 색조를 부여하여, 어떤 면은 무시하고 어떤 면은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렌즈는 그것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을 밝혀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습니다.(고전 2:11)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일을 볼 수 없습니다.(고전 2:14 참조)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멸의 지상 생활을 세상적인 성취와 재산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할 때 생의 목적과 구세주의 성역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영성은 직업이나 부름의 기능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신학자보다 더 영적일 수도 있으며, 교사가 역원보다 더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성은 개인의 사고 방식과 우선 순위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행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존 테일러 장로는 1852년 유럽에서의 선교 활동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영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질문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이리와 고품과

맹수가 있는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길에서 쓰러지거나 사막의 통로나 대양의 물결 밑으로 버려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해 누가 염려를 합니까? 길에서 쓰러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온종일 항상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원리를 계시해 주셨으며,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고, 또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설교집, 1:17)

경전에는 영성에 대한 훌륭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영성은 매일의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은 구세주께서 어느 마을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38-42)

이 성구는 마르다와 같은 모든 남녀에게 우리가 일상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일하고도 영적인 기회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은 쌍둥이인 에서와 아팜 그리고 장자 생득권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태도에서도 좋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창 25:34) 그러나 동생인 아팜은 그것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아팜이 영적인 것을 가치있게 여긴 반면 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였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자 팔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 생득권을 팔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창 25:32) 에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주림을 면하기 위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빌라도의 로마 병정들은 세속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갈보리에서의 비극이 있었던 그날 오후, 소수의 몇몇 병정들은 십자가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들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세상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마 27:35; 눅 23:34; 요 19:24 참조) 그들이 보여 준 예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일을 위한 제비 뽑기에 열중해서는 안되며, 가족과 주님 사업을 위한 영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상 경험에 대한 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평가의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 해 전 브리감 영 대학 영적인 모임에서 로렌 시 던 장로는 투엘러에서 바쁘게 지내는 선교 부장인 그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가족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책임을 맡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했으며 그들은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빈틈없는 이웃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소 키우는 이 젊은이들이 한 일에 대해 그들의 아버지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던 부장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짐, 당신은 잘 몰라서 그런거예요. 나는 아들을 키우려는 것이지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영적인 유산,” 브리감 영 대학교 1981-82년도 노변의 밤 및 영적인 모임 말씀,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82년, 138페이지)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이것은 자녀들의 행동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평가하려 하는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세계의 예술품을 약탈하여 그것을 녹여 금괴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적들은 그가 물몬경을 번역해야 했던 금판을 빼앗으려고 그를 추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얻기 위해 금판을 찾았습니다. 금판은 물론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것의 영적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지상의 사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지상의 일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일생 동안 한 일에 대해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22년 4월, 96-97페이지)

이 산의 계곡에 정착한 말일성도 남녀 회원들은 그 원리 위에서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열망의 관점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개척자들의 사업은 실패였습니다. 철광업자들은 충분한 양의 철을 캐내지 못했고, 목화를 재배한 사람들은 유타에서 자급자족할 정도의 면화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설탕 제조에도 40년 동안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주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여 영구 이민 기금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실성, 협동, 헌신이라는 영원한 가치에서 판단할 때에는 아무리 분명한 세상적인 실패도 개척자들의 사업의 위대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러한 사업은 희생을 요구했고, 그러한 희생은 개척자들을 단련시켜 성도로 만들었고, 성도들에게 승영에 오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라.”(교서 29:34)

물몬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시온-서부 미주리의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군사 원조를 주기 위해 오하이오주에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행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진영 대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겉에서 볼 때 그 원정대의 목적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반세기 동안 교회를 인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끌고 평원을 횡단하여 서부 산악 지대를 개척한 이 사람들로써, 그들은 시온의 진영 진군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게 되었고 지도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율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시온 진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구축은 땅을 사고 되찾거나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복하고 영혼을 복종시키고 육신을 성결하게 하며, 욕망을 순수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입니다.”(히버 시 콧볼의 생애, 제 2판, 솔트레이크시티 : 스티븐스 앤드 윌리스사, 1945년, 65페이지)

십계명 중의 첫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출 20 : 3)이며, 이 말은 영성의 본질을 요약한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같은 다른 것을 구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구세주의 세수제자의 가르침에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 : 24-25)

야고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야 4 : 4)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 : 15-17)

물질주의란 물질적인 필요와 물건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며, 분명히 영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마 6 : 19)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네 보물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21)

다른 물문경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레이먼인 사무엘도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이 재물로 인하여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마음을 재물에 두고 너희에게 말씀은 전하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이라.”(힐 13 : 21; 힐 6 : 17; 7 : 21 참조)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딤후 6 : 17)

돈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돈을 사용하여 그의 이웃을 도왔으나 유다는 돈으로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 : 10)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우리의 경험을 보고 평가하고 관리할 때의 우리의 영성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거나 돈에 우선권을 두면 우리는 돈으로 인해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며, “세상의 헛된 것으로 교만해”(엡 5 : 37)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데 사용한다면 돈은 우리의 성실성을 증거하고 비이기적인 마음을 발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영적인 사리에 밝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해의 영광의 더 높은 율법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다른 비극 혹은 불행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영성의 정도가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실한 말일성도인 우리는 부활과 가족 결합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실수나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교성 19 : 16) 겪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좌절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강화됩니다. 신앙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시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니이 2 : 2)라고 약속했습니다. 미주리에서의 박해가 한창 극심할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교성 98 : 3)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정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회개, 침례를 통해 영성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의로운 소망과 순결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영성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영성을 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에 기뻐함으로써 영성을 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약을 맺고 성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영성을 얻게 됩니다.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선택한 결과이며, 의로운 생활의 수확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축복으로의 초대임을 알게 됩니다. 순종과 희생, 충실성과 사랑, 충성과 가족, 이 모든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을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구세주의 말씀은 새로운 중요성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서 찾게 되리라.

“그러므로 세상을 버리고 네 영혼을 구하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영감역 마태복음 16 : 28-29)

영성의 열매는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기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교성 88 : 67-68)

나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독생자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언자를 통해 영성이라는 영원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68절 참조)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교성 14 : 7) 영생의 축복을 포함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비가 공의를 포용하도록 합시다.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범법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것에 관한 권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관리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장로님께서 여행을 많이 하시며, 스테이크 대회를 주관하고, 주일날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저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나는 “남은 시간이라뇨?”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을 비행기에서 또 비행기가 출발할 것을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조금 거칠게 들린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25년 전에 총관리 직원으로 부름받았으며,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스테이크 대회를 주관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해롤드 비리 장로님에게 조언을 들으러 갔는데, 당시에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제님은 이제 총관리 직원입니다. 아무도 총관리 직원에게 그의 특별한 부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도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응답을 기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진지하게 실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예상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내가 그 문제를 연구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나에게 닥쳐오는 몇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구들에 대해 갑자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전을 읽으면서 지나쳤던 그러한 응답들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여러 해 동안에 참으로 혼계에 혼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웠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봉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총관리 직원은 누구나 전시간을 다 바쳐서 행해야 하는 하나 이상의 특별한 임무를 받습니다. 어떤 임무는 조사하거나 가르치는 임무이며, 어떤 것은 어려운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어떤 것은 새벽에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성전을 관리하는 등과 같은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총관리 직원의 임무는 모두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또 총관리 직원은 영적이고 또한 조직적인 기술로 재정, 인사, 기타 행정 업무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나는 나의 동료들이 이러한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알고 가끔 경탄합니다.

나는 현재 한때 주님의 우리로부터 이탈했으나 이제는 신권과 성전 축복을 온전히 되찾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생활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회원 자격을 회복해 주는 일에 있어서 대관장단을 돕는 특별한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관장단의 직접적인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하나 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간략한 형식으로 잘 정리해서 대관장단이 공의와 자비에 의거하여 각 사례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죄와 범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피로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죄와 범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을 저지른, 일부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할 때 생기는 가슴아픈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녀이며, 또한 그렇게 하려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와 사랑과 관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들이 처음부터 선지자 엘마가 그의 방탕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말한 그러한 말씀들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보라 나의 아들이, 네가 이미 범하여 죄를 지은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의 교리를 거역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위험을 범하지 말라.

“네게 이야기한 회복의 원리가 너를 죄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 41:9-10)

바느질하는 방식이 우리가 입을 드레스나 의복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의 생애가 우리의 미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두드리기 힘든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까? 경전의 성구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항상 죄의 결과로 생기는 그런 가슴아픈 일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는 자신의 죄를 극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편지로 보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친절하고 배려깊으며, 사랑이 많고 사려깊으며, 덕스럽고 참되어서 처음부터 그러한 가슴아픈 일을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전에 힘든 방법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관장계서 고려하도록 각 사례를 정리하고 요약할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이전의 범법자의 신청서가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을 때는 총관리 역원 한 사람이 파문당하기 전에 소유했던 신권이나 성전 축복을 다시 받을 만큼 현재 합당하고 준비가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접견하도록 지명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슨 회장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기시면 나는 정말 회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신청한 사람과 접견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행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죄를 버리고 두번 다시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게 될 것이며, 완전히 죄가 씻길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정돈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계속해서 의롭게 살면 마침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치료자들입니다.

우리 회원 가운데, 심지어는 지역 지도자들 가운데도 일부가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집니다. 혼계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말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로 놓고 볼 때는 혼계한다는 말은 제자라는 말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우리는 범법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범법자가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그 당시에 그를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부장이나 감독이 회원들에게 범법자와 더 이상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하며 불친절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는 바로 거역하고 화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도전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물론경을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책이 친절과 사랑의 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이며, 너희가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나아오는 자를 막지 말라. 이들을 영접하며 막지 말고,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밖으로 내어 쫓지 말라. 저들이 자주 너희들에게 오거든 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니삼 18 : 22-23)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는 거룩한 의식을 조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쫓아 내지 말고 저를 축복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니삼 18 : 30)

내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축복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친구가 되며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을 너희의 회당이나 예배하는 처소에서 쫓아 내지 말고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인도하라. 혹 저들이 회개하여 참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아온다면 내가 혹 저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것인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니삼 18 : 32)

나는 여러분께서 특히 범법자의

가족이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주도록 촉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할 때는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족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미 상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배신당하고 학대받았으며, 가족 개개인은 그 범법의 더러운 죄가 자신에게도 묻어 있는 것으로 느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 순간보다 더 친구가 필요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배반당한 지 처음 몇 개월보다 더 그들에게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 틈이 더욱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가족의 마음에 그 범법자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만 치료하는 과정을 지연시키며 용서하기가 더욱 어렵도록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힘과 격려와 때로는 재정적, 육체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남겨진 배우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우정의 기둥으로서, 그 가족의 어린 자녀를 위로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종관리 역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나의 현재 임무 중의 일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 비탄에 빠진 자녀에게 친절하도록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세주의 권고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 : 34-35)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딘 엘 라슨 장로
 칩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어떤 종교든지 사업의 거룩한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실험 방식은 주님이 몸소 정하신 방법입니다.”



최 근 몇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 관심있는 몇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서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그가 교회를 세운 방법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복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그의 역할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경전 기사에 관한 우리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서의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견해처럼 그것이 교회 역사의 재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적인 사업의 거룩한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험 방식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실험 방식은

주님께서 몸소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그 역사적인 문서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일컫거나 또는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간에 시간이 흘러도 존속하게 될 그 역사적인 서류의 일시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 집니다. 흔히 역사적으로 관심있는 서류는 기껏해야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동기 등을 회상하거나 깨닫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회상은 흥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회상을 하는 내용의 주인공보다는 그 회상하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실험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존속하며,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이 주님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양의 가죽을 쓰되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6-20)

구세주께서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마 12:24)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구세주의 적들이 구세주의 품위를 떨어뜨림으로써 그의 사업을 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모두 세월이 흘러도 존속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행한 선한 사업에 관한 기록 이외에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성한 본질과 부름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간증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침례받으실 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주님의 선택된 사도들은 또 변형의 산에서 또다시 확인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성 1:17)

“나 주는 하나님이니, 이것들을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주었고 네가 그의 견증자로 나서야 함을 내게 명하였으며

“그러므로 이후에 네가 성임받고 나아가 내 말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 5:2,

6, 10)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 또 네 백성은 배반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교성 122 : 1-3)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가 받은 그러한 신임은 역사적인 유물에 의해서 적절하게 시험받았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야말로 요셉과 그의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평가하기 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 가운데는 그의 업적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포함됩니다. 이런 것은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합쳐도 대체할 수 없는 유형의 열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영원한 원리의 가치는 매일 적용함으로써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시험입니다. 엘마는 그가 물문경에 기록한 부분에서 이러한 시험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앨 32 : 27)

엘마는 이러한 실험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대외 인권 모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심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 왼쪽부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장슨 테리 하우스와 함께 한 앨 톰 페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앨 32 : 2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1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마가 제안한 이 실험 방식을 요셉 스미스가 회복한 복음에 타당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들과 또한 오늘날 세계

전역에 걸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의해서 맺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참된 실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열매에 의한 실험 방식에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고, 요셉 스미스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목표와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구세주께서 산상 수훈을 하실 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축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목적을 위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시험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계획에 일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을 견디고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중요한 면에서 그들의 생활은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빛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햇불로 성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맺은 성약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충만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한 엘마의 불순종하는 선교사 아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그에 관해서 엘마는 이렇게 애통해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나의 아들이, 조랜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 네가 조랜인들에게 끼친 죄가 참으로 크다.”(엘 39:11)

구세주께서는 진리를 알면서 다른 길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복음의 열매를 향유함으로써 우리는 거만하거나 도도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것입니다.

회복된 수많은 기본적인 진리들과 주님의 사업의 참됨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을 성별하며, 또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내에서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상 공정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즉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증언만큼 확실합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내부의 생각이 이 세상의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영원한 서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성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주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규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에서 필요한 영적 및 도덕적인 힘을 키우고 있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여호와 오락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관대하게 처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거나 마음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의 열매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현 시대 생활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의해서거나간에 다른 사람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평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별로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롬 14:10, 12, 13)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를 도구로 하여 주님께서 그의 참된 교회와 영원한 행복과 승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계획을 다시 수립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를 뒤이어서 예언자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주님의 사업을 달성하도록 선택받고,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간증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지고 있는 책임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또 이 사업의 참됨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 주신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마 12:3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평화—참된 원리의 승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평화로운 사람만이 비난과 증상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의 귀한 재산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중요한 말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눈먼 소녀가 어느 혼잡한 기차에서 자기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좀 쉬게”라고 말하고는 손을 뻗어서 그 눈먼 소녀를 자기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아버지가 “누가 너를 안고 있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뇨, 그러나 아빠는 아시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군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랑의 예인가?”라고 하거나 “완전한 신뢰의 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 모든 원리가 감동적으로 합쳐진 것이며, 그것이 소녀에게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동안의 애정, 존중, 관심이 자라면서 그 어린 소녀 마음에 어떤 지식도 초월하는 평강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알았고 신뢰했으므로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의견의 차이와 악과 분쟁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 이러한 큰 은사를 향유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그 소녀가 낯선 사람의 무릎에 앉아서도 자기 아버지가 그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 아버지를 알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눅 24 : 36)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 개인적인 소유물, 개인적인 성취나 행복이 아니라 평강 즉 평화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뢰 및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 어린 눈먼 소녀와 그녀의 지상의 아버지의 관계와 비슷해야 합니다. 슬픔과 비극과 가슴아픈 일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화평스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평강은 두려움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한 가지 축복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하여서 확립됩니다. 참된 개인적인 평강은 영원히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의롭게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반려자에게 진실되지 못하면서 화평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 영속적인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평강의 기반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는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는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평원을 여행한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뒤에 나무를 버려 두고 왔습니다. 그 도시는 무식하고 잘못 알고 악감정을 가진 교회의 적들이 불결하게 만든 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운티풀 성으로부터 평화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화평 속에서 예배할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에 평화와 증오심이 결코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탄핵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조롱하고 또 헐뜯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는 영속적인 화평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증오심으로 살며, 자기의 권한이 닿는 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분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가운데 영속적인 평화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증오와 조소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때까지는 중요한 사람들이 반도록 부여된 그러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증오와 악의는 결코 화평의 느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사 57 : 20-21)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만이 비난과 중상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가르침의 참됨에 대한 간증은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인 화평을 줍니다.

우리 앞에서 거짓 화평의 유혹을 매달고 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욕심이 많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갈 6 : 7-8) 순결을 버리고 성적인 방탕에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평화가 달아납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새로운 성적인 탐닉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욕적인 것을 뿌리고 악마의 행위를 팔러 다닐 뿐입니다. 악한 것은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눈가림을 하든지간에 결국에는 슬픔과 가슴아픈 일을 가져다 주며 내적인 평화를 없애 버릴 것입니다. 결코 평화는 야비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독있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지 마시다. 오히려 의로운 원리의 토양에 평화의 뿌리를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힘있는 진리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 자신밖에는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원리의 승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자립” 랄프 왈도 에머슨 : 수필 및 강연, 뉴욕 : 미 도서관 1983년 282페이지)

평화는 사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마지막 월부금을



관리 감독단, 왼쪽부터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관리 감독인 로버트 디 헤일즈, 제2보좌인 글렌 앨 페이스

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결혼을 하거나 모든 자녀가 학교에 등록을 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막내 자녀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죽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조진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한 신뢰와 신앙과 선의에 기반을 두는 내적인 만족감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하게 닿을 내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일상 생활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함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속적인 화평은 영원한 개인적인 갈구입니다. 평화는 율법을 순종함으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성품과 믿음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에게는 기계 체조를 좋아하는 젊은 손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을 뿐더러, 그가 할 수 있는 재주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 동안 그의 육체는 유연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가 나더러 자기 근육을 만져 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점프하면서 떨어졌는데 (체조 선수는 항상 짐프하고 뛰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그의 부모와 조부모와 교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인생의 큰 진리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성품이 연약해지는 것이 근육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우려해야 될 사실입니다. 보디 빌딩이나 신체 단련은 가치있는 목표이지만 참된 내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균형을 지켜야 하며, 지혜와 신장이 커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총애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눅 2 : 52 참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자신의 사랑 등과 같은 영원히 확고한

기초 위에 쌓지 않는 한 어떠한 평화도 영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의 다리를 놓아 줄 수 있고, 의심과 증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랑은 어떤 이웃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서나 지역 사회에서나 조그마한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고위 정부 관리는 이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외국에 살면서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화를 보장하는 조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믿으면서 협상한 다음, 자기가 수백만의 동포가 소망하고 기도해 왔던 것을 달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협상했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권력에 굽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상할 따름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외적인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더욱더 필요 불가결하게 됩니다. 평화를 외적인 근원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조지 시 마살은 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정열과 사람들의 편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는 참된 원리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인내심의 부족은 그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긴급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선조가 훌륭하고 장하게 수호한 원칙들 곧 우리 나라의 헌법을 영원토록 확립케 하옵소서.”(교성 109 : 54) 그 존경받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한 국가들이 정의와 자유 속에서 수많은 대저택의 집을 지을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자유 국가이든 박해받는 국가이든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교성 88 : 125)

언방 예산 적자와 폭동과 테러 행위를 줄이는 문제와 군비 경쟁 및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문제, 세계 개혁을 위한 야심적인 투쟁에서 이겨야 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롭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롭게 가르치고 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또 그런 방식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국가로서, 또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지상에서의 평화와 모든 인간에 대한 호의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선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눅 2 : 14 참조) 영속적인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전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교성 59 : 23)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정부는 영속적인 평화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학교의 주목적은 언제나 성품을 개발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발전시키고, 가정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바로 진정한 평화 즉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평화도 비록 일시적으로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영원한 원리의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영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며,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만 모든 인류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또 걸으신 길을 따르기 전에는 영속적인 평화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나 자신의 내부에 화평이 없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창하고 촉진시키는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점점 많아지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태도와 품행이 혼란한 세계에서 평화의 척도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 불안한 시대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평화를 지님으로써 이 세상의 영향과 인간의 비판이 하나님의 진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직과 존경과 인품과 신앙과 인내의 참된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평화는 우리의 귀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올바른 원리의 승리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낯선 사람의 무릎에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의 원리를 알고 그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운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폭풍의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선택한 여정을 이따금씩 방해할 것입니다. 복음의 법칙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데려다 주고 평화로운 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별히 증거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매스웰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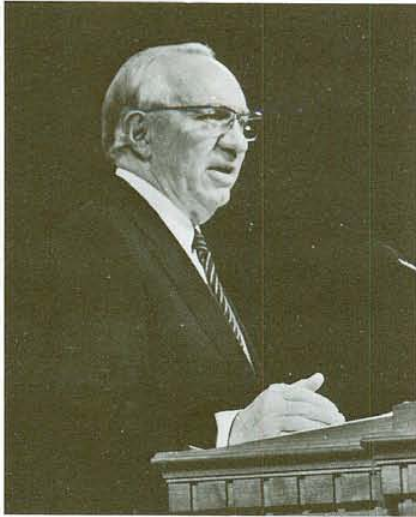


엠 러셀 벨라드 이세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모든 것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제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그리고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요,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이신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에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교회의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의 지역 회장으로 봉사해 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곧 그곳으로 떠나실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분보다 신앙심이 깊고, 더 그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파이안스 장로와 함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봉사하셨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를 해임합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아 충실히 봉사하신 이 형제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칼로스 이 애시,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매리온 디 행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로버트 엘 백맨 장로를 지지할 것과 관리 감독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그리고 교회의 모든 본부 역원들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식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금식을 통하여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며, 금식일은 우리가 더 높은 영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제쳐 두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연차 대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속 와드에서 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금식의 원리는 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켜져 내려 왔지만, 이런 점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으로서는 고대에 어떤 상황하에서 금식이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기에 슬픔이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실행한 것 같은 그러한 문구를 찾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하고 가슴깊이 느끼는 슬픔과 애통해 하는 때와 강한 감정이 북받쳐 오른 때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문헌상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특별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금식이 이런 경우입니다. (출 34 : 28, 왕상 19 : 8 참조)

이스라엘인들이 추방당하기 이전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필요했던 금식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인이 전체적으로 같이 금식했던 기록은 극히 드뭅니다. (삼상 31 : 13, 삼하 1 : 12 참조) 전쟁이나 싸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체적인 금식도 있었습니다. (삿 20 : 26; 삼하 14 : 24; 대하 20 : 3) 모세가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도 금식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록에서는 어떤 특정한 금식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한 이후에는 전체 및 개인적인 금식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마대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면서 금식한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금식은 연례 속죄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 사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일의 이틀 즉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는데,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입니다.

기독교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유대인의 극단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물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금식의 본질이나 빈도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상 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마 6 : 16) 이것은 금식을 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셨습니다. (마 4 : 2 참조)

그리스도 시대의 초기 교회에서 제정된 많은 것들이 마지막 사도가 죽음을 당한 후에는 변화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문제였는데 마침내는 이것이 종교적인 규칙과 규정이 되어서 모든 성직자가 따르도록 되었으며, 불순종할 때는 파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식민 개척자들이 이 나라의 동쪽 해변에 정착했을 때는 그들이 떠나 온 교회의 전통적인 금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금식일을 제정했으며, 그 가운데 많은 것이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일 가운데 일부는 입법 기구나 공무원들의 저지를 받았습니니다.

이 교회의 초기 회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뉴잉글랜드 지방으로부터 왔거나 식민 개척자들의 종교 문화의 배경을 지녔으므로 금식은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교통의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금식하므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마 6 : 17-18 참조) 그러나 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 계시는 금식에 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일년 반이 지났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한 계시를 받았으며, 그 계시에서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과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보충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계시의 일부입니다.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교성 59 : 13-14)

이것은 구약 시대의 말을 되풀이한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원리를 이 경륜의 시대에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주님으로부터 이 주제에 관해서 좀더 분명한 계시가 왔으며, 그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이다.”(교성 88 : 76)

이 이전에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에서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이다.”라고 말한 것은 금식 모임의 설정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36년 커틀랜드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분명히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현대 계시에서 금식에 관해서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커틀랜드 성전을 짓는 것과 헌납 기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기도의 집, 금식의 집”으로 언급했습니다.(교성 88 : 119; 95 : 7; 16; 109 : 8, 16 참조) 물론경에는 금식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기록들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경전은 우리에게 별로 많이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교회에서 금식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을 채택했는지 모르지만 1836년에 매달 첫번째 목요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금식 모임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가난한 자에게 현금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30년 이상 지난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올드 태버내클에서 브리감 영이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이날의 기원을 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십일조를 내기 전에는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에이 디어더어 터틀,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가난한 사람은 현금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커틀랜드에 와서 요셉에게 도움을 구했고, 요셉은 금식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금식일이 결정됐읍니다. 금식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달 한번씩 지키게 되어 있었으며, 그날 금식하지 않았으면 먹었을 음식—밀가루든 버터든 육류든 과일이든 기타 어떤 것이든 그것을 금식 모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목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갖다 주게 되어 있었읍니다.”(설교집 12 : 115)

비록 브리감 영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지켰다는 결정은 일체 없읍니다.

나부에서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가끔 금식을 했읍니다만 정기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았읍니다. 1845년이 지나서야 나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금식을 했읍니다. 교회 정사에서 우리는 브리감 영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5일 목요일—금식일. 모든 일을 중단했다. 여러 와드에서 예배를 했으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감독에게 현금을 했다. 추수 때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만큼 현금이 되었다.”(교회 정사 7 : 411)

나부로부터 이주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특별 금식일을 가졌으며,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이후에는 매달 첫째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 정기적으로 금식일이 제정되었는가를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1855년과 1856년의 어려운 시기에는 오랜 가뭄과 기근, 유난히 추운 겨울, 매뚜기 떼의 황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읍니다.

그것에 관해서 브리감 에이치 로보츠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말일성도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양의 구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식일이 존재하게 됐읍니다. 주님의 종들이 매달 첫째 목요일을 금식일로 제정했으며, 이것은 이러한 희생으로 절약하게 된 것을 가지고 도움이 없으면 궁핍한 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은

확립된 제도가 됐습니다.”(대회 보고, 1913년 4월, 120페이지)

이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부금으로 원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금식일 및 금식 현금으로 알려진 현금과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 현금은 매달 금식 모임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기 시절 즉 1896년에 성도들이 이 산의 계곡으로 온 이래로 매달 첫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일을 지켰으며, 헌물을 가지고 와서 대개 헌물을 주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적은 초기에는 목요일에 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장인이 금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거나, 상인이 가게를 닫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고, 기타 평일에 금식을 함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가 금식 모임을 매달 첫째 일요일에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1896년 12월 첫째 주일이 이렇게 변경하도록

정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세기 동안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인 관행으로서 매달 첫째 주일을 금식일로 지켜 오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으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정의내린 것처럼 금식일로 이야기하는 그날에 생각하는 금식은 “24시간 동안 음식이나 물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금식일 전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한 후부터 금식일에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일성도 사이에서 금식을 정하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일성도들은 금식함으로써 절약하게 된 음식을 금식일에 감독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과 축복으로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는 음식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부유할 경우에는 후하게 현금함으로써 그 돈을 두었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합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12월, 148페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면 부유한 것이 아닙니까?

금식을 통하여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며, 금식일은 우리가 더 높은 영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제쳐 두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날 금식함으로써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필요성을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성도의 벗/1986년 1월호

복음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분명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필멸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 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분명히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멸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먼 친척이 죽어서 백만불을 남겨 주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별한 종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와 또 예멘 동산에서 있었던 원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것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를 찾아 보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니파이삼서 27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나는 여러분과 나, 즉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지신 목적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께서는 계속해서 왜 이곳에 보내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14절)

예수님께서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가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 42)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구하시지는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린 나이에 나의 부친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나의 부친께서는 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나보다 훨씬 현명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열 일곱 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보다 더 약아졌지만 나중에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는 아직 소의 젖을 짤만큼 크지 못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충분히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일곱 살이었으며, 소 젖을 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입증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는 네가 젖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너에게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십년 동안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여덟 마리에서 열두 마리까지 소 젖을 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소 젖을 짜고 싶어하지 않을 만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아버지께 “나는 소 젖을 짜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괜찮다. 네가 그것을 하기만 한다면 꼭 원해야 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성전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 또는 “십일조를 내는 것은 어렵다.” 또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요나가 선교 사업을 행하길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그에게 데려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람들을 그들에게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의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 지상으로

보내진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전 6:20 참조)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와
개인적인 죄를 다 포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법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영과 육신의
분리인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그는 원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는 부활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죄의
대가를 치루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돌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어느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과 수단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구속주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대속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다른 것으로 죄값을 갚을 길
없으니.” (찬송가, 156장)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실현시키신 것처럼 인간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들어 올려질 것 즉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사람은 부활할 때도 역시
부정한 상태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로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도록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에는 충만한 기쁨 즉
승영을 받거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 것이나 죽은 후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여기에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엡 5:15 참조) 우리는 모두
태어났으며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의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엡 34:32,34)

우리는 죽을 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약이나 나쁜 버릇이나 악한
욕망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이 우리를 따라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오게 되는 회개와 용서는
필멸의 상태인 이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전 12:13

참조) 사실상 필멸의 상태라는 것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원과 비교할 때는 손가락을
까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멸의 상태가 이렇게 짧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끝나리라는 것을 안다면
바이즈(죄는 기계) 안에 발을 넣고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는
바로 구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참으로 지상의 시험 기간은
영원과 비교해 볼 때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언자 요셉에게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내 고난은
잠깐에 지나지 않으니 네가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이 영원히 네 곁에
서시리라. (교성 121:7-8; 122:4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달린 것이매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리라.”(니삼 27 : 15)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영감을 주시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 : 13)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 : 29)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로는 자신을 승영에 도달하게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베나민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모 2 : 21)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빌립보 4 : 13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니파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이의 권세로 구하시는 이의 공적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니이 31 : 19) 모로나이도 교회 사람들이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 하고 있다고 말할 때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모로 6 : 4)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대속의 희생이 우리 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그 의로운 공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나는 회개에 덧붙여서 순종과 용서를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 없다 할 것이나.”(니삼 27 : 16)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날에 죄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루시는 것이 없다면, 또

우리가 자신의 신앙과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서 그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배어 불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니삼 27 : 17) 하나님의 공의는 저 뒷쪽으로 돌려 놓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주의를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비를 원하며, 가능하기만 하면 공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가 공의를 도적질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의는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자비가 공의를 도적질할 수는 없으나 단 한 가지 경우에만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앰울레크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보라, 모든 율법의 의미는 이러하니, 작은 말씀들이 모두 날날이 마지막이 될 큰 회생을 의미함이라.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최대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시리라.

“이렇게 하여 아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리니, 이 마지막 회생은 곧 공의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능히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려는 데 뜻이 있느니라.

“자비로 인하여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며 저들이 안전히 보호될지나,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리라.”(앨 34 : 14-16)

그러므로 자비가 공의를 도적질할 수는 없으며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회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를 행하여 주신

말씀을 모두 이루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느니라.”(니삼 27 : 1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니삼 27 : 19)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행해지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라.”(니삼 27 : 19)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의 복음 말씀을 끝내십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니삼 27 : 20-21)

나는 베나민왕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모 3 : 17)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부름을 받고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들 각자는 가정 복음 교사이건 스테이크 부장이건 혹은 총관리 역원이건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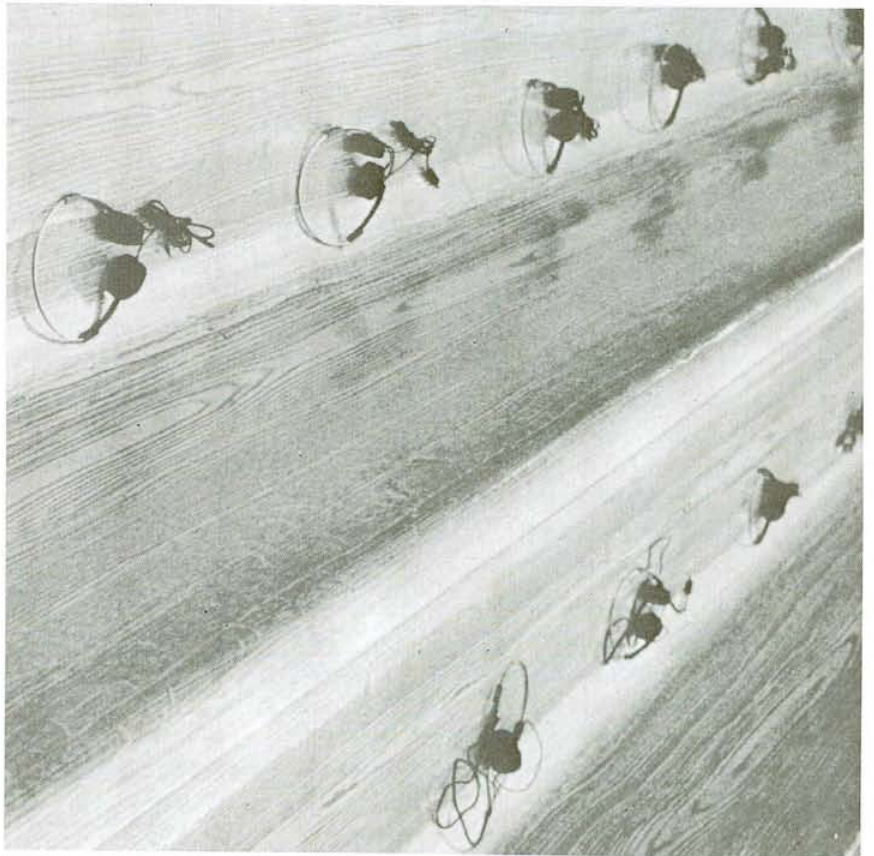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형제님들의 신뢰에 깊이 겸손해지며,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지상의 이곳 저곳에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냈던 지난 9년 반 동안에 이 교회가 의롭고 선하며, 헌신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가정 복음 교사이건 스테이크 부장이건 혹은 총관리 역원이건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배웁니다.

나는 부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9년 반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 보내진 지난 임무를 통해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있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고 간증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인도하시며,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가까이 제십니다.

나는 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세와 내세 사이에 가리워진 장막이 좀더 얇아질 수 있음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것을 바치신 훌륭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던지간에 나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풍만한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태버넌클의 특별석, 약 26개국 언어로 동시에 통역되는 대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선택된 도구인 요셉 스미스

렉스 시 리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전세부터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를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위성을 통해서 보고 있거나, 혹은 가정에서 보고 있거나, 또는 후에 비디오투를 통해서 시청하시거나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훌륭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여기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부름들로 온몸이 떨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형제들을 지지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보라, 저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내 제자들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교성 6:32)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에서 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분명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요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전은 단지 두 구절로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음성이니,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 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도다.”(교성 76:40-41)

오늘날 그분은 지상에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이 회복될 때에 쓰여질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부터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를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애급으로 팔려 갔던 요셉은 그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증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선전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보라 그 선전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것임에”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니이 3:6,14,15)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군대를 보내거나 힘센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급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끌어 낼 때가 되었을 때도 주님은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레위 사람의 가정에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훗날 모세로 알려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입법자가 되었으며, 애급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구해 났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초라한 마굿간에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세계가 그분의 짧은 생애 동안 행하신 성역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분은 아직도 현재와 내세에서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그분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자, 그분은 다시 의로운 부모가 있는 가정에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1805년 12월 23일, 한 어린 아기가 요셉 스미스와 루이 맥 스미스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 에어젤 스미스는 요셉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손 중에 하나가 종교적 신념의 세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을 전파하리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 역사. 물론 문학의 고전들,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판사, 1979, 25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늘의 대회에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받았습니다. 나도 그 회의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성임된 줄을 압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363페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오늘날 복음의 회복에 필요한 권세와 권능의 열쇠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 때문에 그가 태어난 지역과 생활하고 봉사했던 지역, 그리고 순교당했던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버몬트 남부 로얄톤 근처에는 높이 11.5미터, 무게 50톤의 거대한 대리석의 탑이(한 조각의 대리석 기둥은 30센티미터로서 그의 인생의 한 해를 의미함) 세워져 그가 태어난 장소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확실히 신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은 나에게 흥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겨울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웠으며, 거의 수확할 것이 없어서 요셉 스미스의 가족은 서쪽으로 이사하여 위에 있는 주인 뉴욕의 팔마이라 만체스터로 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여건이 좋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이사로 인해서 요셉 스미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역이 될 구모라 언덕 부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는 가운데 야고보서에서 다음 글들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그가 기도하려 갔던 신성한 숲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그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제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9)

이 숲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의 느낌과 영적인 분위기는 다릅니다. 성스러운 경의감이 그 근처에 스며 있습니다.

그 신성한 숲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구모라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는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였던 모로나이 천사가 주님께서서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을 다룬 기록을 요약해 놓은 금판을 돌 상자에 담아 묻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써 요셉 스미스는 이 판을 번역했으며, 몰몬경이라고 알려진 신성한 책을 발행했는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이 책은 뉴욕주의 팔마이라에서 이 비 그랜딘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그랜딘의 건물은 몰몬경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문자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몰몬경은 70여 국어로 출판되어 지상의 73퍼센트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된 신성한 기록입니다. 계시에 의해 주어진 서문에는 이 책이 갖고 있는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하며, 또한 그분의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에게 몰몬경은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교회 정사 4:461)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를 위하여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또 그곳에서 나의 율법을 너희에게 주리니,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을 받으리라.”(교성 38:32)

나는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예언자인 요셉과 엠마가 탄 말이 끄는 마차가 휘트니의 상점 앞에 멈췄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마차에서 내려 상점 주인인 뉴웰 케이 휘트니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뉴웰 케이 휘트니씨!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제가 이곳에 오도록 간구하였지요.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교회 정사 1:146)

휘트니 상점의 위층 방은 첫 예언자

학교의 모임 장소가 되었으며,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많은 계시가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성도들의 손에 의하여 건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위대한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셉 자신도 채석장에서 일했습니다. 돌을 채취하던 곳에서는 아직도 구멍 뚫린 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번째 성전을 헌납한 후에, 참으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홍벽 위에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한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힘을 다하여 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지은 너희 형제와 내 백성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라.

“보라, 나는 이 집을 기쁘게 받아들여리니,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나는 자비를 베풀어 이 집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널리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쏟아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다. 아멘.”(교서 110 : 1-4, 6-7, 10)

이 시현이 끝나자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더없이 귀중한 신권의 열쇠를 맡기기 위하여 모세와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가 요셉과 올리버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은 그토록 큰 희생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 그들의 성전을 두고 오하이오주를 떠나도록 강요를

받아 미주리주로 갔으나 다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시시피 강의 동쪽 기슭인 일리노이주 콰머스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곳에서 신앙을 갖고 열심히 일하여 아름다운 도시 나부를 건설하였으며, 또 다른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부는 큰 주 일리노이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구적인 평안을 찾지 못하고 나부와 성전을 남겨 둔 채 강제로 떠나야 했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황막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버몬트에서 태어난 이 어린 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는 물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열쇠와 권능을 받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일리노이 주지사의 거짓 약속 아래, 그들은 스스로 법의 보호하에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전혀 보호받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 운명적인 삶을 끝냈습니다. 순교자로서, 그들은 그들의 간증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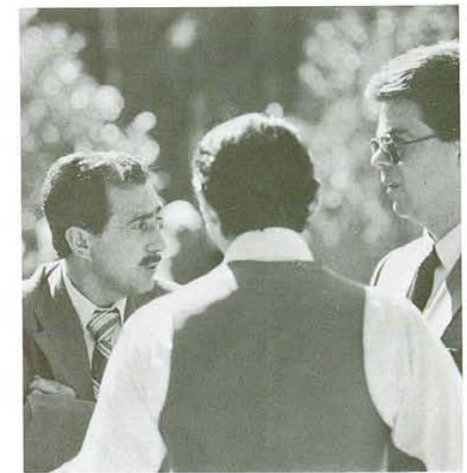
일리노이 주지사이며 요셉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토마스 비 포드는 요셉이 순교당한 후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인용하겠습니다.) :

“현대에 가장 성공적인 사기꾼,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쓰러졌다.”(교서 정사 7 : 35)

이번 여름에 우리는 일리노이주에 세워진 두번째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여 이 아름다운 시카고 성전의 오픈 하우스에 10만이 넘는 우리의 친구들이 참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 스미스가 말한 다음의 예언적인 말들이 이 사업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신성하지 못한 사람의 손이 발전하는 주님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 박해가 일어나 격심해지고, 군대가 집합되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륙, 모든 나라 곳곳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컷전에 울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숭고하며 자유롭게 계속 전파될 것이다.”(교회 정사 4 : 540)

이 모든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유일한 참된 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필연적으로 (또 적절하게) ‘참된 교회’ 교리는 복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때는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시현보다 그러한 토론을 시작할 더 나은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 있는 자의 인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부름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신앙개조 제5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임무를 부여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 회원으로 지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나는 벨라드 장로와 선교 사업에 있어서 매일 함께 일했던 브루스 알 맥콩기 형제님께서 오늘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세상이 이 거룩한 신권 체제의 중요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총관리 역원 형제들과 함께 벨라드 형제님이 이 거룩한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또 문자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과 똑같은 직분과 똑같은 부름과 주님과 똑같은 신성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스펜서, 매리온, 고든, 에즈라, 하워드, 토마스 등과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또 이 사업이 전진하도록 뒷받침하는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이러한 거룩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몇 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어떤 것을 거부할 때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 이름으로 말하게”(교성 1:20)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역을 베풀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까지도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되다는 영적인 확신 이외에는 별로 더 가진 것 없이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른 교회의 전문적인 성직자들과 비교할 때 아마추어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교리가 특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계시된 대로 “온 땅 위의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라는 우리의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원리는 때때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구도자에게는 저항감과 배척감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재님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는 어떤 것도 함께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기의 말일성도들은 이 교리를 고수함으로써 혹독한 박해를 받았읍니다. 그들은 수많은 간교한 이야기의 과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양보해서 이 교리를 제쳐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천 명을 만나서 걸러냅니다. 우리의 수확은 상당한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삭줍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경전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성음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렘 3:14)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의 여러 가지 증거 즉 행복한 가족 생활, 절제하는 생활 등과 같은 것에만 엄격하게 한정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또는 가장 좋은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실 유일한이란 말은 복음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끄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외교적인 또는 인기라는 것에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일부 사람들이 돌아설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사실은 너무나 예의바른데도 전방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못됩니다.

만일 우리의 주목적이 받아들여지고 승인받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정말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이차 대전시에 조종사로서 훈련받을 때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생각합니다. 공군 사관생도들이 지상 훈련을 위해서 대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풀맨에 있는 와싱턴 주립 대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덟 사람이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첫날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동부에서 온 어떤 부유층 가족 출신인 사람이 맨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녔던 사립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년 여름 때면 그의 가족들이 “대륙으로 갔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이 유럽으로 여행했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한 사람의 아버지는 오하이오 주지사였으며, 당시의 대통령 내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어렸으며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다녔으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나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유타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나는 열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 출신입니다. 나의 부친은 기술자이며, 조그만 자동차 수리소를 운영하십니다.”

나는 증조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입하시고 개척자들과 함께 서부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놀람게도 또한 다행스럽게도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낮은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부자이거나 대성한 사람 또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도 불편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낀 적도 없었고, 교회의 교리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변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필연적으로 또 적절하게 “참된 교회” 교리는 복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회 광경

토론할 때는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시헌보다 그러한 토론을 시작할 더 나은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8) 분명히 그는 어딘가에서 “옳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시만 해주면 그는 찾는 것을 마치고 그 교회에 가입해서 그 교회에서 선언하는 신조대로 생활하며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8)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으며……”(요셉 스미스서 2:19-20)

이것은 매우 솔직한 말입니다. 그가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계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뒷받침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일 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교리와 성약 일련이 계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물론경이 주어진 것은 그의 종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함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교성 1: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다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1)

우리는 기독교 및 많은 다른 교회에 고상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슬픈 일이지만, 소위 말일성도들 중에도 성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침례받지 않았으며 또 집합적으로 심판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영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약과 의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원리에 관해서 양보를 하면 회복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참되며,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그 반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 나는 핑클리 부대관장님과 함께 동부로부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평행의 길이 많이 있다는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로 나은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들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교회에 속하든지 다른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 못지 않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 기독교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그들의 평행선 철학을 배척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거나 대속을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막 16:16)

길이 하나로 모여진다는 그러한 생각은 매우 솔깃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그러한 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길을 통하여서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안하든, 시험에 합격하든 않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되고 자기가 택한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변호사, 의사, 기사 학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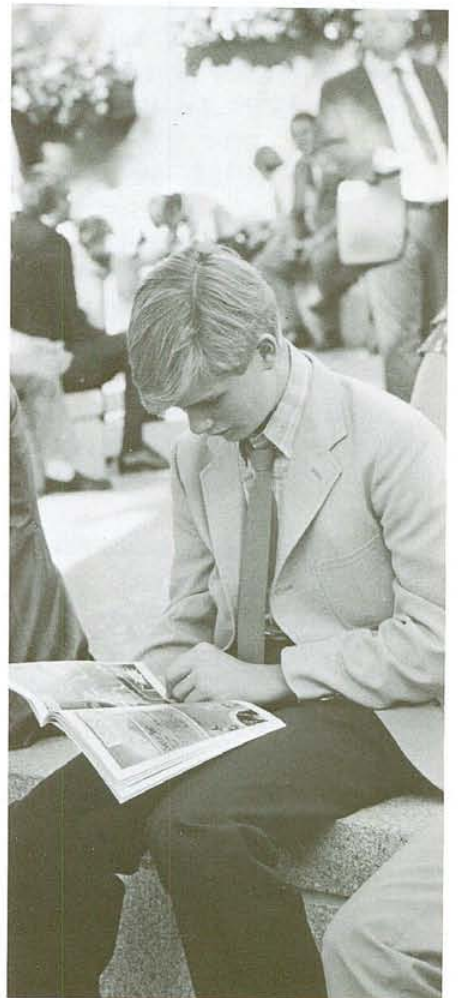
누구도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수술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교과 과정이 있듯이 필수적인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규정된 합당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고 또 거기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교회가 똑같다는 그러한 말이 사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라고 가르치고 있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엡 4:5,13) 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 3:21)

우리는 유일한 참된 교회의 교리를 조작하거나 만들어 내지는 않았읍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께님께 보이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비판이 가해치든지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교회는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78:14)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반면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수행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평범한 관행이 된 침례를 교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의 성직자나 평의회 협회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교파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단합하여야 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덧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에서 예언한 혼란에 직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의 이 근본적인 교리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교성 78) 세상의 인기나 승인은 아마도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읍니다. 당시에 교회 회원 한

사람이 국가 직책을 맡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것이 굉장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읍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물론 나는 복음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그 모임이 견해가 일치된 가운데 끝나기를 원했읍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리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천사와 금관과 회복이 아무리 터무니 없는 말같이 생각될지라도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읍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안정이 안되고 혼란한 상태로 그 모임을 끝내고 오게 된다면, 그것은 나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하게 된다면 그들이 혼란한 대로 놔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언한 대로였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와 하면서 누가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듯이 냉소적인 비웃음까지 띠며 머리를 흔들었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평화로왔읍니다. 나는 그 진리를 가르쳤으며, 그들은 자기 좋은대로 그것을 받아들여거나 거부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항상 있으며, 사실 그럴 때가 흔히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지한 기도를 드리며, “모든 교회 가운데 어느 것이 참되며 내가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와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의견에 동의하는가에 대해 점차 관심이 덜 쓰이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이해를 한다면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든 부정하든 자신이 좋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이러한 입장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신성한 원리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무력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확신 이외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간증하면 언젠가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간증으로 꽃피울 하나의 씨앗을 뿌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이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가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겸손하고 충실하다면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없이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지상에 예언자와 사도들이 있으며, 모든 인류가 복음의 진리를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한다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이 사업을 추진시킵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제 우리는 좀더 온전하게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힝 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155차 반연차 대회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동안 풍성하고 보람있는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교화되고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훌륭한 음악에 의해서 고양되었습니다. 기도는 영감을 받고 또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총회의 네 모임을 모두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말씀은 하실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늘날 아직도 주님의 예언자로 계심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복음대로 생활하고, 모범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겠다는 좀더 굳건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니파이가 그의 형들과 함께

조상의 기록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한 훌륭한 말은 우리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며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자주 주님의 여러 계명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언자들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강화된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훈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좀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은 주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모자라는 일을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성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6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총관리 역원 형제들이 오늘 이와 같은 대회에서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읽기만 했던 그런 때보다는 이 선교부장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줄 것입니다. 다음 2-3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할 그러한 사람들은 내년 7월 이전에는 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부인과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선교 지역으로 나가도록 부름을 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응답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물론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 부인은 자녀를 한테 불러 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와 친구를 생각하면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무릎꿇고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일어설 때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도 함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주 뜻대로 되오리다.”(찬송가, 164장)

사실 나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응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탁할 때 주저하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한 응답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선교부장과 그 가족의 경우에 그들이 선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보다도 집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 지역을 떠날 때 눈물을 더 많이 흘리리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로부터 이 세상의 추수하는 밭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도록 부름받는 많은 사람들과 또 성전장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도 부름을 거절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몇 사람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그러한 부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잊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 안되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교회 초기에는 희생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개척자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과 생명까지도 제단에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현남의 정신이 어떻게 되었죠?”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이러한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충실한 말일성도에게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나 크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이 먼 땅에서 어떤 책임을 수행하도록 추천받았습니다. 나는 그의 합당성과 능력을 점검한 다음 그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가 언제 그의 직장에서부터 정년 퇴직하게 될 지 물었습니다. 그는 약 5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 떠나면 정년 퇴직의 연금과 수당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그와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그들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 자녀에게 그 동안 너무나 선하시고 관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기꺼이 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 크게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그러한 희생을 하거나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도록 부탁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그것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온전하게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지혜의 말씀에 관해서 이것은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교성 89: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이러한 항목이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되어 있는가 하는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또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 계시의 정신에 따라서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큼이나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충실하게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자신에게 축복이 쏟아져 내렸다고 간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계명과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헌신과 걱정으로 쌓인 시기에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니파이를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 강하시니.”(니일 4:1)

한 달에 한번씩 두끼 식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내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원리를 지키으로써 육체적인 유익이 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도 주어집니다. 금식일과 금식 헌물에 대한 우리의 프로그램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훌륭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하루 단식일을 주창하도록 하는 제안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실시하기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헌납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조금도 고통받지 않으면서 수천 명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세주의 희생의 상징물을 취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신성한 의무를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권고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훌륭한 이웃과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그것을 잘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지로서 서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내에서의 형제 자매를 초월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핍이나 문제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오심과 악감정과 인간이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귀는 모든 사람에 대해 형제애를 키우도록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좀더 자비심을 갖고,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과 좀더 이해를 하도록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좀더 기꺼이 용서해 주도록 합니다. 세계를 자주 휩쓰는 그러한 증오에 우리의 증오심을 보태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을 보여 줍시다.

한 마디로, 우리가 이름을 받드는 주님의 복음에 좀더 가까이 생활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시켜 나갑니다. 우리 생활이 남들이 본받을 만큼 합당하게 되도록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대회를 마치고 마무리지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임종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찌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나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왕상 2:2-4)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 사업은 결코 실패하거나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의 이름을 떠받드는 바로 그분이 주신 그 종착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미소를 보내시며 우리는 그분을 뵈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위대한 축복이 주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교회의 여성에게 주는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사와 무한한 기능성이
유산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큰
짐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비참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깊은 비탄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가
살아 오신 생애는 또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제 그분은 연로하여
노쇠함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 위대한 온정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름니 부대관장님은 바로 일주 전에
88회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분 또한
파란 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역시 나는 교회의 대관장단, 총관리
역원과 지도자를 대신하여 어느 곳에
있든 노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모든 말일성도
여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 평화와 힘과 사랑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머리를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너무 깊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을 위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법적으로 남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여성에게 금지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확장됨에 따라 몇몇
말일성도 여성들은 왜 신권을 소유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오직 주님만이 계시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대답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문제를 놓고 왈가 왈부하는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인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위대하고 긍정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며, 그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 열 가지와 그에 부합되는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1. 여러분은 선을 행할 은사와
기회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고, 위로해 주며, 지도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삶을 낭비하는 소년 소녀가
많습니다.

요양소에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과 위로의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 외치는 노인과 불구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함께 있어
주어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갖게 해
주는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 시달리는 병자와 죽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고 그들에게 해주는 따뜻한 한
마디의 말은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감정을 잊게 해줄 것입니다.

남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크리미아로
가서 부상병을 간호해 준 것은 나약한
영국 소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으며, 그녀의 노력으로
위대한 국제 적십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공포와 균형은
이루기 위해 평화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국가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단합하여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면 우리의
문명을 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 질병, 기근 그리고 수백만의
죽음을 면케 하는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의지가 결성되리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 10:38)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보다 적게 일할 수
있습니까?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낙담한 나의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것이며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교회사 4 : 567)

2. 기도. 여기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딸들 또한 사랑하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병자 축복에 관한 야고보의 말씀은 흥미있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약 5 : 14-15)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름을 바르고 축복하는 것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완전한 기대를 갖고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성을 위한 모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깨우침을 받기 위해 모든 성도가 모이는 성찬식에서 기도하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큰 모임에서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큰 특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모임의 개회 기도를 해주신 페레제지아 자매님의 아름답고 감명적인 기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기도의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교성 88 : 77-78)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 : 118)

내가 어린 소년 시절 러버티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지냈을 때,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의 장모님으로 사라 맥도날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그분의 헌신적인 지혜와 독특한 유모어, 놀라운 지식, 경전에 대한 이해, 이 교회 회원을 위한 큰 희생에서 오는 굳건한 간증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요, 책임이요, 기회입니다. 신앙과 확신과 연구를 통한 지식으로 복음 가르치는 헌신적인 교사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원은 별로 없습니다.

4. 여러분은 관리할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825,000명의 회원을 가진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영자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약 300,000명의 청녀를 관리하는 캡 자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전세계에 있는 1,682,000명의 회원을 가진 상호부조회를 관리하는 윈더 자매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 한 분이 우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세 자매님들을 소개했습니다. 윈더 자매님은 1,600,000명이 넘는 여성을 관리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물론 여성들은 지배나 받고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자매님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이분이 바로 1,600,000명 이상의 여성을 관리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이 자매님들에게는 보좌가 있습니다.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드에는 동일한 직책의

역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책임을 맡고 있으며, 광대한 자원과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행인들입니다.

윈더와 캡 자매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립 대학인 브리검 영 대학의 이사회의 임원입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교육 기구의 회원으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어느 총관리 역원의 견해 못지 않게 큰 비중으로 수행됩니다. 윈더 자매님과 그의 보좌들은 교회 복지 위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복지 활동을 관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단체입니다. 영 자매님은 전국 유년대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성으로서 이 교회에서 막중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공헌과 놀라운 지혜에 나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5. 여러분도 예언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미리암은 여 선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7-18)

많은 여성들이 특별한 직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견 지명까지 가지고 있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제시자 요한은 매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 19:10) 세상의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예수에 대한 간증을 키울 기회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은사입니다.

6.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를 제외하고 현재 봉사하고 있는 자매 선교사의 수는 5,872명입니다. 대부분 이들 자매들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매 선교사들이 장로들보다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하는 선교부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선교부장은 내게, 아마 우스갯 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구도자를 찾아서 가르치는 자매 선교사가 네 팀만 있다면 장로들 두 명은 침례주는 일에만 전담시킬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형제는 열 아홉이면 선교사로 부름받는데 왜 자매는 스물 한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훌륭한 봉사과 업적을 알고 감사드리지만, 선교 지역에 장로의 수만큼 자매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지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더우기 우리는 행복한 결혼을 청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이 선교사로 나가는 데 시간이 지연된다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합당성에 따라 선교사로 나갈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위해 복음 선교사로 떠나든 지역에서 스테이크나 워드 선교사로 봉사하든 권능과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7. 여성은 성전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남자들에게 훌륭한 것처럼 여자들에게도 훌륭한 것입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청남이나 청녀들이 성전에 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이생과 영원한 생애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합당한 여성은 성전 엔다우먼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결혼한 여성에게는 현세와 영원을 위해, 다른 어떤 형태의

결혼으로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상, 주님의 집에서 행한 결혼만이 서로가 그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조건 아래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약속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자없이 남자만 승영할 수 없으며 남자없이 여자만 승영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11 참조)

8.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을 위해 대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행하는 이 사업은 남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의 사업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성을 높여 주는 일입니다.

더우기 여성은 성전의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전장이 있듯이 성전 메이트론도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신성한 의식 사업을 행하는 데 많은 사람이 그녀를 도와야 합니다.

9.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특권인 모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보다 기이한 기적은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엡 6:4) 기르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고통, 가족을 위한 염려와 봉사가 없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좌절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그와 동반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남성도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결혼을 안하신 분이나 이 세상에서 결혼을 안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이 있음을 압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회의 성인 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수가 거의 삼분의 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축복은 교회 여성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되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의 일이 많고, 짐이 무겁고, 이 복잡한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심각하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 올 수 없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깊고 달콤한 감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부모로 홀로 되신 분에게, 나는 여러분의 짐이 특별히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여러분이 두루 갖추도록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는 교회의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돕겠습니다.

내 아내의 할머니가 결혼 초에 맨타이에 건축 중이던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남편을 따라 그곳에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 남편은 큰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0년을 혼자 일하고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험난했지만, 큰 만족감을 얻고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어 보았습니다.

나는 미혼 여성 가운데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 수정으로 자녀를 얻을 생각도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강경하게 저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되어 탄생한 자녀는 한 부모에게 인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원한 가족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10. 나는 여러분이 지닌 열번째의 특권과 기회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게 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정신과 기술을 연마하고 재능을 쌓게 해주는 기회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여성에게 과학을 공부하고 습득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교성 84:46 참조) 결혼과 가족의 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되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안정감과 성취감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문명 사회의 본질인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음악이 하나님을 생각해 하며, 위대한 예술 속에 무엇인가 하늘의 요소가 있음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육은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재능을 단련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신성한 계획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남성에 비해 결코 덜 중요하거나 덜 위대하거나 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전 11:11)

여러분의 훌륭한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소위 “권리” 라는 것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책임과 기회에 관해 생각하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이한 은사와 무한한 가능성이 유산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이를 느끼는 것은 차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임무 지명에서 오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개발시킴으로써 오는 만족감과 더불어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요한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내게 가까이 오라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경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찾고, 기도로 그분께 구하며, 손뼉을 통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를 인도할 것이며.”(나이 21:6)

여러분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소박한 신앙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느끼실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교성 88:63)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자는 그분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88:63)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경전에 있는 이같은 지시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따라야 할 단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상고하고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수년 전 나는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의 가느다란 지침이 어둠 속에서 꼭조를 붙잡아 대륙과 바다 건너로 보낼 수 있다면,

바이올린의 맑은 음조가 산을 넘어 도시의 소음을 뚫고 전파된다면,

연푸른 하늘로부터 진홍색의 장미와 같은 노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 왜 필멸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일까?

(에델 로믹 풀러, “증거”, 종교시의 걸작선, 존 달튼 모리스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러더스, 1948년, 407페이지)

구세주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교성 88:64)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더욱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교성 88:68) 성결케 된다는 것은 신성하게 또는 거룩하게 하는 것 즉, 죄로부터 자유롭게 순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지침을 정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을 주의깊게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모로 4:3; 교성 20:77)

교리와 성약 93편의 1절은 오늘 말씀의 요약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 훌륭한 자매님 여러분 각자에게—어린이나, 청년나 여성이신—하늘 나라로 나아오도록 주시는 약속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경전을 통하여 찾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구하십시오.

순종을 통하여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노력이 덧붙여지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

드웬 제이 영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우리는 준비하고, 감사드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소녀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노래의 가사는 나에게 기도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기도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교성 88 : 63) 우리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그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상의 부모와 이야기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 어느 누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큰 권능을 갖고 계심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관해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비밀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과 더우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며, 여러분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주님께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로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을 땐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말하는 것 못지 않게 들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여 가능하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주님을 공경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동안 눈을 감는 일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경건한 태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손을 모으는 일은 위험합니다. 더우기 눈을 감는 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지 신호 앞에서 차를 멈추면 가끔 머리를

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숲속이나 다른 평화로운 곳을 걸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로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경우는 아무 때나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릎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번째 단계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실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만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서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부름은 교회의 어린이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어린이까지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막중한 책임으로서, 처음에는 단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름받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드리고, 온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교사에게 깊은 책임감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어린이에게 사랑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간구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감사만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의 건강함과 이해심 많은 남편과 우리의 자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 봉사할 수 있는 특권, 나를 도와 주는 임원과 직원들, 온 세상에 흩어져 봉사하는 스테이크와 와드의 회원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것을 주고 돌보는 교사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예언자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훨훨 나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것처럼 나는 듯한 영을 경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감사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큰 절망에 빠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어느 것에 대해서든 감사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 가져 가지 못할 때 그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내가 약속하건대, 누군가 여러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하한 경우여라도 여러분을 염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언제든지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니다.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그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릴 것이 없거든 생명을 주신 것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세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갈구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 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십시오. 니파이가 했던 것처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구하는 것의 일부로서 응답을 위한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간구한 뒤 잠시 멈추고 들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때로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세 소년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들은 연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실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있는 나뭇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긴 막대기를 구해 그것을 끌어 내리려 했으나 그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을 끌어 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 연은 바람 속에서 빙글거리며 엉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게 좋겠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더니 그를 따라 머리를 숙이고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들판에 나 있는 길을 따라 한 대의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오자 소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차를 몰고 오는 부인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예, 연이 나무에 걸렸어요. 좀 꺼내 주시겠어요?”

“그러마. 차를 빼게 좀 비켜 서라.” 그녀는 차를 연이 걸린 나뭇 가지 밑으로 뺀 뒤, 차에서 내려 지붕 위로

올라가 막대기로 연을 꺼냈습니다.

기도를 드린 소년은 연을 부엌으로 가져 가서는 어머니에게 연이 나무에 걸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가 꺼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요.”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소년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네번째인 마지막 단계는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단계입니다. 첫째 준비하고, 둘째 감사드리며, 셋째 간구하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불릴 수도 있고 속삭임이나 생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주소서.” 하는 짧은 한 마디일 수도 있고, 밤낮 하루 종일 했던 이노스의 기도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자주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권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성스러운 경전; 고향에서 온 편지

아테스 지 캡 자매
본부 청녀 회장

“성스러운 경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고향에서 온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청녀 여러분과 함께 침대 위에 걸터앉아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의 위대함을 이해하도록 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소망과 친구의 영향력과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의 소중함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낙담하였거나 실망하고 당황하고 공포를 느꼈던 때에 관하여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청녀 자매님들이 물었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나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 다시 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갖게 되는 모든 의문에 대해 경전 연구를 통해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일생 중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려운 시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낙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수한 학생이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경전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전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여러분은 내가 이제는 결코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기실지도 모르지만, 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나는 다시 경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여러분도 많은 젊은이들이나 몇몇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경전이 지루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신앙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전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이 재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걸어 보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포기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걷는다는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딜 때 여러분은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곧 여러분은 달릴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전 연구하기를 배우는 것은 걷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경전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고, 좋아하는 소설과 같은 친숙한 것들을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걸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듯이 매일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진기한 기록들은 걸을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좀더 많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정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더 커지고, 유혹과 절망을 이겨 낼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아하는 성구를 읽음으로써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성구가 없다면 제가 인용하였던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표시하였다가 오늘밤 그것을 읽은 기념으로 오늘 날짜를 그 옆에 적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그 장의 서문을 읽고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제1장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밤이 이름 — 표적이 주어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름.” 여러분은 이미 그 기이한 사건을 알고 있으므로, 이 장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더 많은 것을 읽도록 해주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여름에 겪었던 나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군요. 나는 15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광야의 야영지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등반을 하였고, 8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던 힘든

육체적인 도전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숲 속으로 혼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열에서 떠나기 전에 각 청소년들은 이 행사를 위해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에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혼자 떠날 때 경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와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경전이 고향에서 온 편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편지를 개봉하여 읽었습니다. 한 청년은 일어서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숲 속에 앉아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거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다시 읽었을 때 큰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뜯고 읽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 귀한 기록들을 읽지 않는다면, 바로 그렇게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스러운 경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고향에서 온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로 나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니삼 9:14, 17-18 참조)

여러분께 묻노니, 여러분은 매일 경전을 펴서 그것을 읽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오는 축복과 복음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시해 둔

성구들은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혼란시키거나 낙담시킬 때 의지할 수 있는 닻이 될 것입니다. 경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을 영적으로 고양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경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는 습관을 지닌 다른 청년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게일 가드너 자매에게 경전을 읽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말씀해 주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게일: “저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해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느껴질 때는 거의 언제나 경전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캡 자매: “게일 자매는 특별히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게일: “예,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성구는 물몬경에 있는 모사이야서 4장 27절이에요. 그 성구는 사람이 자기 힘에 겨우게 행함이 옳지 않다고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 성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성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주 큰 웅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세미나리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책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한 너무도 사랑하는 한 남동생과 여섯 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제 자신의 능력에 보조를 맞추어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성구와 그와 같은 다른 구절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그 성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명예 추부사인 앤드류 드 지 스미스 장로

캡 자매: “게일 자매는 어떻게 경전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나요?”

게일: 저는 세 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겨 두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첫째, 저는 매일 계속해서 10분 동안 경전을 공부하고 집중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급히 “서둘러” 읽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만일 제가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경전을 읽을 수 있다면 경전 읽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10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고 난 직후에 경전을 읽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심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며,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읽기와 기도는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성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연구하며 읽고 기도할 때 느낀 느낌은 그러한 모든



의문과 의심에 해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캡 자매: “자매님은 자신의 경전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게일: “저는 저의 경전을 사랑합니다. 제가 표시를 하고 공부했던 성구들은 저의 간증을 아주 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열 일곱 살에 지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배운 복음의 원리와 지침들은 진정으로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의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일 자매님,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제신 청년 여러분, 오늘밤 고향에서 온 편지, 즉 경전을 좀더 자주 읽는 습관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처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가르쳐 줄 성신의 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생애에서 특별한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경전을 항상 곁에 두고 싶어할 것입니다.

나는 늘 경전을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이 작은 크기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들을 다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경전을 지니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을 찾아 내어 그들에게 특별한 성구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큰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경전을 갖고 있지?” 그 친구는 흥분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금 찾은 구절을 알려 주고 싶어.” 그녀가 그 구절을 읽어 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찾았지? 어느 책이야?” 그리고는 나도 기뻐하며 나의 경전에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도 걷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계속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언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몇 개의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들을 특별한 친구들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을 장만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열 일곱 살이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이 오래된 경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전에 물론경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 스스로 물론경이 참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신앙에 관한 성구인 엘마서 3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장을 다 읽었을 때, 나는 성신의 증거로 깨닫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무엇을 알았으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 얼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의 마음속에 사무쳤던 느낌들을 양쪽 여백에 가득 적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커다란 붉은 별을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5월 31일, 오전 7:30. 나는 이것이 마치 나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아노라.” 그리고 나는 다른 쪽에다가, “나는 확인을 받았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라고 쓰고, 또 다른 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달 전의 오늘, 나는 더욱 확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안다.”

기도와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은 경전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경전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서 경사가 가파르고, 두려움과 험난하며, 매일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영감이 필요한 심대의 나이에 그것들이 해답을 줄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전에 더욱 친근해지면 친근해질수록 경전은 여러분의 즐겨 읽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읽기가 더욱 쉬워지고, 비록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굳게 서도록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대회가 끝난 후에 저와 함께 규칙적인 기반 위에 여러분의 경전 연구를 증대시키도록 새로운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금년에는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을 결심을 하자는 초대와 과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약속하고 또 나의 간증을 드리노니,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갔으므로 그분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교성 88:63 참조) 우리는 이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구세주를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을 열심히 상고해 왔으며, 본향을 향한 우리의 여로에 그가 함께 걸어가실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

순종을 통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 각자는 복음의 원리에 순종할 때 내적 확신과
화평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과 세계 여러 곳에 계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영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만나게 될 것을 참으로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오늘 밤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주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를 기억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교성 20:77 참조)을 다짐하는 결의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문을 좀더 들어 본다면,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77절)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의 특별한 규칙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20:6 참조)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어...”(6:2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나민왕은 그의 오랜 생애와 경험 후에 작별의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를 축복하시”(모 2:22)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복음의 원리에 순종할 때 내적 확신과 화평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갖결혼한 딸과 사위가 졸업과 첫번째 직장 등등의 이유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적인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이사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후와 토양 조건이 달랐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권고를 따라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원을 가지려는 그들의 첫 시도는 애처로운 것이었습니다. 잡초가 채소보다 훨씬 더 잘 자랐습니다. 그 정원은 “순종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노력의 덕택으로, 매년 그 정원은 더욱 개선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개발된 솜씨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그 “순종의 정원”에서 일하고 책임을 갖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정원은 아름답고 “생존” 프로그램에 한몫을 담당할 만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곳에서 나온 작물들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필요를 위해 잔여분은 비축하였습니다. 그들이 배운 실제적인 교훈 외에도, 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화평과 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들에게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자의 권고는 그들에게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십일조를 바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의 증거와 성취감과 내적 화평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를 참석하기 시작한 한 훌륭한 자매님과 그의 남편은 목욕탕 시설이나 가스레인지, 심지어 싱크대도 없는 판자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너무 적었으므로 그들은 여덟 살 난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젊은 부부는 십일조가 매우 지키기 힘든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5개월 후에, 그 젊은 어머니는 십일조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달 보름쯤에 집에 있던 돈의 전부를 감독에게 바친 그녀는 남편과 세 살 난 딸아이와 함께 나머지 15일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축해 둔 돈도 없었으며 식량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묘사된 대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주에 한 친절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이 그 지방의 주식인 신선한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불 기한이 지난 빛이 그 남편에게 지불되었고, 석달 후에는 그의 직장에서 실질적인 봉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 큰 신앙을 행사할 때,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니파이일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양육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나니.”(17:3)

